

AIBD, IIC 등 국제기구를 통한 방송미디어 규제 및 정책협력 방안 연구

A Study on Promotion of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Area of Broadcasting/Media Regulation and Policy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AIBD and IIC

2019. 12

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융합정책연구 KCC-2019-03

AIBD, IIC 등 국제기구를 통한 방송미디어 규제 및 정책협력 방안 연구

(A Study on Promotion of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Area of Broadcasting/Media Regulation and Policy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AIBD and IIC)

남상열/김남두/김태은/김성웅/김나연/정연희

2019. 12

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 보고서는 2019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융합 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
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AIBD, IIC 등 국제기구를 통한 방송미디어 규제
및 정책협력 방안 연구』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년 12월

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총괄책임자: 남상열 선임연구위원

참여연구원: 김남두 연구위원

김태은 부연구위원

김성웅 부연구위원

김나연 전문위원

정연희 전문위원

목 차

요약문	vii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국내·외 환경 및 동향	1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 범위 및 주요내용	7
제 2 장 방송미디어 관련 국제기구 현황 및 주요 현안	8
제 1 절 정부 간 국제기구	8
1. AIBD(아시아태평양방송개발기구)	8
2. ITU(국제전기통신연합)	23
3. UNESCO(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35
제 2 절 비정부 국제기구	55
1. IIC(국제방송통신기구)	55
2. 국제/지역방송연맹	72
제 3 절 지역 규제기관 논의체	80
1. ERGA(유럽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규제 그룹)	80
2. ATRC(아세안 통신 규제기관 이사회)	81
제 3 장 방송미디어부문 국제기구/다자협력 분야 및 전략의 방향성	83
제 1 절 방송미디어부문 국제협력 프레임워크	83
제 2 절 전략 방향성	84
제 4 장 결 론	89

참고문헌	91
[부 록] 방송통신 관련 국제기구/단체 현황	93

표 목 차

〈표 1-1〉 2018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국제협력활동	3
〈표 1-2〉 2014~2019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국외 MoU 체결 목록	5
〈표 2-1〉 최근 10개년(2009~2019) AIBD AMS 개최 현황	13
〈표 2-2〉 ITU-T SG16 산하작업반(WP) 현황	24
〈표 2-3〉 ITU-R SG6 산하작업반(WP) 현황	25
〈표 2-4〉 ITU GSR 개최 현황	26
〈표 2-5〉 ITU ASP-RR 개최현황	33
〈표 2-6〉 아시아 주요국 정보통신 주무부처 및 규제기관	34
〈표 2-7〉 유네스코 미디어정보리터러시(MIL) 5대 법칙	39
〈표 2-8〉 유네스코 MIL 대표회의 개최현황	41
〈표 2-9〉 최근 5개년(2015~2019) IIC 연차총회 개최 현황	56
〈표 2-10〉 최근 5개년(2015~2019) IIC IRF 개최 현황	58
〈표 2-11〉 IIC 아시아 RRF 개최 현황	59
〈표 2-12〉 2019 아시아 RRF 프로그램	59
〈표 2-13〉 IIC 지부(Chapter) 현황	63
〈표 2-14〉 IIC 주요 논의 주제	63
〈표 2-15〉 IIC 방송미디어 관련 이슈	64
〈표 2-16〉 PBI 연례 회의 개최현황	78
〈표 3-1〉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소관 업무별 관련 국제기구 논의체	85
〈표 3-2〉 국제기구를 통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제협력 전략 방향성 제언	87

그림 목 차

[그림 2-1] ITU 조직도	23
[그림 2-2] 유네스코 조직도	36
[그림 2-3]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조직도	53
[그림 2-4] ABU 회원 구성	74
[그림 2-5] ASEAN TELMIN 구조	82

요 약 문

1. 제 목

AIBD, IIC 등 국제기구를 통한 방송미디어 규제 및 정책협력 방안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인터넷 및 융합의 진전으로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국경을 넘어 제공·시청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할권 및 기타 규제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해외 OTT서비스에 대한 국내 입법 등의 논의와 이에 대한 해외기업 적용 실효성 및 역차별 문제, 가짜뉴스 문제를 포함한 글로벌 동영상 서비스 규제이슈, 방송미디어 관련 국내 규제가 FTA나 다자간 협정에 저촉될 수 있는 사안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또한 새로운 미디어 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미디어환경 하에서, 전 세계의 방송정책 및 규제기관들은 도전 및 기회에 직면하고 있다. 새로운 방송 미디어 생태계에서의 방송의 공공성, 다원성의 보장과 아동보호, 젠더이슈, 미디어 리터러시, 이용자 보호 등의 신흥이슈에 대한 정책 및 규제 측면의 대응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한류 확산 측면에서도, 한류 콘텐츠의 해외 불법 유통을 포함한 다양한 사안과 관련하여 콘텐츠 유통과 소비의 측면에서 글로벌 논의가 필요하며, 국내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글로벌 시장의 규제 및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급변하는 방송미디어 환경 하에서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송미디어 관련 국제기구에 참여하여 다른 국가의 지식 및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글로벌 및 지역 내 방송미디어 발전에 기여하고 한국의 위상 및 영향력을 제고하며, 타 지역협력체와의 협력채널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

책경험 및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상호이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한국이 강점을 가진 방송미디어 분야 아젠다에 대한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여 글로벌 방송미디어 정책 및 규제 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개도국의 방송미디어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본 연구의 구성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장 서론에서는 방송미디어 부문 기술의 발전 및 글로벌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현안 연구가 필요함을 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정부간 국제기구, 비정부 국제기구, 기타 지역 규제기관 논의체로 나누어 특히 AIBD(아시아태평양 방송개발기구), ITU(국제전기통신연합), UNESCO(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특히 미디어리터러시 분야에 초점), IIC(국제방송통신기구) 등 방송미디어 관련 주요 정부간/비정부 국제기구의 현황을 살펴보고, 각 기구 주요 회의체에서의 핵심의제 및 주요 활동 조사·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주요 국제기구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기관 특성에 가장 부합하는 IIC의 국제규제기관포럼(IRF) 및 연차총회(AC)의 경우, 2019년 회의에 참석하여 주요 현안 분석과 논의 동향을 파악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UNESCO 미디어정보리터러시(MIL) 대표회의(Feature Conference)에 참석하여 동 분야의 주요 현안을 파악하였다. 또한 기타 세계/지역 방송연맹과 지역차원의 규제기관 협의체도 별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상기 관련 국제기구 활동 동향 조사 및 분석을 기반으로 국내 방송미디어 및 국제협력 전문가들의 견해와 의견을 반영하여 방송미디어부문 국제기구/다자협력 분야 및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제4장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과 결과를 요약 정리하였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연구 결과 총 다섯 가지의 방송미디어 부문 국제협력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는 첫 번째로는 방송미디어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UN의 전문기구인 ITU(GSR, ITU

ASP-RR과 같은 규제이슈 논의의 장) 및 UNESCO(특히, 미디어리터러시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이다. 하지만 이들 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혹은 교육부가 주관청으로 활동하는 만큼 이들과의 업무협약의 및 조정을 통해 활동영역의 재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비정부간 국제기구이지만 규제기관 간 논의의 장을 연례 제공 중에 있는 IIC로의 적극 참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별 정책 및 규제 이슈와 관련한 글로벌 아젠다 논의의 참여 및 정책 공조 등의 협력 추진이다. 이러한 논의는 방송미디어 관련 국제기구 뿐 아니라 포괄적인 아젠다를 다루는 관련 국제기구 혹은, 다른 기타 전문기구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책이슈별로 국내 전문가 회의 및 국제논의 동향 파악을 통해 참여 전략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지원 및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는 지역차원에서의 방송미디어 협력 추진으로, 현재 한국과 ASEAN의 협력이 ASEAN+1, ASEAN+Korea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참조하여 한-아세안 방송미디어 협력을 추진하거나, 이와 같은 프레임워크로 EU의 방송미디어 규제기관협의체 등과 같은 지역협력채널을 구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지역협의체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일회성 협력이 아닌 상설협의체의 설립과 같은 제도화된 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로는 협력의 매개체로서의 국제기구 참여로, 수원국들의 수요 및 동향 파악, 성과의 확산 및 국제적인 신뢰도 제고 등의 측면에서 국제기구가 매우 적합한 장이 됨을 고려했을 때, 이를 통해 개도국 지원 및 주요국과의 정책대화(Policy Dialogue)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방송부문에서 공영/민영 방송사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인터넷의 확산, 융합의 진전,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 등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인터넷 거버넌스포럼(IGF) 및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SIS) 포럼과 같은 다자이해관계자간 논의장예의 참여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본 연구는 급변하는 글로벌 방송미디어 환경 속에서 방송미디어 규제 및 정책 관련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고 글로벌 공통 현안에 대한 협력 및 지식 공유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다자외교의 기본 프레임워크를 마련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기대효과

본 연구는 방송미디어분야의 다자외교 및 협력 전략을 제시하고 그 방향을 구체화함으로써 동 분야의 향후 방송미디어 국제협력의 체계화 및 협력사업의 구체화에 있어 기반자료로 활용될 수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방송미디어를 둘러싼 글로벌 생태계의 변화 속에서, 국제기구를 기반으로 관련 국내 미디어 기업 등의 보호를 위해 글로벌 방송미디어 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한류 확산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SUMMARY

1. Title

A Study on Promotion of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Area of Broadcasting/ Media Regulation and Policy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AIBD and IIC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Under the new converged media environment with the development of new media technologies and services, policy makers and regulators over the world are facing both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The current Korean broadcasting media regulator, Korea Communication Commission(KCC) is facing a limitation in their international activities, with mainly focusing on one-time and case-by-case basis bilateral relations. To improve the current situation, it is required that KCC should establish a strategic framework to extend their international and multilateral activities in broadcasting media sector.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ways forward and strategy on multilateral broadcasting media diplomac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broadcasting media regulation and policy, in order to properly respond to new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under the rapidly changing broadcasting media environment.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Chapter 1 examines domestic and international broadcasting media environments, and accordingly describes the need, purpose and scope for this study. Chapter 2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major issues of broadcasting media rela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irstly, it examines AIBD(Asia-Pacific Institute for Broadcasting and Development),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and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as Inter-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secondly, explores Non-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cusing on IIC (International Institute of Communications). Furthermore, it reviews regulatory consultation bodies or groups at regional level such as ERGA(European Regulators Group for Audiovisual Media Services) and ATRC(ASEAN Telecommunication Regulators' Council). Based on the above analysis. Chapter 3 suggests a strategic framework of participation in rela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through the consultation with domestic broadcasting media experts. Lastly, Chapter 4 Conclusion summarizes the critical points in previous chapters and proposes a overall suggestion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strategy in broadcasting and media sector.

4. Research Results

This study suggests five strategie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broadcasting and media sector for KCC. The first suggestion is an active participation in ITU(the forum for regulatory issues such as GSR, ITU ASP-RR) and UNESCO(especially in the area of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which are specialized bodies of the UN that handle broadcasting and media-related affairs. However, since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MSIT)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MoE) are acting as the main administrative authority for each organization, KCC needs to redefine their areas through consultations and coordination with those ministries.

The second is the KCC's participation in global agenda discussions on specific policy and regulatory issues based on KCC's work scope, and promotion of cooperation in policy coordination. Since such discussions can take place not only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garding broadcasting media field but also in other international specialized organizations

dealing with comprehensive agenda items, it is necessary to set up proper strategies for active participation to those organizations, and to provide long-term support and response through domestic expert meetings and identifying trends in international discussions. The third is enhancing cooperation in broadcasting media sector at the regional level, which can be taken into account by referring to the current cooperation framework between Korea and ASEAN in the form of ASEAN+1, ASEAN+Korea, or the establishment of a cooperative channel with the EU's broadcasting and media regulator consultative body such as ERGA. Through continuing exchanges with those regional consultative bodies, creating institutionalized cooperation frameworks, such as the permanent consultative bodies can be considered. The fourth is the participation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a cooperation platform, which will enable KCC to promote assistance to developing countries and policy dialogue with major countries, consider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ill become a very suitable place in terms of identifying demand and trends in the recipient countries, spreading performance and enhancing international credibility. The last and fifth suggestion is, participation in multistakeholder dialogues such as the IGF(Internet Governance Forum) and the WSIS(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 forum, in which various stakeholders participate in, as public and private broadcasters are playing a key role in the broadcasting sector.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ould be utilized as a reference for developing the fundamental framework of the KCC on multilateral diplomatic strategy to take the lead on global discussions on broadcasting media regulations and policies, and effectively respond to global common issues in the rapidly changing global environment.

6. Expectations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a base reference for developing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strategy and cooperative projects in broadcasting media sector.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would be helpful for creating an appropriate environment that can promote the spread of the Korean Wave and, identifying global regulatory trends in broadcasting media sector to protect our domestic media companies.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1. Background and Objective of the Research
2.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Chapter 2. The Current Statu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Broadcasting and Media and Major Issues

1. Inter-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1) AIBD(Asia-Pacific Institute for Broadcasting and Development)
 - 2)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3)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2. Non-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1) IIC(International Institute of Communications)
 - 2) International/Regional Broadcasting Union
3. Regional Regulatory Group
 - 1) ERGA(European Regulators Group for Audiovisual Media Services)
 - 2) ATRC(ASEAN Telecommunication Regulators' Council)

Chapter 3. International Cooperation Strategies in Broadcasting and Media sector

1. Framewor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Broadcasting and Media sector
2. Strategy

Chapter 4. Conclusion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국내·외 환경 및 동향

인터넷 및 융합의 진전으로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국경을 넘어 제공·시청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할권 및 기타 규제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해외 OTT서비스에 대한 국내 입법 등의 논의와 해외기업에 대한 적용의 실효성 및 국내기업 역차별의 문제, 가짜뉴스 문제를 포함한 글로벌 동영상 서비스 규제이슈, 방송미디어 관련 국내규제가 FTA나 다자간 협정에 저촉될 수 있는 사안 등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새로운 미디어 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미디어환경 하에서, 전 세계의 방송정책 및 규제기관들은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고 있다. 새로운 방송미디어 생태계에서의 방송의 공공성, 다원성의 보장과 아동보호, 젠더이슈, 미디어 리터러시, 이용자 보호 등의 이슈에 대한 규제정책면의 대응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한류 확산 측면에서도 한류 콘텐츠의 해외 불법유통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안과 관련하여 콘텐츠 유통과 소비의 측면에서 글로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며, 국내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글로벌 시장의 규제 및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전 세계적으로 독립적인 방송미디어 규제기관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지역차원에서의 협업체 혹은 협력 채널을 통해 방송미디어의 당면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¹⁾

1) ERGA(유럽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규제 그룹)

급변하는 방송미디어 환경 하에서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송미디어 관련 국제기구에 참여하여 다른 국가의 지식 및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의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국제/지역차원의 관련 방송미디어 국제기구에 참여하여 지역내 방송미디어 발전에 기여하고 한국의 위상 및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른 지역의 협력체와의 협력채널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경험 및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상호이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한국이 강점을 가진 방송미디어 분야 어젠다에 대한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여 글로벌 방송미디어 정책 및 규제 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개도국의 방송미디어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 외교 및 협력의 전략적인 추진을 위해 다자와 양자 외교간의 균형 및 보완적 추진을 포함한 방송미디어 외교 프레임워크의 수립 및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제협력 활동은 크게 1) 방송통신분야 정부간 협력 활동, 2) 방송통신 네트워크 강화, 3) 방송콘텐츠 해외진출 및 한류 확산 지원 등으로 나누어진다.²⁾

우선적으로 정부간 협력 활동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협력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선진 방송통신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이와 관련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1-1>에서와 같이, 2018년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미국, 프랑스, 스페인, EU 등 총 9개 국가 규제기관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방송규제정책, 개인정보보호 등과 같은 광범위한 주제로 협력을 논의했다.

ATRC(아세안 통신 규제기관 이사회)

APT SARTC(아태지역통신연합체 남아시아 전기통신 규제위원회)

APT PRF & PRFP(아태지역통신연합체 정책규제포럼 & 태평양지역 정책규제포럼)

2) 방송통신위원회(2018)

〈표 1-1〉 2018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국제협력활동

분류	구분	시기/국가	주요 내용
방송 통신 분야 정부간 협력 활동	프랑스 통신우정규제청(ARCEP) 양자면담	2월/ 프랑스	- 5G 주파수 분배 및 인프라 구축 정 책 논의 - 플랫폼 정책 및 망 중립성 이슈 논의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양자면담	2월/ 미국	- ATSC 3.0, UHD 등 차세대 방송기술 적용 논의 - 5G 도입에 따른 망 중립성 적용 방 법 및 발전 방향 논의
	스페인 정보보호국(AEPD) 양자면담	3월/ 스페인	- EU 적정성 평가 추진 관련 지지 요 청 및 개인정보보호 협력강화 지원
	벨기에 유럽연합(EU) 사법총국 양자면담	4월/ 벨기에	- EU 적정성 평가 추진 등 개인정보 보호 협력 강화
	캄보디아 공보부(MOI) 양자면담	5월/ 캄보디아	- 한국-캄보디아 간 방송통신분야 협 력방안 논의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 (IMDA) 방문 및 면담	6월/ 싱가포르	-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정책 관련 논의
	독일 연방경제부(BMWi) 동독재건 특임부처 방문 및 면담	9월/ 독일	- 독일 통일 전후의 방송통신분야 경 제 지원 현황 및 정책 분석
	EU 지역개발국 (DG REGIO) 방문 및 면담	9월/ EU	- EU의 구조지원기금 예산 현황, 재 정 지원 활용 분야 및 정책분석
	싱가포르 통신정보부(MCI) 방문 및 면담	12월/ 싱가포르	- 싱가포르 방송 규제 정책 파악 및 한국과 협력 방안 논의
방송 통신 네트 워크 강화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 2018) 참관	1월/미국	- 방송통신분야 국제기술 동향 파악 및 국내 참가기업 관계자 의견 청취
	이동통신 산업전시회 (MWC) 참관	2월/스페인	- 최신 방송통신 기술동향 파악 및 우 리기업 애로 및 요청사항 청취
	국제 방송영상콘텐츠 마켓(MIPTV) 참관	4월/ 프랑스	- 방송 콘텐츠 최신 기술 동향 파악 및 관련 참관기업 의견 청취
	미국 방송장비 박람회(NAB) 참관	4월/ 미국	- 방송장비의 최신 기술 동향 파악 및 관련 참관기업 의견 청취
	AIBD 아시아미디어서밋(AMS 2018) 참석 및 발제	5월/ 인도	- 한국의 미디어 정책방향과 지역 미 디어 콘텐츠의 활성화 사례 소개

분류	구분	시기/국가	주요 내용
방송 통신 네트 워크 강화	국제 방송장비 박람회(BCA) 및 국제 정보통신 박람회 (CMMA)	6월/ 싱가포르	- 방송 장비 및 콘텐츠 업체들의 전시 품목을 살피고, 국내외 참가 기업 관계자들 의견 청취
	한국-캐나다 과학기술정보통신 컨퍼런스(CKC) 참석 및 발제	6월/ 캐나다	- 디지털 미디어, IoT, 개인정보보호 방안 등 방송통신 정책 공유 등
	아시아 텔레비전 포럼 (ATF) 참관	12월/ 싱가포르	- 방송 장비 및 콘텐츠 업체들의 전시 품목을 살피고, 국내외 참가 기업 관계자 의견 청취
방송 콘텐츠 해외 진출 및 한류 확산 지원	미국 내 MBC America, CJ E&M LA지사 등 방문 및 면담	1월/ 미국	- 한류 방송콘텐츠 진출 현황 파악, 양국 방송 콘텐츠 교류 활성화 협력 방안 논의
	영국 BBC 및 방송통신규제위원회(Ofcom) 방문 및 면담	3월/ 영국	- 공영방송의 역할, 외주제작사 육성 정책방안 논의 - 방송통신융합서비스 규제체계 마련 방안과 EU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에 따른 대응방안 등 다양한 정책적 현안 논의
	싱가포르 mm2 엔터테인먼트 방문 및 면담	6월/ 싱가포르	- 싱가포르 내 방송통신 콘텐츠 진입 현황과 동남아시아의 방송콘텐츠 산업 현황, 한류 콘텐츠 진출 논의
	미국 텔레비전표준협의회(ATSC) 방문 및 면담	5월/ 미국	- 국내 방송장비 기업들 소개 및 국내 방송장비 기업의 해외진출 논의

자료: 2018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저자 재정리)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각종 방송통신 분야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국내 규제정책을 공유하고, 글로벌 방송통신 규제 현안을 파악 중에 있다. 2018년에는 아시아태평양방송개발기구 아시아미디어서밋(AIBD AMS)에 참관, 의제 발표를 통해 '한국의 미디어 정책 방향과 지역 미디어 콘텐츠 활성화' 사례에 대해 소개했으며, 그 외 한국-캐나다 과학기술정보통신 컨퍼런스(CKC),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국제 방송 영상콘텐츠 마켓(MIPTV) 등에 참관을 통해 방송통신 분야의 동향을 살피고 국내외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아울러 방송콘텐츠 해외진출 및 한류 확산지원을 위해 방송통신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위한 협의채널 구축 등에 노력 중에 있으며, 2018년에는

영국 공영방송사인 BBC, 싱가포르 mm2 엔터테인먼트 등을 방문하여 공영방송의 역할 공유와 역내 방송통신 콘텐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상기 국제활동과 더불어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국과의 MoU 체결을 통해 양자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 중에 있으며, <표 1-2>에서와 같이 2013년 정부조직개편 이후부터 호주, 몽골, 베트남, 터키,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규제기관과의 MoU를 체결한 바 있다.

<표 1-2> 2014~2019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국외 MoU 체결 목록

체결시기	체결 국가 및 기관	주요 내용
2014. 1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 라디오 및 텔레비전 분야 한·중 양국간 협력을 강화 위한 협력추진
2014. 7	호주 방송미디어청(ACMA)	○ 방송통신정책 협력 및 인적교류 활성화 등
2015. 8	몽골 방송통신규제위원회(CRC)	○ 방송통신분야 협력
2016. 2	체코 통신위원회(CYU)	○ 방송통신 분야 정책·기술·인력 개발 등 협력
2016. 5	베트남 정보미디어부(MIC)	○ 양국 방송·통신 사업자간 협력 촉진, 인터넷 상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 윤리 분야 협력 등
2016. 5	터키 정보통신기술청(ICTA)	○ 방송통신분야 협력
2016. 12	캄보디아 우정통신부(MPTC)	○ 방송통신분야 협력
2017. 2	태국 방송통신위원회(NBTC)	○ 방송콘텐츠 분야 협력추진
2017. 2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KPI)	○ 방송콘텐츠 분야 협력추진
2017. 2	터키 라디오TV방송위원회(RTUK)	○ 방송콘텐츠 분야 협력추진
2019. 6	터키 라디오TV방송위원회(RTUK)	○ 한-터키 방송 공동제작협정 추진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웹사이트(저자 재정리)

위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분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 중에 있으나, 이러한 국제활동은 주요 방송콘텐츠 분야나 미디어 분야의 규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양자간 협력에 집중되어 있다.

ITU 등 국제기구 통신부문의 다자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하기 위한 과제(과기정통부 “국제기구활동 지원체계 구축”)는 다년간 수행되어 한국의 선출직 및 이사국 진출, 의장직 수행, 글로벌 의제 주도 등에 기여하고 있다. 방송미디어 부문의 경우도 방송규제기관, 정책기관간의 국제적 지역적 협의체 등 국제기구가 존재하며, 동 분야의 다자 외교를 위한 기본 프레임워크 및 전략, 실질적 협력 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방송미디어 규제 및 정책 분야의 다자간 방송미디어 외교 및 협력의 방향성 및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방송미디어 글로벌 환경변화와 주요현안을 파악 분석하고 국제기구의 핵심의제 논의동향을 분석하며, 글로벌 방송미디어 발전 및 국내 방송미디어의 해외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송 미디어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 공동사업 등 실질적 협력방안 검토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 2 절 연구 범위 및 주요내용

본 연구는 급변하는 방송미디어 환경 하에서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방송미디어 규제 및 정책 분야의 다자간 방송미디어 외교 및 협력의 방향성 및 전략을 모색하였다.

제1장에서는 국내·외 방송미디어 환경 및 동향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범위 및 다루어질 주요 연구내용을 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방송미디어 관련 국제기구 현황 및 주요 현안을 분석하였다. 우선 정부간 주요기구(Inter-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로 아시아태평양방송개발기구(AIBD, Asia-Pacific Institute for Broadcasting and Development),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를³⁾, 비정부 국제기구(Non-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로는 국제방송통신기구(IIC, International Institute of Communications)를 우선순위로 하여 살펴보았으며, 세계방송연맹(WBU, World Broadcasting Union), 아태지역방송연맹(ABU, Asia-Pacific Broadcasting Union), 유럽방송연맹(EBU, European Broadcasting Union), 아프리카방송연맹(AUB, African Union of Broadcasting) 등과 같은 국제/지역 방송연맹 및 유럽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규제 그룹(ERGA), 아세안 통신 규제기관 이사회(ATRC)와 같은 기타 지역차원의 규제 협의체 및 논의체를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2장의 주요 국제기구의 주요 논의 동향 및 현안 분석을 중심으로, 국내 방송미디어 및 국제협력분야 전문가 자문의견을 수렴/반영하여 방송미디어부문 국제기구/다자협력 분야 및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 결론에서는 방송미디어부문의 다자외교 및 협력관련 정책을 제안하였다.

3) 특히 미디어리터러시 부문을 중심으로 검토

제2장 방송미디어 관련 국제기구 현황 및 주요 현안

제1절 정부 간 국제기구

1. AIBD(아시아태평양방송개발기구)

가. 개요

아시아태평양방송개발기구(AIBD, Asia-Pacific Institute for Broadcasting and Development)는 UNESCO의 UN 프로젝트 중 하나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방송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훈련원(Regional Training Institute)을 설립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창설되었다.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는 인력 및 기술부족을 경험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이 방송훈련을 통한 인력양성이 필요하다는 1967년 연구조사 결과에 따라, 이후 5년간 역내 방송 훈련을 실시하였고, 1972년 UNDP가 재정 지원하는 훈련에 대한 수요 조사 및 대응조치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후 이런 필요성이 지속되어 UNESCO 및 ABU 결의에 의해 197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AIBD가 설립되었다.⁴⁾ AIBD는 각 국가의 개발목적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훈련과 조사계획을 통하여, 방송체계의 전문적인 능력을 개선하도록 회원국을 지원하며, 교육 및 개발목표에 부합하도록 회원국의 방송기관 및 방송 종사자의 업무를 지도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종 방법, 기술 및 물적 자원을 개발하며, 방송 개발, 훈련 및 연구 분야에 있어서 협력기관의 조직을 창설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19년 현재 26개 정회원(국가)와 62개 준회원(기관)이 가입 중이며,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회원으로 활동 중에 있다. 사무총장은 필로미나 그나나프라가삼(Ms Philomena Gnanapragasam)(말레이시아)이다.

4) AIBD(1998)

나. 조직

1) 총회(General Conference)⁵⁾

총회는 AIBD 모든 회원으로 구성되며, 매년 정기회의를 1회 개최한다. 다만, 투표권은 정회원에게만 한정된다. 총회는 집행이사회 자문(Advice)을 받아 의장이 요청할 경우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총회 의장단은 의장(President), 부의장(Vice President), 사무국장(Director)으로 구성된다. 의장과 부의장은 각각 1인이며, 총회에서 2년마다 선출된다. 투표방식은 다수결이다. 현직 의장단은 2년 임기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만료 후 2년, 즉 1번의 임기를 쉬 다음에는 다시 선출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연임과 중임이 가능하다.

AIBD 사무국장은 총회의 간사(Secretary)가 되며, 투표권은 갖지 못한다. 총회의 간사는 의장의 동의를 얻어 공여국의 대표·UN 전문기구·AIBD에 대한 공헌이 인정되는 후원자 또는 협력단체를 참관인(Observer)으로서 초청할 수 있다. 초청받은 참관인은 참가할 권리를 가지게 되지만, 투표권은 행사할 수 없다.

총회의 권한은 ①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 ② AIBD 집행이사회를 선임하되, 최초 회의에는 집행이사회 수, 선출조건 및 집행이사회 기능에 관하여 결정, ③ AIBD 사무국장을 임명, ④ AIBD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사무국장에게 정책결정 사항과 지침을 부여, ⑤ AIBD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 ⑥ AIBD 비정회원 자격 신청을 승인, ⑦ AIBD 설립협정의 개정을 승인, ⑧ AIBD 설립협정에서 인정하는 기타 기능을 직접 또는 위임하여 수행하는 것 등이다.

2)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집행이사회는 10개 회원국(또는 기구대표)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UNESCAP의 회원 및 준회원인 모든 국가가 참가할 수 있는 정부 간 회의에서 최초로 선출된다. 임기는 2년이며, 최초 임기 2년이 만료된 뒤에는 선출된 10개 회원국 중 일부가 퇴임하며, 그 후 2년이 지나면 다시 나머지 국가가 퇴임한다. 다만, 퇴임회원국도 재선(연임)될 자격을 가진다. 집행이사회는 총회에 의해 설립되지만, 총회 권한 중 상당수를 실제로 행사하는 것은 집행이사회이다. 현재 집행이사회는 총회 및 AIBD 주요 의제인 재정, 인력관련 투자 및 적립기

5) 이강규(2009)

금(Reserve Funds) 관련 이슈, 행정조직, 프로그램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⁶⁾

집행이사회 이사국은 2019년 총회 기준으로 부탄, 캄보디아, 이란,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태국, 피지, 말레이시아 등 총 9개국이며, 총회의 의장국(인도)과 사무국장은 당연직(ex officio)으로 집행이사회에 참여하게 된다. 한국은 두 번 연임(2009~2013년)하여 한 회기 휴지(2013~2015) 후, 2015년·2017년에 이사국에 선출되어 연임한 바 있다.

3) 전략기획팀(Strategic Plan Team)

실질적으로 전략기획팀에서 마련한 안건을 집행이사회가 승인하고 총회에서 이를 확인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영향력에 있어서는 총회와 집행이사회를 능가하는 측면이 있다.

4) 사무국

사무국은 크게 사무국장을 보조하는 행정인력과 프로그램부서 소속의 프로그램 매니저들로 구성된다. 프로그램 부서에도 각 매니저들을 공통으로 보조하는 비서가 있다. 사무국 총 인원은 20명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⁷⁾

다. 주요 활동 및 업무

AIBD는 연수 프로그램 및 자문서비스 제공, 역내 대화체 마련 및 운영, AIBD 어워즈(Awards) 운영, 각종 출판물 발간 등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다.

연수 프로그램은 AIBD 사무국이 실시하는 훈련 연수 및 회원국 주요기관에서 현물(in-kind)로 제공하는 훈련활동이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AIBD와 회원국들은 30개가 넘는 훈련활동을 수행했으며, 이 중 지역위크숍과 개별국가내(in-country) 위크숍의 비중이 거의 같았다.⁸⁾ 훈련활동의 주요 주제 분야는 미디어 문해력, 매니지먼트, 어린이 및 젠더, 방송기술, 디지털화, 소셜미디어, 콘텐츠 생산, 뉴스 프로그래밍 등 미디어 분야의 다양한 주제와 함께 방통융합 이슈 전반을 포괄하는 방송 전문인력의 역량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

6) 이강규(2009)

7) AIBD 홈페이지

8) 동 훈련활동으로 혜택을 받은 방송인력은 천여 명에 달하나, 재정적인 지원을 받은 케이스는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AIBD 사무국측은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음

다.⁹⁾ 우리나라 방송사의 경우 1980년대 연수 프로그램의 주요 수혜자 입장이었으나, 2006년부터 공여자로서 KBS가 AIBD와 공동으로 아·태지역 방송사에 컨설턴트를 파견하였고 EBS도 프로듀서를 AIBD에 파견한 바 있으며, 현재 AIBD 정회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회원국의 일정 수의 인력을 초청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와 방송사가 선진제작기법 및 시스템구축기술을 전수하여 해당지역의 친한 인사를 육성하고 국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¹⁰⁾ 2018년 11월 시청자미디어재단이 AIBD와 함께 지역 미디어 센터에 관한 지역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2019년 11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동일한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같은 훈련활동의 조직은 AIBD와 회원국의 방송사, 기관 또는 ABU, UNESCO, EBU 등 다른 국제협의체와의 공동 진행의 포맷을 띠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AMS의 부대행사로 진행되는 사전서밋(Pre-Summit) 워크숍의 경우 2019년에는 AIBD-UNESCO의 가짜뉴스 워크숍, AIBD-EBU의 4차 산업혁명의 리더십에 관한 마스터 클래스, AIBD-ABU의 디지털 라디오에 관한 워크숍 등이 개최되었다.¹¹⁾

역내 대화체는 AIBD의 대표적인 행사이자 핵심 업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아시아미디어서밋(AMS)’이다. AIBD는 아시아 지역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체로서 2004년 AMS를 출범하였다. AMS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개최되는 유일한 고위급 국제 방송회의로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유럽, 중동 등의 다양한 지역에서 매년 60여개국 500여명의 정부정책담당자, 언론사 대표 및 방송분야 유력인사들이 참가하여 정보교환과 방송외교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¹²⁾ 우리나라도 2016년 AMS를(구)미래창조과학부 주최로 유치하여 인천 송도에서 5.24~26일 개최한 바 있다. 특히, AMS는 아태지역 및 글로벌 측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을 선정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논의를 거침으로써 최근 미디어 및 디지털화 관련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2016년 AMS에서는 ‘미디어 콘텐츠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 하에 아시아콘텐츠의 경쟁력과 잠재력에 대한 미래 전망, 로컬 및 글로벌 콘텐츠의 다양성, 국제 공동제작 투자전략, 저작권 문제 등을 논의하였고, 2018년 중국 청도에서 열린

9) 2019년 AIBD 연차총회 사무국 보고자료 참조

10) 이강규(2009)

11) 2019년 AMS 프로그램은 AIBD 홈페이지 참고

12) 이강규(2009)

AMS에서는 ‘글로벌 발전의 선봉으로서의 미디어’라는 주제를 기반으로 개발의제에 대한 미디어 전략, 미디어 책임 및 대중 인식과 참여 제고, 고품질 프로그래밍 전략 등을 세부적으로 논하였으며, 2019년 캄보디아가 주최한 AMS에서는 ‘미디어 디지털화’라는 전체 주제에 따라, 디지털혁명에의 대응, 뉴미디어와 가짜뉴스, 미디어 콘텐츠 유통 기술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¹³⁾

한편, AIBD가 추진했던 또 다른 국제행사로 방송훈련 국제컨퍼런스(ICB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roadcast Training)가 있다. ICBT는 말레이시아의 후원 하에 2013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한 후 2015년까지 3차례 진행되었다.¹⁴⁾ 1차 회의에서는 말레이시아 방송정보연구원(IPPTAR)이 개최하여 ‘진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역량 구축’을 논하였고, 아태지역 20여 개국 60여 명이 참가하였다. 2014년 2차 회의는 ‘뉴미디어 및 소셜미디어를 위한 훈련의 의미’, 2015년 3차 회의는 ‘창조적 콘텐츠-비즈니스 가치 및 이용자 경험 극대화’에 대해 각각 논의를 하였다.¹⁵⁾

AIBD가 운영하는 어워드는 World TV 어워즈, AIBD TV 및 라디오 어워즈가 있다. 우선 World TV 어워즈는 AMS 진행시 부대행사로 진행되며, 휴머니티 분야와 과학 및 환경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을 분야별로 회원국들의 방송사로부터 신청 및 접수받아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한다. 2019년 World TV 어워즈에서는 휴머니티 분야의 ‘기술 및 휴머니티-영향’ 다큐멘터리 부문에서 싱가포르의 Channel NewsAsia에서 제작한 ‘Becoming Human: Coding Morality’이 수상하였고, 과학 및 환경 분야의 ‘플라스틱 바다 Taming’ 프로그램 부문에서는 한국 KBS의 ‘플라스틱 지구’가 수상하였다. AIBD TV 및 라디오 어워즈는 AIBD 연차총회 이전에 출품작을 신청 및 접수받아 연차총회 개최식에서 수상작을 발표한다. 2019년 AIBD TV상은 스리랑카의 SLRC, 싱가포르의 MediaCorp에서 각각 <Amazing School>, <This is What I Hear - Finding My Way>이 수상하였고, AIBD 라디오상은 중국 CNR의 격오지 여성의 권한 확보를 위한 <Xiaomei, When Are You Going To Show Up?> 프로그램, Reinhard Keune’s 라디오상은 중국 CRI의 <Rechiming China’s Legendary Bells>

13) AIBD 홈페이지

14)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부(KKMM)의 후원 및 방송연구소인 IPPTAR의 주관하에 진행되는 말레이시아 측의 재정적 기여 의존도가 높아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15) AIBD 홈페이지

가 수상작으로 결정되었다.¹⁶⁾

기타 AIBD가 출판하는 주요 발간물로는 소식지인 《Broadcaster》가 있다. 《Broadcaster》는 2011년 연차총회 이후 분기별로 발간되어 회원국들에 배포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AMS, 워크숍 등 주목할만한 AIBD의 주요행사 결과, 방송 이슈에 대한 저널리스트의 칼럼, 회원국내 조직상의 변화 및 주요 인사들의 동정 소식 등을 담고 있다.¹⁷⁾ 또한, 사무국은 2016년 AMS 종료 이후 내용 및 결과에 대한 자료 책자(Proceeding)를 시범적으로 발간하여 배포한 이후 호의적인 반응에 따라 동 시스템을 정착시켜 2019년까지 유지하고 있다.

라. 방송미디어 관련 주요 현안

1) 주요 논의체

아시아미디어서밋(AMS, Asia Media Summit)는 2004년 출범한 아시아지역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체이자, 아태지역에서 개최되는 유일한 정상급 국제방송회의로,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유럽, 중동, 북미지역에서 매년 60여 개국 500여 명의 정부 정책결정자, 영향력 있는 언론사 대표 및 방송분야 유력인사들이 참가하여 정보교환과 방송외교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표 2-1〉 최근 10개년(2009~2019) AIBD AMS 개최 현황

회차 (개최일자)	장소	주제	주요 의제
16차 (2019. 6. 12.~13)	캄보디아, 시엠립	미디어 디지털화- 개도국 시장에 초점	- 4차 산업혁명에서의 미디어 가시화 - 콘텐츠 제작에 있어 최신 기술 통합, - 허위정보와 뉴미디어
15차 (2018. 5. 9.~10)	인도, 델리	아시아의 스토리텔링	- 미디어 규제 정치 - 방송 테마로서 아시아의 가치 - 스토리텔링과 미디어의 성공
14차 (2017. 6. 6.~7)	중국, 칭다오	글로벌 발전의 선봉으로서의 미디어	- 개발의제에 대한 미디어 전략 - 미디어 책임 및 대중 인식과 참여 제고 - 고품질 프로그래밍 전략

16) AIBD 홈페이지

17) AIBD 홈페이지

회차 (개최일자)	장소	주제	주요 의제
13차 (2016. 5. 26.~28)	한국, 송도	미디어 콘텐츠의 새로운 지평	- 아시아콘텐츠 전망 - 로컬 및 글로벌 콘텐츠의 다양성 - 국제 공동제작 투자전략 및 저작권 이슈
12차 (2015. 5. 26.~28)	말레이시아, 쿠알라 룸푸르	소셜미디어 시대의 방송의 변혁	- 소셜미디어 전망 및 미래 - 소셜미디어 법규 가이드라인 설정 및 이행 - 저널리즘과 소셜미디어
제11차 (2014. 5. 6.~8)	사우디, 제다	미디어와 다양성: 방송 경험의 강화	- 미디어의 미래 플랫폼, 뉴스의 혁신 - 미디어 규제, 미디어의 역할 - 긴급상황시 미디어
제10차 (2013. 5. 29.~31)	인도네시아, 마나도	방송의 미래 논의	- 미디어 다양성, 해독력, 윤리 - 지속가능 발전에 있어 미디어의 역할 - 소셜TV 및 TV콘텐츠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9차 (2012. 5. 29.~30)	태국, 방콕	현대사회에서의 미디어 영향력 창출	- 방콕선언문 개정 - 공영방송의 개선 - 미디어 신뢰, 해독력 증진
제8차 (2011. 5. 24.~26)	베트남, 하노이	디지털미디어의 확산: 방송의 역할 재정립	- 콘텐츠 활용 및 창출의 혁신 - 방송기술 혁신 - 뉴미디어 최적화
7차 (2010. 5. 25.~27)	중국, 북경	창의, 신뢰, 권리, 책임	- 미디어 윤리, 창조성 - 공영방송 규제
6차 (2009. 5. 25.~27)	중국, 마카오	미디어와 역량 배양	- 뉴미디어와 세계 질서 변화 - 글로벌 위기에 대한 미디어 대응 - 미디어 교육

자료: AIBD 홈페이지(저자 재정리)

2) 주요 논의 현안¹⁸⁾

2019 AMS를 통해 AIBD에서의 방송미디어 관련 주요 현안 및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9 AMS는 2019년 6월 12-13일 양일간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미디어 디지털화- 개도국 시장에 초점’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정부기관, 산업계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주요 세부의제로는 4차 산업혁명에서의 미디어 가시화, 콘텐츠 제작에 있어 최신 기술 통합, 허

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9 AIBD AMS 출장결과보고서』 참고

위정보와 뉴미디어가 논의되었다. 총 7개 세부세션이 진행되었으며, 각 세션별 세부 논의 사항은 아래와 같다.

세션1: 디지털 혁명에의 적응방안

발표자: 캄보디아 정보부 장관(Khieu Kanharith)

주요 내용

- 라디오, 프린트 미디어 등 전통미디어가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소셜미디어 등 비국가 행위자에 대항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며,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에 있어 장점도 있음. 디지털 혁명 덕분에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사용이 급속히 증가하는 이면에 가짜뉴스에 대해 미디어가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야 함을 강조

발표자: 미얀마 정보부 장관(U Pe Myint)

주요 내용

- ‘디지털 혁명에 대한 미얀마의 대응’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최근 디지털 혁명의 사회경제적 혜택 등 긍정적인 영향을 확대하고, 사회에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주요 선도국가들의 의견을 배우고 싶음을 언급. 미얀마에서 몇 년전 SNS(특히 페이스북) 확대 현상(최근 2천만 명(전체인구의 40%))이 바로 디지털 혁명의 증표이며, 모바일 보급으로 권한 강화, 표현의 자유 등 혜택과 함께 가짜뉴스 등 폐해도 발생. 특히, 표현의 자유 보장은 미얀마에서 매우 특기할 사항이며, 교육을 통한 디지털 문해력 향상도 디지털 접근을 확대하고 온라인 상거래도 급증시킴. 정부도 2012년 전자정부 마스터플랜, 2019년 관련 위원회 설립 등 디지털 혁명에 대비하고 디지털경제 로드맵을 수립하여 금융분야 디지털화 등에 노력 중. 그러나 아직 초창기라 부족하므로 디지털 국민, 디지털 국가를 위해 투자, 민관협력, 국가간 협력 등이 필요

발표자: 필리핀 대통령실 공보부(PCOO) 장관(Jose Ruperto Martin M. Andaar)

주요 내용

- Technology에서 Techno는 실질적 기술을, Nogia는 공부를 의미하는 그리스어로 지식의 적용을 의미. 미디어 네트워크의 혜택을 향유하는 것은 Words를 통해서이며, Words는 평화, 혁명, 치유, 위안, 변화, 전쟁 등을 가능하게 하며 행복의 바탕 기술의 바탕이 됨. 기술은 지식의 적용이므로, 말로 구성된 콘텐츠가 우선사항임. 사실에 기반, 확실하고 확인된 데이터에 기반한 콘텐츠가 중요하며, 전통적/현대적 가치관을 균형 있게 갖추고 경쟁력을 갖춘 시장의 발전이 중요. 필리핀은 대통령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이를 추구하고 있음. 결론은 기술을 넘어서는(Beyond Technology) 것이 필요함

발표자: 한국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고삼석)

주요 내용

- ‘디지털혁명시대의 미디어 정책(5G+ 전략 및 미디어 산업 혁신)’을 주제로 발표. 한국의 방송통신 디지털화 역사로 2012 디지털전환, 2018 평창올림픽 5G 시범, 2019 5G 상용화 등을 소개. 5G의 영향에 대한 평가(2018 WEF 세상을 변화, OECD 5G보고서)를 보면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 초격차 등으로 5G의 특징을 정의 가능. 글로벌 미디어 환경의 변화

(넷플릭스, 유튜브 등 OTT 성장 및 TV, 신문 등 전통 미디어의 쇠퇴, 실시간에서 비실시간화 등 콘텐츠 소비의 개인화), 미디어 대응전략(한류 콘텐츠 지속 확산, K-CON(한국문화 플랫폼) 등 한국형 콘텐츠 유통 플랫폼 구축, 5G 선도국 위상 확립) 등을 설명하고, 디지털 격차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민간 노력과 더불어 정부와 국가간 협력을 강조

발표자: 방글라데시 공보부 장관(Mohamad Moosad)

주요 내용

- 미디어와 디지털기술은 삶을 변화시키고 폭넓은 기회가 제공됨. 방글라데시는 약 1억 6천만 명의 인구로, 인구밀도가 매우 높아 'Make Bangladesh, Digital Bangladesh' 라는 캐치프레이즈 통해 계몽. 뉴질랜드와 협업하여 격오지 섬에 디지털센터 개소를 시작하여 현재 수천 개를 설립하고, 수천 개의 온라인 포탈, SNS 이용 확대, 스마트 농업 등 디지털 방글라데시가 현실로 다가옴. 그러나 사회적 불평등, 프라이버시, 디지털 정크, 디지털 범죄, 사이버테러 등 어려움도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가 필요하며,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 R&D와 혁신, 인력과 자원에 투자해야 하며 국가간 협력이 필요함

발표자: 사모아 정보통신기술부 차관(Lealailepule Rimoni Aiafi)

주요 내용

- 1990년대 미디어 산업이 태동하였고, 태평양 섬나라로서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옴. 세계은행과 협력하여 IT에 지속 투자, 헌법을 통해 표현 자유보장 미디어 기관 보호 명시, 2017년 해저케이블을 구축하여 다른 태평양 도서국과 연결 등 추진. 역량개발, 사이버범죄, 가짜뉴스/명예훼손 등의 과제도 존재하므로 미디어의 책임성이 강조되어야 하며, 디지털 전환 계획 및 이를 담당할 기관을 정하여 대응할 것임

세션 2: 4차 산업혁명에서의 미디어 가시화

발표자: 싱가포르 넷플릭스(Darren Ong)

주요 내용

- 넷플릭스의 최근 콘텐츠(Chopsticks)의 장점(무제한, 무광고, 원하는 작동법)을 소개하고, 현재 190개 이상의 국가에 148백만 회원에게 다양한 장르와 언어로 된 콘텐츠 제공, 전세계의 스토리를 전세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예. 로컬스토리에 대한 국제적인 환호 획득)을 갖고, 혁신 및 성장 촉진을 추진. 의사결정의 중심에 이용자의 관심사를 두는 것이 온라인 환경에서 매우 중요함. ASEAN VoD 자기규제 Code(2018.6월 규제기관과 산업계가 협의하여 수립)를 소개하고, 진보적인 정책과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은 아시아 시장 내 투자를 밝게 함을 강조

발표자: 캄보디아 기자연합 의장(Huy Vannak)

주요 내용

- 4차 산업혁명에서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법률에 있어 신기술 활용을 위한 장애요인 제거 등을 강조

발표자: 말레이시아 멀티미디어 대학 학장(Lim Kok Yoong)

주요 내용

- 뉴미디어 환경은 디지털 연결, 디지털 융합, 대중의 이동 등으로 특징지어짐. 전통적인 제

도화된 미디어 vs. Indymedia, 대안 미디어, 시민 참여 팝저널리즘의 구도로, 디지털 문화는 참여, 거리두기(Distantiation), Bricolage의 특성을 가짐

발표자: 유럽방송연맹(EBU) 교육팀장(Nathalie Labourdette)

주요 내용

- 미디어와 전통 비즈니스 모델의 붕괴, Reskilling 혁명(개인의 노력+이해관계자 협력, 재능(Talent)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 미래 일자리를 위한 재훈련 필요), PSM 레거시 가치(다양성, 보편성, 책임성)의 보존과 혁신 등을 강조. EBU는 업스킬 및 리스킬 훈련을 제공하며 마스터 클래스를 운영 중. 결론적으로 성공적인 학습은 신뢰에 기반, 새롭고 불확실하며 복잡한 상황 해결을 위해 학습이 핵심임

발표자: 독일 DW 국제관계 담당(Klaus Bergmann)

주요 내용

- 공영방송의 관점에서 DW의 디지털 전략(기자들 디지털 스킬 교육)을 설명. 단계적인(Step by Step) 조치로 데이터 분석, 맞춤화, 뉴스 상품 품질 개선 및 최적화, 저널리스트와 시청자 간 접촉이 이루어짐. 디지털 문해력 개선을 통한 시민의 디지털 툴 활용 확대, 파트너와 협력, 편향되지 않은 질 높은 저널리즘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세션3: 콘텐츠 제작에 있어 최신 기술 통합

발표자: 말레이시아 XR Sdn Bhd 공동창립자(Andrew Yew)

주요 내용

- 'XR: 패러다임 시프트 - 콘텐츠 제작을 위한 원칙 및 기술'을 주제로 발표. XR은 확장현실로 AR, VR, MR을 혼합한 끊임 없는 통신 및 인간-컴퓨터 상호작용임. XR 콘텐츠 제작의 원칙(사용자 경험이 가장 중요), XR 콘텐츠를 위한 기술 등을 설명

발표자: 말레이시아 Astro Radio Sdn Bhd CTO(Bala Murali Subramaney)

주요 내용

- Astro의 콘텐츠 제작 사례(On-air 라디오 스튜디오의 멀티태스킹 가능한 자동화 시스템)를 소개하고, 결론적으로 설비/운영에 최적화(Best Fit for Operation/Facilities), 판매 후 지원, 제작 확대, 장비 공급자 과제 해결 등을 제안

발표자: 중국 ADINNO INC CEO(Gorden Gu)

주요 내용

- ADINNO 소개(OTT, IPTV 사업), 인코더 등 도입하여 사용중인 4K 프로덕션 장비와 이를 활용한 제작, 전송 및 이용자 이용을 위한 OTT 플랫폼 등을 소개, 4K 채널 제작 협력(파트너와 협력하여 제작), 4K/8K 쇼룸 솔루션, 4K 앱 등을 소개

발표자: 독일 Greater China 사장(Toni Fiedler)

주요 내용

- Fraunhofer IIS를 소개하고, 최근 표준화의 발전사향(HDTV에서 UHDTV로의 전환, 기술의 발전으로 통신사와 방송사 경쟁, TV 표준은 4K/8K 및 3D 오디오로 업그레이드, MPEG-H 3D 오디오 시스템) 설명, MPEC-H 시스템의 장점(사용자 상호성, 언어 스위칭, 사운드) 등을 설명

세션4: 허위정보와 뉴미디어

발표자: 홍콩대 조교수(Masato Kajimoto)

주요 내용

- 신뢰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시청자가 의존하지 않으므로 뉴스 독점이 종료되었다고 주장. 시청자는 정확성 식별을 위해 높은 수준의 뉴스 문해력이 필요함

발표자: 필리핀 Daily Inquirer 부편집장(John Nery)

주요 내용

- 식민화의 도구로서의 거짓 정보와 그 역사적 사례를 소개하고, 필리핀의 분할, 필리핀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제기. 거짓 정보의 대표적인 사례는 대통령에 대한 가짜뉴스임. 네트워크화된 거짓 정보의 무시가 필요하며, 인플루언서의 경고, 소셜미디어 신화에 대한 의문, 학계의 주목과 다분야 다차원적 협력이 필요

발표자: 캄보디아 정보부 사무관(Chhorn Navy)

주요 내용

- 캄보디아의 온라인 미디어, 소셜미디어(1위 페이스북) 현황을 소개. 가짜뉴스는 가짜 미디어 계정, 반대당 등이 존재. 가짜뉴스의 부정적 영향(잘못된 의사결정) 및 이에 대한 대응(부처간 공표, 언론보도에 대한 법, 피드백) 등을 소개

발표자: 말레이시아 주제 프랑스대사관 문화협력담당(Ronald Husson)

주요 내용

- '가짜 정보와 미디어 법: 유럽의 시각'을 주제로 발표. 1870년 프로이센과의 전쟁 시 가짜 정보 등 유럽에서는 새로운 것이 아님. 미디어 법규는 회원국의 관할 사항으로 가짜정보란 1881년 법 제27조에 규정됨. 가짜 정보 대응을 위한 새로운 방안 필요없이 기존 방안을 보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인식제고 필요. 인터넷 플랫폼 규제는 매우 논쟁적인 이슈. 결론은 유럽 미디어법 변경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민주적 규제 필요

발표자: 호주 First Draft 편집장(Anne kruger)

주요 내용

- '협력 창출- 호주와 뉴질랜드의 폭력 극단주의와 맞서 싸움'을 주제로 발표. 허위정보의 분류에 대해 저널리즘의 역할은 명확화하는 것. 7개 유형의 잘못/가짜 정보가 존재(Satire or Parody, Misleading Content, Imposter Content, False Connection, False Context, Manipulated Content 등). 문화, 사회경제적 차이로 인해 사회는 이전보다 더욱 분할되고 있음

세션5: 전통미디어와 뉴미디어의 상품화: 경쟁 또는 대체?

발표자: 캄보디아 ThmeyThmey.com CEO(Leang Delux)

주요 내용

- 2013년 설립하여 35명의 저널리스트를 보유한 자사를 소개. 추구하는 콘텐츠(영감, 교육, 혁신, Go Beyond 페이스북 콘텐츠), 상품화 방법(광고, 컨설팅, 프로젝트화, 브랜드를 위한 발간작업) 등을 소개

- 발표자: 싱가포르 구글 아태지역 판매팀장(Parvathi Menon)
- 주요 내용
 - 콘텐츠 제작자의 저작권 침해 문제로 콘텐츠 ID 시스템을 통해 해결하고 있음 강조. 조직 및 기관들도 협력하여 해결하고 있으나, 콘텐츠 소유자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설명
- 발표자: 말레이시아 RIPPLE CEO(Seelan Pau)
- 주요 내용
 - 하이브리드 콘텐츠(라디오 스튜디오의 전통에 유튜브 등을 결합하여 제공)를 통해 상품화, 마케팅 강화하여 보완하고 있음을 설명. 가장 큰 도전과제는 유통업자에 콘텐츠의 품질을 보장하는 것. 이용자는 콘텐츠가 좋으면 전통미디어라도 돌아옴
- 발표자: 중국 CCTV.com 부국장(Wei Xing)
- 주요 내용
 - 옴니미디어 시대에 3Cs 및 통합을 주제로 발표. 트래픽 급증 시대에 협력 및 통합을 통해서만 미디어가 지속가능한 확대가 가능함. 중국의 미디어그룹(CCTV, CNR, CRI, CGTN)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고 있음, 3Cs(Center, Comprehensive, Connectivity) 중 Center은 고품질의 콘텐츠가 중심에 있음을 의미, Comprehensive는 옴니채널 환경에서의 통합을 의미, Connectivity는 훌륭한 콘텐츠를 통해 제작자와 이용자간 연결에 있어 미디어 역량이 더욱 개선될 수 있음을 의미
- 발표자: 홍콩 OONA TV CEO(Christophe Horchart)
- 주요 내용
 - 전통 방송을 스마트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을 주제로 발표. 당사는 가상 멀티채널 비디오 플랫폼 유통(MVPD)을 통해 유료TV 사업자, 정부 및 OTT 등에 오픈 플랫폼 제공. 광고를 보는 시청자에 보상해줌으로써 상품화하고 있음(TCOINS), 솔루션 모델(Zero tech OOST)를 통해 추가적인 수입(4000% 광고 뷰 증가) 실현)도 소개

세션6: 미디어 콘텐츠 유통을 위한 기술

- 발표자: 뉴질랜드 ADP 컨설턴트(Amal Punchihewa)
- 주요 내용
 - '미디어 콘텐츠의 유통에 있어 기술, 변혁 및 현실'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기술적인 부분에 중점. 전송 vs 유통에 있어 과제로 유통을 위한 브로드밴드, 더 나은 유저인터페이스, 통찰력 등을 제시하고, 결론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콘텐츠에 접근, 하이브리드 전송을 통한 혁신 촉진 등 미래 방송은 점진적으로 진화할 것임을 강조
- 발표자: DRM 컨소시엄 미디어 전문가(Sharad Sadhu)
- 주요 내용
 - 'FM 주파수 디지털 라디오의 흥미'를 주제로 발표. DRM의 FM 디지털 라디오 방송의 장점(다수 채널, 고품질, 전송전력 소비 낮음), 전송시스템과 트랜스미터 등 인프라 및 비용, 긴급상황 경보기능, DRM 컨소시엄의 파일럿 사례 등을 소개

발표자: 한국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미디어정책과장(신승환)

주요 내용

- '콘텐츠 유통 기술의 발전에 적합한 미디어 정책'을 주제로 발표. 방송통신 융합 가속화, 비실시간 콘텐츠 확산 등 미디어 사용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미디어 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게 됨. 이에 한국은 2017년 5월 세계 최초 지상파 UHD방송, 2019년 4월 세계최초 5G 상용화를 통해 미디어 생태계와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개선 등으로 대응하고 있음. 향후 서비스 확대,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를 더욱 강화할 계획

발표자: ITU 남아시아 티모르 현지사무소 대표(Syed Lsmail Shah)

주요 내용

- '프로그램 제작 및 교환을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주제로 발표. ITU는 ICT에 특화된 전문기구임을 소개하고 특히 아태지역에 중점을 강화하고 있음

세션 7: CEO 라운드테이블- 디지털화 및 미디어 신뢰성

발표자: 중국 Star Times 사장(Gu Xin)

주요 내용

- '신기술 발전에 대한 새로운 미디어 산업의 구현'을 주제로 발표. 신기술로 인해 새로운 노동의 구분이 발생하는 등 기회와 과제가 공존함을 강조

발표자: 말레이시아 RTM 국장(Haji Abdul Muis bin Shefil)

주요 내용

- 말레이시아의 인터넷 이용현황(87.4% 인구, 88.6% 가구가 연결), 악성코드 등 인터넷 사기(1/4분기 기준 2,977건의 사이버범죄 발생), 정보의 확산에 대한 과제(SNS 사용자들이 가짜 계정을 통해 가짜 뉴스를 양산, 집행(인터넷 안전 캠페인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받은 모든 정보 체크할 수 있는 원스톱센터 구축), 미디어 신뢰성 조사결과(TV가 뉴스보다 높음, TV가 신문, 소셜미디어에 비해 젊은층에서도 가장 높은 신뢰성 보유/ 2016년 2481명 설문결과, 76.9%가 라디오 뉴스를 신뢰, 78%가 TV 뉴스의 정확성 및 신뢰성 인정, 투명성, 공정성을 갖춘 균형 있는 미디어를 원함) 등을 소개하고, 미디어 신뢰성의 결정요인은 콘텐츠임을 강조. 미디어위원회(MMC)가 산업내 신뢰 구축에 필요한 기준을 설정하고 규제함

발표자: 캄보디아 정보부 차관(In Chhay)

주요 내용

- 정보 채널이 다양화되어 이용자는 다양하게 선택 가능. 공급 측면에서 라디오 TV, 소셜미디어, 제작자, 네티즌 등 다양해지고, 수요 측면에서도 일반인, 정치인, 학생, 제작자 등 다양함. 신뢰성은 정보의 소스, 고객 등 개인적 이익에 기인함. 기술 및 편집 개선에 투자하여 장비와 프로그램 시스템 디지털화 및 훈련, 파트너십 강화 등 강력한 정체성 구축을 강조. 즉, 새로운 디지털 기술 투자, 이용자 이익에 부응, 강력한 정체성 구축을 결론으로 제시

발표자: 필리핀 PBS(Rizal Giovanni Aportadera)

주요 내용

-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방법은 적합한 정보를 갖는 것이며, 미디어 신뢰성에 대한 필리핀의 관점을 소개

발표자: 이란 IRIB 국장(Abbas Naseri Taheri)

주요 내용

- 전통미디어가 권한을 계속 유지해야 신뢰성도 제고된다고 주장. 디지털화로 인해 정보의 확산 비용 감소 및 접근성이 확대됐지만, 신뢰성은 여전히 우려가 존재함(신뢰성은 정확성, 객관성, 권한 및 맥락상 확증적 사실 등을 통해 결정됨). 신뢰성 문제를 극복할 전략으로 새로운 플랫폼에 효과적으로 참여, 미디어 브랜드 이미지 보존, 이용자의 디지털 문해력 개선 등을 제기함. IRIB의 사례에 의하면 로컬 인터넷 TV채널, 시청각 규제기관, 디지털 문해력 센터 등이 이러한 전략을 수행함

발표자: 피지 FBC CEO(Riyaz Sayed-Khalyum)

주요 내용

- 전통적으로 뉴스 이용자는 라디오, 신문, TV 등 뉴스와 정보를 얻는 매체를 신뢰하였으나, 오늘날의 미디어는 소셜미디어가 뉴스와 정보의 소스로(64%가 뉴스를 온라인으로 접근), 온라인 뉴스 소스는 페이스북 43%, 유튜브 21%, 트위터 12% 등을 기록하는 등 변화. 신뢰성 보장 방안으로 저널리스트 윤리 수립, 진술 증명, 소스의 신뢰성 확보, 증거자료 확보 등을 제안

발표자: 스리랑카 SLRC 국장(Saranga Wijeyarathne)

주요 내용

- 디지털 미디어는 콘텐츠의 신뢰성이 핵심. 갤럽조사에 의하면 69%가 미디어 신뢰의 하락에 동의하고, 16%가 어떤 미디어도 신뢰하지 않으며, 1%만이 모든 미디어를 신뢰한다고 답변. 전통미디어에서 뉴미디어로 중심이 이동하면서 편집자 Mediated에서 Non-Meditated로 변화하고 신뢰성이 추락함. 영국 연구에 의하면 18.7%가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공유했다고 답변. 이는 흥미로운 주제로 열람, 공유, 의견제시의 동기가 큼을 의미.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뉴스의 신뢰성에 덜 민감함.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증거 수집, 정확한 정보 전달 등으로 신뢰성 제고

마. 국내 대응체계

AIBD는 아태지역의 미디어 환경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력 개발 및 정책 협력을 도모하는 방송분야의 유일한 정부간 국제기구이다. 1999년 설립협정 개정을 통해 주요 임무도 아태지역의 미디어 정책의 논의 및 협력을 도모하고, 미디어 발전의 국제협력을 위한 아태 지역 플랫폼을 제공하며, 회원국들의 발전 수요에 부합하는 미디어 분야의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¹⁹⁾ 그러나, 사무국의 조직적 한계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수혜를 원하는 회원국들의 수요에 충분한 훈련활동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디지털화 진전으로 인해 AIBD의 역내 미

19) AIBD 홈페이지

디어 대응에 있어 역할의 변화도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1977년 AIBD 설립 당시부터 한국방송협회와 KBS가 참여하였고, 2006년부터는 구 방송위원회가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및 구 미래창조과학부 그리고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BD의 공식 회원국 정부로서 다양한 협력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²⁰⁾ AIBD에 대한 국내 대응은 정회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도하에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AMS의 이슈 대응, 연차총회 의제 분석, 전략계획 로드맵 작성 참여 등이 이뤄지고, 한국의 집행이사국 진출, 전략기획위원회 위원단 진출 등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다른 정회원사인 KBS는 AIBD를 통해 다른 회원 방송사와의 협력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즉, 교육 등 콘텐츠 제공 및 교류, 방송전문 인력의 교류, 협력 MOU 체결 등 민간 영역에서 가능한 협력 이슈들을 대응하고 있다. 최근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위급 인사의 AMS 참여 및 AIBD 사무국 파견 등으로 협력의 통로를 다양화하고 있다.

AIBD는 전통적으로 중국이 연수 프로그램 제공, 재정 지원, 사무국내 활동 등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왔으며, 한국은 AIBD 사무국의 적극적인 협력 요청에 사안마다 부응하여 대응해왔다. 2010년대 이전에는 주로 구 방송위원회 및 정회원 방송사인 KBS와 EBS와의 협력이 주가 되었다. 이들 방송사의 기술전문가, PD 등의 AIBD 파견 및 AIBD 주관 워크숍에서의 지도활동 등을 통해 우리측의 기여가 이뤄졌다. 2010년대 들어 한-AIBD간 협력이 강화되어 AIBD 주요행사의 한국 개최, 전문인력 파견, 국내 워크숍 연수활동 제공 등에 대한 사무국 측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 왔으며, 이에 대한 부응으로 2016년 처음으로 한국에서 AMS를 개최하였고, 그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장급 인사를 AIBD 특별고문으로 파견하였으며, 국내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등 기관을 통해 연수 프로그램 제공 및 방송장비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미디어 부문의 규제기구인 중국신문출판광전총국의 지도하에 CCTV 등 다양한 방송 실무기관의 광폭적인 지원과 참여로 AIBD와의 협력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는 중국의 움직임과 비교할 때 우리측의 대응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AIBD의 가장 중요한 어젠다인 전략계획 로드맵 수립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방송 관심분야 및 정부간 이슈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능동적인 참

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회원국, KBS는 정회원(사) 임

여도를 높이고, KBS 등 정회원 방송사 이외의 콘텐츠, 방송제작과 관련된 방송 조직의 준 회원 참여를 유도하여 AIBD 내 한국의 입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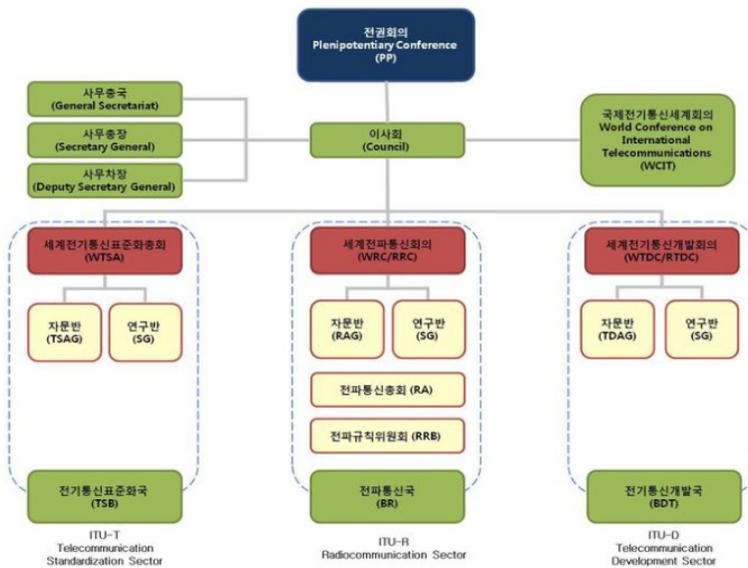
2. ITU(국제전기통신연합)

가. 개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은 1865년 설립된 정보통신 부문 최대 및 최고 국제기구이며,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의 정보통신기술 부문 전문기구로 전세계 정보통신 분야 전반 즉, 국제 및 국가별 정보통신 정책(국제협력 및 규제)의 조화와 표준화,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ITU는 최고의결기관인 전권회의(PP, Plenipotentiary Conference), 집행기구인 이사회(Council),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 World Conferences o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와, 사무총국(General Secretariat) 및 3개 부문(전파통신, 전기통신표준화, 전기통신개발)으로 구성된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193개국이 가입 중에 있다.

[그림 2-1] ITU 조직도



자료: ITU 웹사이트

ITU활동 중, 방송통신기술 관련활동은 ITU-T(전기통신표준화) 및 ITU-R(전파통신)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방송통신 규제에 대한 논의는 ITU-D(전기통신개발)의 관련 논의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나. ITU에서의 방송통신기술 관련 활동

1) ITU-T(전기통신표준화)

ITU-T부문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술·운용·요금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고 이에 세계 표준화를 위한 권고를 채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ITU-T 연구반16(SG16, Study Group16)에서 멀티미디어 분야를 연구하며, 미디어 코딩과 신호처리, 멀티미디어 서비스 및 응용, IPTV 종단시스템 및 응용 플랫폼, 차량 게이트웨이 플랫폼, 멀티미디어 서비스품질 및 이동성 기술 등의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또한, ITU-T SG16 산하작업반(WP, Working Party)을 통해 분과별 주제를 더욱 세부적으로 연구 중에 있으며, WP1은 멀티미디어 시스템, WP2는 멀티미디어 서비스 및 접근성, WP3은 미디어 코딩 및 신호 처리를 다루고 있다.²¹⁾

〈표 2-2〉 ITU-T SG16 산하작업반(WP) 현황

작업반	작업범위
WP1	멀티미디어 시스템
WP2	멀티미디어 서비스 및 접근성
WP3	미디어 코딩 및 신호 처리

자료: ITU 한국연구위원회 홈페이지

2) ITU-R(전파통신)

ITU-R부문은, 전파를 이용하는 모든 무선통신 업무에서 ITU의 목적을 실현하고 인류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무선주파수 스펙트럼의 합리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 중 ITU-R 연구반6(SG6, Study Group6)에서 방송업무를 다루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신호 전송, 방송신호 포맷,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품질평가 등 전파 방송 관련 연구를

21) ITU 한국연구위원회 홈페이지

수행 중에 있다. 또한, ITU-R SG6 산하작업반(WP)을 통해 분과별 주제를 더욱 세부적으로 연구 중에 있으며, WP6A는 지상파 방송전송을, WP 6B는 방송신호 구성 및 인터페이스를, 그리고 WP6C는 프로그램 제작 및 품질평가 이슈를 각각 다루고 있다.²²⁾

〈표 2-3〉 ITU-R SG6 산하작업반(WP) 현황

작업반	작업범위
WP 6A	지상파 방송전송
WP 6B	방송신호 구성 및 인터페이스
WP 6C	프로그램 제작 및 품질평가

자료: ITU 한국연구위원회 홈페이지

다. ITU에서의 방송통신규제 논의체

ITU-D(전기통신개발)부문은 정보통신서비스 및 기반구조 등의 확산을 통해 세계 인류에게 통신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ICT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인적, 재정적 필요에 대한 지원 및 ICT 보급 확장,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여러 활동의 촉진과 참여, 개발도상국에 맞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 중에 있다. ITU 내 방송통신 규제만을 주제로 한 논의체는 없으나, ITU-D 부문에서의 전반적인 ICT부문 규제논의장에서 함께 다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회의로는 ‘글로벌 규제자 심포지움(GSR)’과, 지역 차원의 회의로는 ‘ITU 아태지역 규제자라운드 테이블(ITU ASP-RR)’이 있다.

1) 글로벌 규제자 심포지움(GSR, Global Symposium for Regulators)

ITU-D부문이 규제기관 및 규제 설립과 관련 있는 정책결정자를 대상으로 주관하는 행사로, 2000년 ‘규제자를 위한 개발심포지움(Development Symposium for Regulators)’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시작되었으며, 2001년부터 GSR로 명칭을 바꾸고 2019년까지 총 19회 개최되었다. GSR은 개도국 및 선진국 규제기관의 기관장급들이 모여 경험과 입장을 공유하는 장으로서 규제기관과 주요 ICT 이해당사자들(민간부문, 투자가 및 이용자)간의 열린 대화의 장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심포지움은 보통 6개-8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각 세

22) ITU 한국연구위원회 홈페이지

선별 주제를 기반으로 패널 토론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규제기관 고위급만 참석하는 라운드테이블 세션이 별도 존재하며, GSR과 연계하여 민간부문 최고규제자(CRO, Private Sector Chief Regulatory Officers) 회의 및 지역규제기구(RA, Regulatory Associations)회의도 함께 개최된다. 매년 주제별 모범사례지침(Best Practice Guideline)이 마련되며, 당해 GSR 결과물은 익년 《Trends in Telecommunication》이라는 ITU보고서로 발행되어오다, 2017년부터 《Global ICT Regulatory Outlook》으로 대체되었다.

〈표 2-4〉 ITU GSR 개최 현황

회차	개최일자	장소	주제
19차	2019. 7. 9.~12	바누아투, 빌라	포용적인 연결성: 규제의 미래
18차	2018. 7. 9.~12.	스위스, 제네바	새로운 규제 프론티어: 모두를 위한 e트레이드
17차	2017. 7. 11.~14	바하마, 나소	디지털기회 세계에서의 생활
16차	2016. 5. 11.~14	이집트, 샴 엘 셰이크	권한을 부여하고, 포함하라: 연결된 세계에서 의 스마트사회를 위한 구성요소
15차	2015. 6. 9.~11	가봉, 리브르빌	디지털격차 인지: 디지털 기회 성취를 위한 규 제 인센티브
14차	2014. 6. 3.~5	바레인, 마나마	디지털세계 잠재력의 자본화
13차	2013. 7. 3.~5	폴란드, 바르샤바	제 4세대 규제: 디지털통신의 진전촉진
12차	2012. 10. 2.~4	스리랑카, 콜롬보	네트워크화된 사회에서 왜 규제를 하는가?
11차	2011. 9. 21.~23	콜롬비아, 아르메니아 시티	브로드밴드 세계를 위한 스마트 규제
10차	2010. 11. 10.~12	세네갈, 다카르	내일의 디지털 세상 구축: 브로드밴드가 경제 에 미치는 영향
9차	2009. 9. 10.~12	레바논, 베이루트	간섭 또는 불간섭?: 효과적 ICT 규제를 통한 성장 촉진
8차	2008. 8. 11.~13	태국, 파타야	공유 6단계: 혁신적인 인프라공유 및 공개접근 전략
7차	2007. 2. 5.~7	UAE, 두바이	차세대네트워크의 방향
6차	2005. 11. 14.~15	튀니지, 하마메트	개도국의 브로드밴드구축과 접근증진을 위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의 개발
5차	2004. 12. 9.~10	스위스, 제네바	융합시대의 라이선스
4차	2003. 12. 8.~9	스위스, 제네바	ICT로의 보편적 접근 증진
3차	2002. 12. 7.~8	홍콩, 중국	최종사용자 규제

회차	개최일자	장소	주제
2차	2001. 12. 3~5	스위스, 제네바	효과적인 규제
1차	2000. 11. 20~22	스위스, 제네바	규제자간의 대화의 장 설립

자료: ITU 홈페이지(저자 재정리)

2019년 7월 개최된 제19차 GSR(GSR-19)은 ‘포용적인 연결성: 규제의 미래’ 라는 대주제 아래 △디지털 인프라 정책과 규제: 다중차원의 협력 접근안, △디지털 세계에서 연결성을 위한 투자 및 자금조달과 신규 비즈니스 모델, △모든 이를 위한 연결성, △응급상황에서의 포용적인 재난 위험 경감 시뮬레이션, △데이터 주도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 구축, △주파수의 필요성, △변화하는 이용자의 역할과 이용자 보호, △5G를 위한 준비 등이 세부 주제로 논의 되었으며 총 64 개국에서 정부부처 장관, 규제기관장, 산업계 고위경영진 등 325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규제기관 고위급만 참석하는 라운드 테이블이 별도 개최되었다. 2019년 GSR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보다 실행가능하고 협력적이며 혁신적인 결과기반의 규제 접근법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세계의 모든 규제기관들이 모든 이들을 위한 디지털 연결을 가속화하고, 모두가 디지털 경제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범사례지침(Best Practice Guideline)을 채택하였다. 동 지침은 규제기관 및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더 이상의 지체 없이 새로운 규제 틀과 솔루션에 다가가고 행동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GSR-19의 세션별 주요 논의 사항은 아래와 같다.²³⁾

개회식

□ 주요 내용

- 바누아투 총리(Charlot Salwai Tabimasmass)
 - 바누아투가 GSR을 개최하는 첫 태평양 국가임을 기쁘게 생각하며, 동 회의가 미래 ICT 정책 및 규제 환경에 대한 논의 제공하는 장이 되길 희망
- 바누아투 통신방송규제청(TRBR) 위원장 & GSR-19 의장(Brian Winji)
 - 모든 시민들의 포용적 연결을 위한 규제접근방식 채택 필요성이 강조되며, 이는 투명하고 협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이러한 규제환경 조성으로 아직 온라인에 연결되지 못한 37억 명에 대한 연결과 시간환경의 공정성 및 혁신이 보장될 수 있음

23) ITU(2019)

- ITU 사무총장(Houlin Zhao)
 - ICT 분야와 다른 산업 간의 경계선이 모호해져가는 오늘날의 디지털 경제에서 협력 규제는 매우 중요하며, 규제기관들이 각종 분야와 여러 지역에 걸친 성장, 일자리, 혁신 및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UN 지속가능개발목표를 달성하며, 디지털 경제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ITU BDT 국장(Doreen Bogdan-Martin)
 - 규제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면서, 정책과 규제에 대한 혁신적이고 협력적인 접근방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촉구되고 있음. 더 이상 ICT가 통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오늘날의 규제기관들이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중에 있음

세션1: 디지털 인프라 정책과 규제: 다중차원의 협력 접근안

좌장 및 패널

- 좌장: ITU 인프라·가능환경·e애플리케이션 부서장(Kemal Huseinovic)
- 패널: 스웨덴 우정통신국(PTS) 국장(Dan Sjöblom), 아프리카 전기통신 연합(ATU) 사무총장(John Omo), 미국 인터넷번호등록협회(ARIN) 국장(Anne-Rachel Inne), AT&T 글로벌 공공정책 부회장(Len Cali)

주요 내용

- 패널들은 서로 다른 지역의 규제기관과 기술기관들이 활용하고 있는 협력 메커니즘의 사례를 공유
 - EU의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은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내부 시장의 발전과 기능 개선에 기여하고 있음
 - ARIN은 북미지역과 26개의 카리브해 및 북대서양 제도에서 인터넷 운영과 발전을 지원
 - ATU는 아프리카 지역 차원의 국제 포럼에서 정책 및 규제 발전, 기술 개발, 조정에 관하여 협력을 통해 ICT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임무를 가짐
- 주파수 정책, 세금 정책, 규제 정책, 그리고 경쟁 정책은 디지털 시장 투자의 네 가지 주요 원동력임
- 주파수 라이선스는 투자 장려를 위해 기술 중립적이고 장기적이어야 함. 5G는 초저지연, 고속, 대용량 기기 상호작용 기능(IoT, 각종 센서)의 혁신 기술임. 따라서 다양한 이용 사례에 중요한 각 특성들로 인해 고대역, 중대역, 저대역 주파수의 가용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 규제적 접근방식의 측면에서는 규제 부담 완화, 경쟁 장려 그리고 인프라 배치 촉진 등이 제안됨. 또한 규제기관들은 경쟁 속에서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가능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운영자와 소비자 모두에 대한 과세 문제(예. 기기에 대한 세금, 서비스에 대한 세금)를 해결하는 것 또한 필요함

세션2: 디지털 세계에서의 연결성을 위한 투자 및 자금조달과 신규 비즈니스 모델

좌장 및 패널

- 좌장: 베냉 전기통신우정규제위원회(ARCEP) 위원장(Flavien Bachabi)
- 패널: 부르키나파소 전기통신우정규제위원회(ARCEP) 회장(Charles Millogo), 화웨이 글로벌공공부 부회장(Edward Zhou), 인터넷 소사이어티 아시아지역부 국장(Rajnesh Singh),

Digicel 태평양지역 고문(Peter Stiffe)

□ 주요 내용

-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우호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투자자들은 효율성뿐 아니라 안정성과 확실성을 추구하므로, 규제 및 의사결정 과정은 투자자들에 신뢰를 주기 위하여 명백하게 규정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함
- ITU BDT 국장은 2018년 전권회의에서 OTT에 대한 새로운 결의가 채택되었음을 언급하며, 참석자들이 해당 결의 및, 관련 이슈에 관한 ITU의 업무를 고려할 것을 요청함. 브로드밴드위원회 역시 해당 이슈를 다루며 관련 정책을 권고하고 있음
- 규제기관들은 인프라 구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비전통적인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할 필요가 있음. 비전통적인 이해관계자들로는 토지 및 도시 개발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부처, 커뮤니티 네트워크 등이 제시됨
- 결론적으로, 투자를 위한 올바른 규제 환경 조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 촉진, 포괄적인 연결성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요소들의 결합에 대한 규제기관들의 중요한 역할 강조

세션3: 모든 이를 위한 연결성

□ 좌장 및 패널

- 좌장: 보츠와나 통신규제청(BOCRA) 최고위원장(Martin Mokgware)
- 패널: 남아프리카공화국 통신규제청(Dimakatso Qocha), 페루 전기통신 민간투자 감독청(OSIPTEL) 위원장(Rafael Muentel), Viasat Inc 아태지역 본부 부회장(Peter Girvan), Rhizomatica Communications 위원(Erick Huerta)

□ 주요 내용

- 모든 이를 위한 연결성을 이뤄내는 데 인센티브 기반의 규제 조치는 중요. 규제기관들이 변화에 적응해야 하며, 새로운 과제 해결에 낯은 접근방식을 활용하는 데만 국한되어서는 안 됨
- 남아프리카공화국 통신규제청의 전략적 목표는, 광대역 인프라에 대한 투자 촉진,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광대역 주파수 면허,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의 통신 서비스를 위한 경쟁 및 보편적 접근의 장려임. 최근 국가 5G 포럼 설립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들이 시작되고 있음
- 규제기관들은 주파수 및 5G 문제, 네트워크 배치, 그리고 페루와 같은 국가에서는 건강상의 우려에 의해 안테나 주위의 전자파에 대한 공포 등과 관련한 과제에 직면해 있음. 해당 이슈들에 관해 규제기관들은 시민들을 교육하고 동시에 소통해야 함

세션4: 응급상황에서의 포용적인 재난 위험 경감 시뮬레이션

□ 패널(촉진자)

- UN 세계식량계획(WFP) 태평양사무소 응급상황 전기통신 클러스터(ETC) 코디네이터(Hlekiwe Kachali), WFP ETC 기술부 대응담당관(Ria Sen)

□ 주요 내용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하고, 예측가능하며, 효과적인 ICT 서비스는 응급상황 및 복구 작업에서 필수적임. 이는 향상된 의사

결정 뿐만 아니라 대응 조직 간의 더 나은 대응과 조정을 가능하게 함

- 재난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예로 사이클론이 발생한 경우, 장비 및 무선 주파수에 관한 규제 조항과 지침은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가능하게 함

세션5: 데이터 주도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 구축

좌장 및 패널

- 좌장: 수리남 전기통신청(TAS) 국장(Wendy Klass-Jap-A-Joe)
- 패널: 우간다 통신위원회 인프라부 국장(Irene Kaggwa Sewankambo), 국제 이동위성기구 사무총장(Moin Ahmed), 남아프리카 통신규제자 연합(CRASA) 사무총장(Antony Chigazira), 자메이카 공익규제청 사무총장(Ansord Hewitt), 바누아투 외교부 대외무역부 국장(Joe Pakoa Lui)

주요 내용

- 디지털 경제가 대량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용자 보호 이슈에 있어 ICT 규제 기관의 역할이 중요함
-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간, 민간 부문과 정부 간의 협력이 중요하며, 운영자, 단일 부문 및 다중 부문 규제 기관, 지역 및 국제 규제 연합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여가 필요함. 또한 이용자와의 협업을 위한 효과적인 채널을 구축이 중요함
- 정책 입안자와 규제 당국은 윤리 표준을 정의하고, 이를 네트워크 보안 및 데이터 보호 영역에 포함하는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함
- 데이터 거버넌스는 협업 및 다자 이해 관계자 접근 방식에 기반해야 하며, 이해관계자 간 경험 교환 및 공동의 솔루션 설계는 데이터 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임
- 국가 간 데이터 흐름에 대한 규정이 서로 다르며,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제 표준을 마련해야 함. 또한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접근에 있어, 일관성 있는 공통의 지역차원의 접근 방식이 바람직하며, 양국 간 및 국제 협력이 관할권 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세션6: 주파수의 필요성

좌장 및 패널

- 좌장: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국제부 국장(Thomas Sullivan)
- 패널: 인텔 선임 국장(Jonathan Weeks), GSMA 아태지역 주파수 정책 & 규제부 국장(Cristian Gomez), Inmarsat 글로벌규제 선임 부국장(Donna Bethea-Murphy), 호주 통신에 솔부 주파수 보안부 부국장(Cathy Rainsford)

주요 내용

- FCC는 포괄적인 연결성 달성을 위한 주파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5G 주파수에 초점을 둔 FCC의 디지털 격차 해소 이니셔티브를 소개
- 주파수 조화는 전 세계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에 도움이 되며, 글로벌 차원의 조화가 불가능한 경우 지역차원의 조화가 비간섭 및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됨
- 많은 신기술 및 서비스에 필요한 주파수 활용 환경 조성에 대한 규제기관 역할이 중요하며, 기술 중립성과 인센티브를 고려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의 주파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함
- 기술의 다양성과 발전에 따라, 정책입안자와 규제기관은 WRC-19(세계전파통신회의)에

대한 유연성 있는 접근방식을 유지해야하며, 이러한 접근법은 기존 중요한 서비스를 보호하는 동시에 향후 가능한 많은 서비스를 배치하게 하는 기술 및 규제 솔루션을 가능하게 할 것임

세션7: 변화하는 이용자의 역할과 이용자 보호

좌장 및 패널

- 좌장: 폴란드 전자통신국(UKE) 위원장(Marcin Cichy)
- 패널: 사모아 규제청장(Unutoa Fonoti), 페이스북 공공정책국장(Monica Desai), Intelsat 오세아니아 영업부 국장(Robert Suber), APNIC 전략 및 역량구축부 선임고문(Klée Aiken)

주요 내용

- 국내 및 국제 시장이 변화하고 있으며 디지털 서비스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변화하는 생태계에서 소비자들은 데이터 사용자이자 생산자로서 주요 역할을 수행하며, 스마트 시티 발전에 기여 중에 있음
- 디지털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는 소비자이며, 스마트 데이터 기반 경제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사용자 보안과 신뢰 구축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핵심 임무가 되었음
- 규제기관들은 디지털 서비스 및 제품의 소비자가 디지털 혁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를 보장해야 함. 또한,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에 따른 서비스 선택을 합리적 가격, 접근성, 품질 그리고 선호도에 기반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해야 함
- 규제는 시장과 소비자의 요구를 이해하는 것이며, 소비자의 교육과 참여도 중요. 모든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와 플랫폼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를 만들어야 함

규제기관 고위급 라운드 테이블

주요 내용

- ITU 사무국은 각 국의 규제 세대 현황을 알려주는 ITU의 '2018 ICT Regulatory Tracker' 주요 내용 공유. 또한, 2016년 ITU에서 처음 시작한 5세대 협력 규제를 소개하고, 새로운 G5 벤치마크를 발표함
- 동 규제기관 라운드 고위급 라운드 테이블은 하기 이슈들을 중점으로 논의가 이루어짐
 - 4세대와 5세대 규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 간의 신뢰 구축은 지속적인 과제로 남아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요소는 투명성임
 - 보다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규제로 나아가고자 하는 주요 관계자들은 ICT의 영향을 받는 분야들의 규제기관뿐 아니라 정책입안자들도 포함됨. 에너지, 교통, 금융 서비스가 협업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 부각되며, 경쟁, 데이터 보호, 주파수 담당기관들도 지속적인 협업이 요구되는 것으로 강조됨
 - 규제기관이 보다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규제로 나아가려 할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조치는 △이해관계자 인식 증진, △규제적인 접근방식들의 조화, △투명한 협의 메커니즘임
 - 완전한 국가 연결성 달성의 과제에 대해서는, 예측가능성이 지속적인 투자 유치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면서 과세와 OTT 규제 처리에 관한 문제가 다루어짐

2) ITU 아태지역 규제자 라운드테이블(ITU ASP-RR, ITU Asia-Pacific Regulators' Roundtable)²⁴⁾

ITU는 아태지역, 미주,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총 5개의 지역 사무소(Regional Office)와 CIS지역을 포함한 8개의 현지사무소(Area Office)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이러한 지역/현지 사무소는 각 지역 내 회원국 정부부처 및 지역통신기구, 기타 이해관계자간 직접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계 구축을 지원 중에 있다. 그 중 아태지역 38개 국가가²⁵⁾ 포함되는 ITU 아태지역사무소(ITU Asia-Pacific Regional Office)에서는, 호주의 제안으로 2011년부터 매년 ITU 아태지역 규제자 라운드테이블(ITU ASP-RR, ITU Asia-Pacific Regulators' Roundtable)을 개최 중에 있다. ITU ASP-RR은, ITU ICT부문이 직면한 규제 이슈에 대해 아태지역 규제기관의 대표 등 고위급 인사들이 의견을 공유하며, 아태지역 규제기관의 역량강화 및 지역적 협력을 촉구하는 논의의 장으로서, 2011부터 2019년까지 총 9회 매년 개최되었다. 제 1차 회의에서는 아태지역 9개국 15명만이 참석하였으나 2018년 21개국에서 32명이 참석하는 등 점차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 방송통신위원회와 ITU아태지역사무소 공동 개최로 2013년 제 3차 회의를 '디지털 시대의 이용자 보호'라는 주제 아래 한국 서울에서 개최했으며, 동 회의에는 ITU 아태지역 회원국 총 25개국의 53명이 참석한 바 있다.²⁶⁾

24) ITU ASP RR 연계행사로, 아태지역 규제환경 현황과 국별 사례를 공유하고 개최국 및 해외 초청 전문가 강연 제공 및 토론을 진행하는 'ITU 국제연수프로그램(ITP, International Training Program)'가 함께 개최되고 있음

25) ITU 지역구분에 따라 아태지역 포함 국가 38개국은 아래와 같음

－ 아프가니스탄, 호주, 방글라데시, 부탄,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북한, 피지,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일본, 키리바시, 라오스, 몰디브, 말레이시아,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나우루, 네팔, 뉴질랜드, 파키스탄, 파푸아 뉴기니, 필리핀, 한국, 사모아, 싱가포르, 솔로몬 제도, 스리랑카, 태국, 동티모르,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베트남

26) 고상원 외(2013)

〈표 2-5〉 ITU ASP-RR 개최현황

회차	개최일자	장소	주제
9차	2019. 9. 2.~3	태국, 방콕	- 디지털 전환, 5G, 5세대 규제, 이용자 보호 등
8차	2018. 8. 6.~7	방글라데시, 다카	- 디지털 경제를 위한 새로운 규제 프론티어
7차	2017. 9. 21.~22	인도, 뉴델리	- 디지털 사회에서의 규제 도전과제 해결
6차	2016. 7. 18.~19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 스마트 디지털 사회를 위한 규제 접근방안
5차	2015. 8. 24.~25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디지털 경제에서의 전기통신/ICT 규제 도전과제 대응
4차	2014. 7. 21.~22	호주, 시드니	- 융합을 넘어-네트워크 사회 규제기관의 진화
3차	2013. 10. 14.~15	대한민국, 서울	- 디지털 시대의 이용자 보호
2차	2012. 3. 30.~31	인도, 하이데라바드	- 디지털 경제에 대한 브로드밴드의 영향, 융합·NGN·IP 네트워크 등
1차	2011. 11. 7	호주 멜버른	- 디지털 시대의 융합과 브로드밴드, 효과적인 규제, 규제의 당면과제와 미래 등

자료: ITU 홈페이지(저자 재정리)

ITU ASP-RR의 경우, ITU의 타 지역에서는 개최되고 있지 않은 아태 지역만의 규제기관 간 논의 장으로서의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2019년 9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 9차 ITU ASP-RR에서는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경제에서의 규제기관의 역할, 아태지역에서의 디지털 인프라 정책과 규제 현황, 5세대 규제, 디지털 시대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이 논의되었으며, 중국 산업정보통신부(MIIT), 태국 방송통신위원회(NBTC), 인도 통신규제위원회(TRAI),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 몽골 방송통신규제위원회(CRC) 등에서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여 아태지역 내 주요 규제 이슈 및 도전과제에 대한 의견 공유, 공동 협력방안 모색 등이 이루어졌다.

〈표 2-6〉 아시아 주요국 정보통신 주무부처 및 규제기관

국가	주무부처	규제기관
브루나이	Ministry of Transport and Infocommunications	Authority of Info-Communications Technology Industry of Brunei Darussalam(AITI)
인도네시아	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cs	Indonesian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Body(BRTI)
일본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Telecommunications Bureau)
라오스	Ministry of Post and Telecommunications	N/A
말레이시아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Malaysia	Malaysia Communication and Multimedia Commission(MCMC)
미얀마	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Department(PTD)
중국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필리핀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DICT)	National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NTC)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	방송통신위원회(KCC)
싱가포르	Ministry of Communications & Information	Info-communications Media Development Authority(IMDA)
태국	Ministry of Digital Economy and Society	National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NBTC)
베트남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MIC)	VietNam Telecommunication Authority(VNTA)

자료: ITU 홈페이지(저자 재정리)

라. 국내 대응체계

한국은 193개 ITU회원국 중 11위의 분담금 공여 국가이자, 1989년 니스 전권회의에서 처음 ITU이사국에 선출된 이후 연속 8회 선출되어 ITU의 운영 및 전략계획 수립, 주요 결정 정책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해오고 있으며, 2014년에는 ITU 4년 주기 총회인 전권회의(PP)를 부산에서 개최한 바 있다. 현재 ITU 대응 주무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다. 국내 ITU 대응의 경우, 2004년 출범된 한국ITU연구위원회(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이 운영 중)이 ITU-R(전파통신)분야, ITU-T(전기통신표준화)분야 및 ITU-D(전기통신개발)분야 등 각 분야 표준화 활동에 총체적으로 대응 중에 있다. 한국ITU연구위원회의 경우, 특히 표준화 활동(ITU-T/R/D 자문반 및 연구반(SG)/작업반(WP)으로의 기고문 심의, 참가단 구성 승인)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ITU의 4년 주기 최고회의인 전권회의(PP)와 집행기구 역할을 수행하는 이사회(Council), 개발협력을 논의하는 ITU-D부문의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WTDC) 및 기타 일반 논의의 장(GSR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자협력관 소관에 있다.

최근 5년 동안 GSR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이기주 전 상임위원이 2016년 이집트에서 개최된 제16차 GSR의 ‘기조자 토론’ 및 ‘스마트 사회에서의 신뢰확보’ 세션에 토론자로 참여하였으며,²⁷⁾ ITU ASP-RR의 경우 2013년 제 3차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한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전 위원장이 2014년 호주에서 개최된 제 4차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나라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관련 정책 사례를 공유한 바 있다. ITU GSR과 ITU ASP-RR의 경우 ITU-D부문 영역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TU의 한국 대표 정회원이자 주관청으로 활동 중에 있으나, 회의체 참석 대상자가 각 회원국별 규제기관인 만큼, 부처 간 조정을 통해 규제기관 활동에 대해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적절한 공조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 UNESCO(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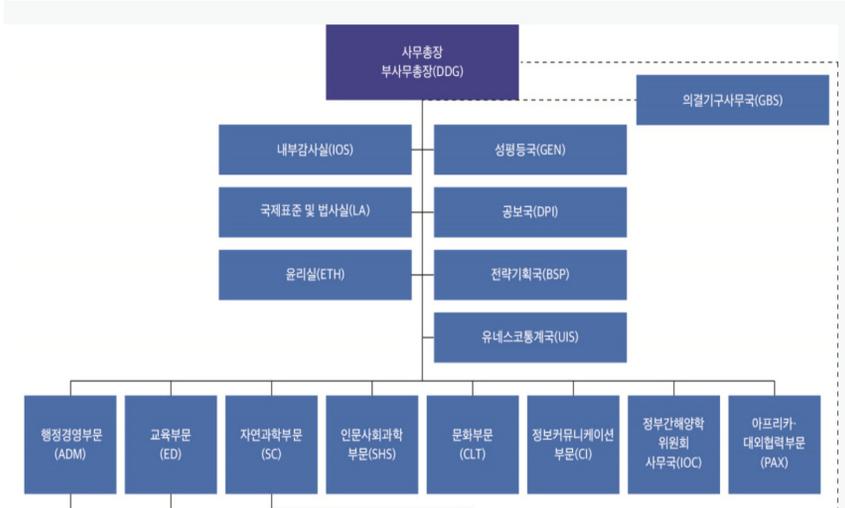
가. 개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는 1945년 설립된 UN전문기구로서 교육, 과학, 문화를 통한 국제사회 협력을 촉진하고, 정의, 법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을 제고하며, 평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부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하며, 195개 회원국과 11개 준회원이 있다. UNESCO의 주요 활동은 크게 1) 교육, 2) 자연과학,

27)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16. 5. 13.), “방통위 이기주 상임위원, ITU 세계 규제자 심포지엄 2016 참석”

3) 인문사회과학, 4)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등으로 나뉜다.²⁸⁾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분야가 다루어지고 있는 정보커뮤니케이션국(CI,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을 중심으로 주요 현안과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2-2] 유네스코 조직도



자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나. UNESCO 정보커뮤니케이션국(CI) 개요²⁹⁾

UNESCO CI국은 저개발국의 커뮤니케이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접근성의 확보와 자생적인 콘텐츠 개발을 통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 및 포괄적인 지식사회 축진에 초점을 두고 있다. CI국은 ‘단어나 이미지에 의한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의 촉진’이라는 UNESCO의 임무(Mandate)에 기반하여, ‘표현의 자유, 미디어 발전,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 증진’을 전략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의 방향은 온/오프라인 표현의 자유 증진, 언론인의 안전 증진, 미디어 다양성 및 참여 증진, 독립 미디어 지원, 정보와 지식의 보존 및 보편적 접근 가능화를 통한 ICT 기반 지식사회 건설 등 이다. CI국 프로그램은 디지털 시대의 사회적

28) 외교부(2017)

29) UNESCO 웹사이트 및 UNESCO(2019) 재정리

· 정치적·경제적 변동에 특히 주목하면서, UN 지속가능개발목표 SDG 4(양질의 포괄적인 교육 및 평생학습기회 제공), SDG 5(양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 SDG 8(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와 고용보장), SDG 9(사회기반시설 구축 및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SDG 10(국가내, 국가간 불평등 해소), SDG 11(안전하고 복원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 및 생활환경 조성), SDG 13(기후변화에 대한 영향방지와 긴급조치), SDG 16(평화적·포괄적 사회증진, 누구나 접근가능한 사법제도 및 포괄적 행정제도 확립), SDG 17(목표이행수단 강화 및 기업·의회·국가간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를 달성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CI국의 주요 사업은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국제 커뮤니케이션 개발사업(IPDC), △모든 이를 위한 정보사업(IFAP), △기록유산(MoW)이 있으며 각 사업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유엔 언론인 안전 행동계획(United Nations Plan of Action on the Safety of Journalists)의 프레임워크 안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표현의 자유와 저널리스트의 안전을 증진시키며, 온라인 혐오발언뿐만 아니라 의식 제고 이니셔티브, 꾸준한 모니터링, 역량 강화 활동, 회원국에 대한 기술 지원을 통해 허위정보와 오보를 방지한다. 또한 개방형 교육 자료,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접근, 사이버 공간에서의 다국어주의를 포함한 오픈 솔루션 추진을 통해 정보와 지식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지원 중에 있다. 정책자문과 네트워크 개발을 통해 표현 및 언론의 자유 수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표준 및 법적장치의 제정을 장려한다.
- 국제 커뮤니케이션 개발사업(IPDC, International Programme for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미디어 부문에서의 교육분야부터, 통신사 및 방송사의 현대화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 자금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이나 체제전환국가의 독립적이고 다원적인 미디어 자원의 개발을 돕는다. UNESCO 총회 산하의 ‘국제 커뮤니케이션 개발사업 정부 간 위원회(Intergovernmental Council of the International Programme for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1980년 UNESCO 제 21차 총회에 의해 설립, 4년 임기 39개국 위원국, 매 2년마다 위원회 회의 개최), 미디어개발지표(Media Development Indicators) 개발 및 관리, 언론인의 안

전(Safety of Journalists), 저널리즘 교육의 우수성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Global Initiative for Excellence in Journalism Education), 지식 중심의 미디어 개발(Knowledge-Driven Media Development), 주제별 토론(Thematic Debates) 촉진 등을 주요 활동으로 수행 중에 있다.

- 모든 이를 위한 정보사업(IFAP, Information for All Programme): 정보 접근성, 디지털 리터러시 등 정보화 관련 모든 이슈가 포함된 사업으로 지식사회의 정치적, 윤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논의 활성화, 정보 접근성의 형평성 증진을 위한 지침 및 프로젝트를 기획한다. UNESCO 총회 산하 ‘모든 이를 위한 정보사업 정부간위원회(Intergovernmental Council for the Information for All Programme)’ 체제에서 관리되고 있으며(2001년 UNESCO 총회에서 설립, 4년 임기 26개국 위원국, 매 2년마다 위원회 회의 개최), 2019년 UNESCO 제40차 총회에서 한국도 IFAP 정부간 위원회에 진출하여 2019~2023 회기간 활동하게 되었다. IFAP는 개발을 위한 정보, 정보 리터러시, 정보 보존, 정보 윤리, 정보의 접근성, 다언어주의 라는 6개 우선순위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 중에 있다.
- 기록유산(MoW, Memory of World): 1995년 UNESCO 총회에서 채택된 ‘기록유산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세계 민족의 기록된 집단 기록이자 인류의 사상과 발견 및 성과의 진화 기록인 기록유산을 선정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기준, 훈민정음(1997), 조선왕조실록(1997), 직지심체요절(2001), 승정원 일기(2001), 조선왕조의궤(2007),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2007), 동의보감(2009), 일성록(2011), 5. 18 민주화운동 기록물(2011), 난중일기(2013), 새마을운동 기록물(2013), KBS 이산가족찾기 기록물(2015), 한국의 유교책판(2015), 조선왕조 어보(2017), 국채보상운동기록물(2017), 조선통신사 기록물(2017) 등 16건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다. UNESCO 미디어정보리터러시(MIL) 활동

1) UNESCO MIL 개요³⁰⁾

UNESCO에서 정의하는 미디어정보리터러시(MIL)는, 정보와 미디어 콘텐츠를 찾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현명하게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역량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30) UNESCO 웹사이트 재정리

UNESCO는 MIL을 통한 사람들의 역량강화가 정보와 지식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촉진하고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다원적인 미디어 및 정보 시스템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보고, MIL이 시민들이 미디어와 기타 정보제공 매체들의 기능을 이해하고 그들의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정보와 미디어 콘텐츠의 사용자이자 생산자로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어 결국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를 촉진한다고 강조한다. 정보리터러시와 미디어리터러시는 통상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분야로 간주되지만, UNESCO의 전략은 이 두 분야를 오늘날의 생활과 일에 필요한 일련의 능력들(지식, 기술, 태도)로 결합시키는 것이다. MIL은 사용되는 기술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미디어와 기타 정보제공 매체들(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 인터넷 등)을 고려한다. 특히, 교사들이 교육 과정에서 MIL의 중요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MIL을 교육에 통합시키고, 적절한 교육적 방법, 커리큘럼 및 자원을 제공하도록 교육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UNESCO의 임무는 △교사들을 위한 모델 미디어정보리터러시(MIL) 커리큘럼 준비, △국제 협력 촉진, △국가 MIL 정책 및 전략 준비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MIL 지표에 대한 글로벌 프레임워크의 접합, △MIL 대학 네트워크 구축, △유엔 문명간연대(UNAOC)와 협력으로 MIL에 국제 클리어링하우스 접합 및 구축, △이용자 생산 콘텐츠(UGC) 및 MIL 촉진에 관해 방송사들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전략을 통해서 미디어정보리터러시 사회를 형성하는 것이다: UNESCO가 정의한 MIL의 5대 법칙은 <표 2-7>과 같다.

<표 2-7> 유네스코 미디어정보리터러시(MIL) 5대 법칙

구분	내용
Law1(법칙 1)	정보, 의사소통, 도서관, 미디어, 기술, 인터넷 외 다른 정보제공 매체는 시민의 비판적 참여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다. 이들 모두는 서로 동등한 위치에 있으며 어느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큰 타당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취급되어서도 안 된다.
Law2(법칙 2)	모든 시민은 정보/지식의 창조자이고 전달해야 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시민들은 새로운 정보/지식을 습득하고 자신을 표현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미디어정보리터러시(MIL)은 남녀 모두에게 동등한 것이고, 인권과 연결되어 있다.
Law3(법칙 3)	정보, 지식, 메시지가 늘 가치중립적이거나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미디어정보리터러시(MIL)을 개념화하거나 활용하고 적용할 때 모든 시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구분	내용
Law4(법칙 4)	모든 시민은 새로운 정보, 지식, 메시지를 알고 이해하고 의사소통하기를 바란다. 설령 그러한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그것을 원한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표현한다. 그러한 권리는 결코 타협될 수 없는 것이다.
Law5(법칙 5)	미디어정보리터러시(MIL)는 단번에 습득되지 않는다. 이는 살아가며 체험하는 역동적 과정이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리터러시에 지식과 기술, 태도를 포함하고 정보, 미디어, 기술 콘텐츠에 접근·평가·활용·생산·소통할 때 완성된다.

자료: UNESCO 웹사이트(저자 재정리)

2) UNESCO MIL 대표회의(FC)와 MIL 주간(Global MIL Week)

UNESCO는 2012년부터 매년 10월 마지막 주를 ‘글로벌 미디어정보리터러시 주간(Global MIL Week)’으로 지정하고, 주관국가를 선정하여 대표회의(Feature Conference) 및 관련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1년 모로코 페스에서 열린 ‘제1차 미디어정보리터러시 및 문화간 대화 국제회의’에서는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진흥을 위한 11가지 권고를 담은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에 관한 페스선언’을 채택하였으며 동 선언문의 제2항에서는 글로벌 MIL 주간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이에 UNESCO는 이듬해인 2012년부터 글로벌 MIL 주간 기념하는 각종 행사를 펼치고 있다.³¹⁾

UNESCO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대표회의(MIL Feature Conference)는 유스 포럼 및 다양한 이슈별 병렬 토론 세션으로 구성된다. 매년 주제를 정하여 논문을 공모하고, 심사를 통과한 논문을 발표하며, 발표된 논문들은 연례 보고서(MILID Yearbook)에 게재한다. 주요 참석자는 국제기구, 대학, 협회, 연구단체 및 교육자, 미디어 전문가, 정보 전문가 및 사서, 정책가 및 정부 규제기관, NGO 단체 및 실무자, 일반시민 등으로 다양하다.

31) 한국은 2018년부터 MIL 국제심포지움을 개최 중이며, 내년도에는 MIL 대표회의 유치 (2020. 10 예정)

〈표 2-8〉 유네스코 MIL 대표회의 개최현황

회차	개최일자	장소	주제
8차	2019. 9. 24.~26	스웨덴, 예테보리	-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를 갖춘 시민: 정보화(획득/공유), 참여, 역량강화
7차	2018. 10. 24.~25	리투아니아, 카우나스	-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도시: 목소리, 힘, 그리고 변화의 주역들
6차	2017. 10. 24.~27	자메이카, 킹스턴	-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의 중요성: 학습 방법 및 정보 환경의 재창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못된 정보, 가짜 뉴스, 재난 위험성을 막는 MIL • 정보 및 미디어 환경의 현재에서 MIL 재수립 • GAPMIL과 MILID 네트워크 정보 • MIL을 통한 인터넷 경험 향상(학습, 참여의 기회, 개인 정보보호, 사이버 보안) • 교육 정책, 사회 정책 및 프로그램 안에서 MIL 통합
5차	2016. 11. 2.~5	브라질, 상파울로	-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문화적 대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멀티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환경 변화에 따른 문화간 대화의 기회와 도전과제: 분단을 연결하는 도구로서의 MIL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청소년 및 시민참여: 글로벌 시민정신 및 비판적 참여를 위한 기반으로서의 MIL • 미디어정보리터러시: 인권 강화, 반감이나 증오심의 표현, 급진주의 및 극단주의 반대
4차	2015. 6. 26.~27	미국, 필라델피아	- Celebrating Connectivity Across Cultures:교육, 조직, 정책 및 국가 간 연결성 촉진
3차	2014. 9. 27.~28	중국, 베이징	- 미디어·정보 활용 시민이 문화간 대화와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방법
2차	2013. 4. 23.~25	이집트, 카이로	- 청소년 미디어: 청소년 미디어 및 문화 간 대화 증진 - MILID를 통한 시민성 증진: 비판적인 사고와 참여, 민주주의 - Mapping MILID WORLD: 국제 협력 프로젝트 - MILID와 민주주의
1차	2012. 5. 23.~25	스페인, 바르셀로나	- 청소년 미디어: 청소년 미디어 및 문화 간 대화 증진 - MILID를 통한 시민성 증진: 비판적인 사고와 참여, 민주주의 - Mapping MILID WORLD: 국제 협력 프로젝트 및 협의체 - MILID 창조성: 미디어와 정보 - Fostering MILID around the World: 시민사회, 미디어, 정책 입안자 및 연구자 참여 방법

자료: 유네스코 홈페이지(저자 재정리)

3) 주요 논의 현안

UNESCO 2019 MIL 대표회의는 2019년 9월 24~26일,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를 갖춘 시민: 정보화(획득/공유), 참여, 역량강화(MIL Citizen: Informed, Engaged, Empowered)'라는 주제로 스웨덴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회의는 2018년 디지털 시대의 도시(MIL Cities)에 이어 2019년에는 시민에 초점을 맞추어 MIL이 시민들의 평생학습, 노동 및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핵심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함을 강조하였고, 혐오와 배제의 악순환뿐 아니라 역정보의 위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다원적인 미디어 및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상이한 문화 간 및 종교간 대화가 촉진될 때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우리 주변의 세계에 대한 인식은 물론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풍부하게 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시민, 특히 청년, 고령자 및 소외된 그룹의 MIL 역량 강화는 더욱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함으로써 디지털 포용성과 기회의 제고를 가능하게 함이 중요함이 언급되었다. 2019년 글로벌 MIL 주간은 UNESCO와 유엔 시민연대(UNAOCUN, Alliance of Citizens)가 주도하며, MIL 및 문화간 대화(MILID) 대학 네트워크, UNESCO 주도 MIL에 관한 글로벌 연합 협력체(GAPMIL), 도서관협회 국제연맹, 트위터(Twitter), 학교도서관 국제협회 등과 협력하여 개최되었다. 특히, 금년 특별 컨퍼런스는 처음으로 개최지의 지역기관과 대학이 주최하며(Västra Götaland 주 의회와 예테보리 대학교가 UNESCO 스웨덴 위원회와 협력하여 공동주최), 세부주제는 다음과 같다.

- ① MIL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 ② 평생학습: MIL과 시민사회, 미디어, 사회미디어 및 공공서비스 미디어의 역할
- ③ 역정보, 선전(Propaganda) 및 MIL
- ④ 문화간 대화 촉진
- ⑤ MIL, 선거, 모범관행
- ⑥ MIL과 언론의 자유: 혐오발언, 대화 및 참여
- ⑦ 청년: 공식/비공식(Nonformal/Informal) 교육 및 동료간 교육(Peer Education)
- ⑧ 청년과 뉴스
- ⑨ MIL에 관한 국가정책과 조율: 사례
- ⑩ MIL 평가: 노력, 성취, 효과에 대한 평가

- ⑪ 교사 훈련: 교사들에 대한 교육 방법은?
- ⑫ 프라이버시와 개인 데이터 보호에 있어서 MIL의 역할(GDPR)
- ⑬ MIL의 미래: 정책, 혁신, 모범사례, 도전과제, 다음 단계, 우리의 지향점
- ⑭ MIL을 향상시킬 혁신, 수단, AI와 같은 첨단기술

2019년 UNESCO 2019 MIL 대표회의에서의 미디어정보리터러시 주요 이슈 및 상세 논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³²⁾

개회식
<input type="checkbox"/> 발표자: 스웨덴 교육부장관(Anna Ekstrom) <input type="checkbox"/>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L은 정보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인권, 다원주의, 자유로운 미디어는 물론 고용시장 접근 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과도 관련됨을 강조함 ○ UNESCO는 이러한 다양한 함의의 주제를 다루기에 매우 적절한 국제기구이며, 스웨덴은 언론의 자유, 법치, 모두를 위한 교육 등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UNESCO의 MIL 관련 의제를 지지함
<input type="checkbox"/> 발표자: UNESCO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국 부국장(Moez Chakchouk) <input type="checkbox"/>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ESCO는 자신의 권리를 알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며,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 평화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를 갖춘 시민(MIL Citizens)을 지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와 관련하여 혐오발언 경계, 언론의 자유와 대화를 통한 상호이해와 상호존중, 청년들의 참여와 역량강화 등을 강조하고, SDGs 등과 연계하여 글로벌 아젠다로 지속 추진할 것임을 밝힘
<input type="checkbox"/> 발표자: 예테보리 대학교 부총장(Eva Wiberg) <input type="checkbox"/>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의 자유와 민주주의, 가짜뉴스 등 최근의 MIL 관련 연구성과를 모은 “Understanding MIL in the Digital Age- A Question of Democracy”를 소개하며,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도전과제인 관련 학교교육의 강화, 민주주의를 위한 협력, 교사 및 미디어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함
<input type="checkbox"/> 2019년 GAPMIL 글로벌 MIL 상 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6개 단체/대표가 수상함

3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9 UNESCO MIL 대표회의의 출장결과보고서』 참고

- 몬테니그로(UNICEF)
- 미국(Media Literacy Clearinghouse 대표)
- 러시아(Media Education Journal 편집인)
- 스페인(Media Education Research Journal)
- 팔레스타인(Palestine Youth Association for Leadership & Rights Activation, PYALARA)
- 영국(News Wise)

기초연설

- 예테보리 대학교 교수, UNESCO 언론의 자유, 미디어 발전 및 글로벌 정책 의장, Understanding MIL in the Digital Age- A Question of Democracy의 편집자(Ulla Carlsson)
 - 디지털(인터넷) 격차로 인한 정보접근의 문제와 함께 사이버 공격, 사이버 괴롭힘 등에 대한 대응은 언론의 자유, 포용성, 참여 등 기본적인 가치와 기능적 민주주의(Functional Democracy)와 관련하여 중요함
 - 혐오발언, 괴롭힘(Harassment), 오류정보(Misinformation), 역정보(Disinformation) 등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협약의 확립 및 이행, 관련 글로벌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이를 위해 적절한 다자이해관계자 거버넌스 모형에 기반을 두고 정치적 지도력과 총체적인 관점에서 시민들의 역량 강화와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기여방안 모색이 필요성을 강조함
 - 한편, 현재 관련 연구들에서 디지털 변환의 영향에 대해 다양하고 심지어 상반된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모든 사회그룹들에 동등한 기회, 디지털 현실의 변화에의 대응, 인터넷 플랫폼의 개발 및 투명성 제고, 시민사회의 역할 등의 중요성을 강조함
- UNESCO 스웨덴 위원회는 1970년대부터 언론의 자유와 MIL 연구(Free & Balanced Flow of Information)에 기여한 공로로 올라 칼슨 교수에게 2019년 스웨덴 UNESCO 상(Swedish UNESCO Prize 2019)을 수여함

총회 I: SDGs와 평화를 위한 MIL

발표자: 스웨덴 외교부 실무장관 자문관(Per Olsson Fridh)

주요내용

- 스웨덴 정부는 민주주의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언론의 자유, 인권, 법치, 부패방지 등의 강조 및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와 함께 청년들의 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함
- 미디어 리터러시가 한 세대 전에 중요했듯이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역정보 대응, 디지털 리터러시, 저널리즘 안전 등)가 현재 중요한 도전과제이며, 스웨덴은 UNESCO의 핵심 파트너로서 커뮤니케이션 발전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발표자: UNESCO 미디어 발전과 사회 부문 과장(Mirta Lourenço)

주요내용

-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와 관련하여 역정보, 혐오 발언, 성적 학대(sexual harassment) 대응과 평화, 인권, 지속가능한 개발 등을 위한 시민사회의 참여가 핵심적으로 중요함
 - 특히, SDG 13(환경보호), SDG 5(양성평등), SDG 16(평화, 정의 및 강력한 제도), SDG 4(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등과 관련성을 강조함

발표자: 한국의국어대(최숙 교수, 장시영 연구원)

주요내용

- 한국내 외국인유학생 대상 글로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사례연구를 발표함
- 한국은 초연결사회로 글로벌화가 심화되고 있어 지식으로서뿐 아니라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역량으로서 MIL 교육이 중요함을 강조함

발표자: 나이지리아 University of Lagos 교수(Yetunde Ayobolu Caleb)

주요내용

- MIL을 통한 SDGs 달성을 주제로 한 연구를 통하여 다음의 권고사항들을 제시함
- ① MIL 접근 정책 및 전략을 SDGs 확산에 연계, ② MIL과 SDGs 관련 기관간 특히 2030 아젠다 달성을 확산시키기 위한 메시지 및 콘텐츠 관련 협력 강화, ③ 대중의 미디어 교육과 리터러시에 대한 열린 자세와 정책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SDGs와 같이 MIL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중요함

세션 1B: MIL, 선거 및 모범 거버넌스

발표자: 미국 시턴홀 대학교 조교수(Brooke Duffy) 外

주요내용(MIL 평가 프레임워크, 국가 준비도 및 역량- 아이티 사례)

- 아이티는 15세 이상 문맹율 41.7%, 15-24세 문맹률 17.4%; 공용어인 크레올(Kreyol Ayisyen)만을 사용하는 인구 95%, 크레올과 프랑스어를 같이 사용하는 인구 5%; 100명당 모바일 전화 가입자 비율 57%, 유선전화 가입자 1%, 브로드밴드 가입자 1% 미만 등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음
- MIL 관련 사업의 일환으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교육 및 정보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MIL 추진여건 분석을 계획하고 있음

발표자: 스웨덴 미디어정보리터러시 민주주의 위원회 특별고문(Carl Heath)

주요내용(MIL 및 민주적 대화 위원회의 역할과 활동)

- 스웨덴은 선거시 SNS를 통한 정크 뉴스공유비율이 미국 다음으로 높은 국가이며, 스웨덴의 언론인들을 포함한 상당수의 사람들이 위협, 혐오발언을 경험하고 있음(선출직 행정/정치인의 25%, 언론인의 25%, 10-16세 청년의 35% 등)
 - 이와 관련하여 MIL 및 민주적 대화 위원회는 관련 이슈들의 맵핑, 피해자 구제활동, 분석 및 정부에 대한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발표자: 스웨덴 위키미디어 개발자(Alicia Fagerving)

주요내용

- 위키미디어는 스웨덴 국립도서관 등이 참여하는 비영리단체로 교사, 사서 등 다양한 배경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인류의 집단지식에 자유롭게 접근, 공유 및 참여하여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저작권 문제없는 지식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를 위해 도서관 자료의 개방화, 오픈 데이터, 사서들의 참여가 중요하며, 관련 교육자료를 발간하여 활용하고 있음

발표자: 요크 대학교 연구원(Urban Jaksa)

주요내용(지식과 보안)

- 지식과 보안의 주체는 국가 또는 개인 등이며, 보안문제의 대상과 형태는 물적 인프라, 추상적 존재 및 가치, 인식론 상의 지식, 정보 등으로 다양함
 - 최근의 주요 사례로(사이버) 테러공격, 가짜뉴스(예. 브렉시트, 2016년 미국 대선) 등을 들 수 있음

총회 II: MIL과 표현의 자유- 대화, 약속

- 발표자: 스웨덴 욥살라대학교 연구원(Mona Guath) 외
- 주요내용(신뢰할 수 있는 뉴스와 신뢰도가 떨어지는 뉴스 구분 역량)
 - 실험조사에서 고험력자일수록 뉴스의 신뢰도에 대한 구분 역량이 높고, 전체적으로 온라인 정보에 대해 신뢰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편향된 정보를 구분하는 능력은 독서량, 일반적인 호기심 등이 중요한 것으로 파악됨
- 발표자: 포르투갈 리스본 대학교 연구원(Estrella)
- 주요내용(취약부문에서 MIL의 사회통합 역할)
 - 청년 조정자(Mediators), 교사 대상 1일 저널리스트 체험으로 디지털 콘텐츠 창출, 분석, 토론 등을 통하여 해당 사회의 관심이슈를 파악함
 - 호기심, 실험, 상상력 자극 등을 통하여 새로운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 스킬 등 개발의 필요성을 권고함
- 발표자: 프랑스 laelyon 경영학교 연구원(Muradyan)
- 주요내용(아르메니아 2018 사회혁신운동, New Armenia)
 - 2018년 아르메니아에서 부패에 대응하여 30여 개 도시에서 25만여 명이 참여하여 한 달 이상 지속된 사회혁신운동으로 수상이 사임하고 불시선거(Snap Election)를 통하여 새 행정부와 의회를 구성함
 - 그 과정에서 디지털 미디어가 24/7 보도를 통하여 정치 엘리트의 변화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켜 사실상 혁명을 이끌어나갔음(투명성, 신뢰성을 바탕으로 저항방법 창출)
 - 21세기 미디어는 제4부(The 4th Estate)가 아니라 제1부로 평가되며, 선의의 힘으로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변화를 가져옴
- 발표자: 러시아 RT 부편집장(Anna)
- 주요내용
 - 가짜뉴스는 미디어 산업의 신뢰도에 대한 와해를 초래함. RT는 팩트체크와 검증 서비스를 통해 가짜뉴스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참여와 대화가 중요하고 필수적임

세션 2C: MIL 정책 고취

- 발표자: 핀란드 National Audiovisual Institute 선임고문(Saara Salomaa) 외
- 주요내용(핀란드의 MIL 교육정책)
 - 핀란드의 MIL 교육정책은 협력적 정책개발, 정책지원에 대한 인식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 2013년 대중매체에 대한 교과과정 도입, 2018년 미디어 교육이 신국가 미디어 정책 프로그램의 중요한 주제로 부상, 2019년 교육문화부는 국가시청각기구(National Audio-

visual Institute)를 개편함

- MIL 관련 정책 주제, 활동, 대상 등 조사, 주요 추세 및 도전과제 등 분석 토론했음
- 주요 권고사항으로 정책 실행에 있어서는 관련 정책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적 절차, 지역 미디어교육 사회의 다양성, 미디어 교육의 수준과 범위, 지역 및 부문의 필요에 부응, 정부 및 관련민간기관간 협력적 실행 등을 제시함

발표자: 세르비아 문화미디어부 국장(Maja Zaric)

주요내용(세르비아의 MIL 정책)

- 세르비아의 MIL 관련 법체계로는 두 개의 미디어법과 두 개의 교육관련 법이 있으며(Media Strategy Laws 2011-2016, Draft Media Strategy 2019), 통신부(Ministry of Telecommunication)가 MIL 작업반(MIL Working Group)과 함께 디지털 MIL에 대응하고 있음
- 국제적으로는 유럽공동체(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VMSD) 관련), 유럽이사회(네트워킹, 정보공유), UNESCO(특히, MIL Cities, MIL Societies) 등과 함께 협력하고 있음

발표자: 캐나다 Western University 강사(Carolyn Wilson)

주요내용(미디어 리터러시, 세계를 읽다)

-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리터러시에 대한 확장된 정의(텍스트, 독자/시청자, 콘텐츠 생산 및 평가와 분석 등)와 함께 1-12학년(Grade 1-12)까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의무화함
- 성공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 및 정책을 위해서는 교사들을 포함한 풀뿌리 운동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교육당국은 지침 확립, 교육과정 개발 및 재원확충(예, 캐나다는 최근 4년간 \$19.4 Million 투입) 등을 기반으로 실행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함
 - 이와 함께 MIL 개발을 통해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지, 어떤 사회에서 살고자 하는 것인지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중요함

총회 III: 역정보와 선전(Propaganda)에 대응하는 MIL

발표자: 한국 서울대학교 연구원(양소은) 외

주요내용(역정보와 대응방안)

- 게임을 바탕으로 한 실험을 통하여 온라인 정보에 대한 비판적 자세(Skepticism)와 정보 리터러시 역량에 대해 분석함
- 짧은 온라인 개입으로도 정보 리터러시 역량 개선이 가능하며, 사회경제적 이슈들에 대한 사전정보가 있는 경우 비판적 자세와 관련한 역량 개선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한편, 초기 비판적 자세만으로 인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발표자: 핀란드 Lycée Franco-Finlandais d'Helsinki(Kari Kivinen)

주요내용(투표자 리터러시 파일럿 프로젝트)

- 선거와 관련하여 핀란드 팩트체크 서비스(Fakta Baari) 운영하고 있음. 팩트체크의 주요 항목으로 작성자(실명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웹주소 명시?), 독자 대상(최초로 누구를 대상으로 공개되었는가?), 의미(광고, 뉴스 또는 개인의 의견?), 작성된 이유(입수 경로), 근거 정보, 사진 등 부수적인 정보와의 일관성(제목, 사진, 본문과의 일관성, 사진/동영상의 출처?) 등을 제시함
- 핀란드 핵심 교과과정은 학생들이 역정보(Disinformation)와 오류정보(Misinformation)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비판적 사고와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배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인터넷 리터러시 툴킷 보급). 예를 들면, 기후변화, 이민자 문제, 학교내 선거 등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관련 자료를 작성하고, 드라마, 연극, 음악 등을 통하여 논의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디지털 정보의 증가에 대응하여 교사들에 대한 교육자료 보급이 필요함

발표자: 미국 트위터 공공정책 매니저(Ronan Costello)

주요내용

- 트위터는 사람들간의 대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화를 위한 플랫폼의 건전성제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 트위터는 UNESCO와 협력하여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 “트위터와 교육 및 학습(Teaching and Learning with Twitter)”을 10~15개 국어로 발간할 예정이며, MIL,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시민권, 온라인 안전, 교실에서의 연습, 사례연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10월 Global MIL Week 2019 주간에 공개 예정)

발표자: 몽골 Remo Media CEO(Namnandorj Bayaraa)

주요내용(몽골에서의 오류정보)

- 몽골은 1991년까지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체제선전활동(Propaganda)이 이루어졌고, 이후 가짜뉴스가 폭넓게 공유되고 있는 상황임(예. 맥도날드 개점행사로 아이폰을 나누어준다, 아파트/자동차 등을 경품으로 준다, 중국식품/바나나 등이 AIDS 바이러스로 오염되어 있다, 플레이스테이션의 버튼이 개코 가족으로 만들어졌다, 자동차에 밤새 음료를 두었다 마시면 암에 걸린다,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체제를 비교하는 사진 등)
- 일반적으로 TV 정보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으며(약 80%), 몽골 인구의 약 5% 정도만 영어 해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가짜뉴스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 몽골은 2020년 총선, 2021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가짜뉴스 대응과 관련한 역량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임

병행세션 3A: MIL 평가, 3B 국가정책/전략, MIL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

발표자: 한국 성공회대학교 교수(김서중)

주요내용(미디어 교육 정책의 발전과 특징, 한국사례)

- 한국에서 미디어 교육은 1970~80년대 종교단체들의 모니터링 운동에서 시작되었으며, 미디어 정책수립에 대한 영향력은 거의 없었음
- 1990년대 민주화운동과 함께 모니터링 방법과 시청자 교육, 2000년대 주로 고령자 및 다문화배경의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교육, 2010년 이후 전통적인 미디어에 대한 불신과 가짜뉴스 확산 대응 등으로 변화 및 진전됨
 - 특히, 미디어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지역센터들을 통한 시민사회의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됨

발표자: 독일 DW Akademie 프로젝트 매니저(Dennis Reineck) 외

주요내용

- 가나, 케냐 등 아프리카 6개국 대상 MIL 교육의 성과를 평가함. 분석 통과와 적절성 및 협력기관 등을 고려하여 실용적인 측면에서 6개 분석대상국을 선정함

발표자: 인도 ndira Gandha National Open University 연구원(Aakanksha Sharma) 외

주요내용

- 학생 대상 실험 및 통계분석을 통하여 MIL 교과과정은 미디어 중심이 아닌 모든 대상 및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실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점으로 제시함

발표자: 콜롬비아 Corporación Unificada Nacional de Educación Superior(Tomas Duran Becerra) 외

주요내용

- 스페인을 포함한 라틴아메리카 11개국에 대한 국가단위의 거시적 분석을 통하여 사회 미디어 및 정보이용자 대상으로 MIL 지수를 작성함
- 초기 총괄지수의 낮은 디지털 준비지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냄. 2016년과 2019년 지수값을 비교하면 미디어 가용성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선되었으며, MIL과 미디어 산업 및 MIL과 시민사회 관련 세부지수가 상당수의 국가들에서 개선된 반면 MIL 정책 관련 세부 지수값은 일부국가들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 분석과정에서 파악된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어느 교육단계에서도 미디어 역량 평가도구가 없으며, 모든 국가에서 교육관련 ICT 담당 부서를 가지고 있고, 디지털 역량이 강조되고 있으나, 미디어산업 활동이 MIL 강화와 잘 연계되지 않고 있으며, 개인 또는 시민사회 차원의 MIL에 관한 이니셔티브들이 존재하나 제한적인 상황임. 준비지수와 관련한 정책과 환경요인 등이 중요하며, 라틴아메리카의 동질적인 국가들로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국가로 확대 및 개선을 고려하고 있음

발표자: 파키스탄 Riphah International University 조교수(Moazzam Naseer)

주요내용

- 파키스탄은 1960년대 과학기술교육 강조, 1980년대 이슬람 및 여성교육에 중점, 2009년 들어서는 리터러시 및 비공식 학습/교과과정이 강조되고, 2017년 들어서는 대중의 독서습관 개발이 강조되고 있음
 - 한편, MIL 역량 및 교육과 관련된 벤치마크나 표준이 없는 상황이며, 측정과 관련해서는 타당성, 신뢰성, 확장성 등에 대한 고려와 함께 전망과 도전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발표자: 우크라이나 International Research & Exchange Board(IREX) 프로그램 담당관 (Mehri Druckman)

주요내용

- 2014년 우크라이나 혁명과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 등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사회관계 네트워크의 신뢰기반과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접근이 이루어짐
- 이 연구는 리터러시와 문화간 대화(LID) 프로그램(1.5년)에 참여한 집단과 일반 집단간의 변화와 성과를 비교함. 그 결과에 따라 50개 학교에서 우크라이나 및 글로벌 차원의 예술, 문화, 역사, 언어 문학에 대한 파일럿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온라인 교육과 중등학교로 확대되었음

총회 IV: MIL의 미래- 혁신, 모범관행, 도전과제

- 발표자: 영국 University of Strachclyde 명예연구위원(Bill Johnston)
- 주요내용(전환적 MIL 발전 전략)
 - 인구의 대다수에 해당되는 정규교육 외에 MIL 발전전략을 모색함
 - 지침이 되는 주요 이슈로 교육의 대상(특정한 상황 및 맥락), 비판적 사고를 지지하는 학습 디자인, 전환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 기반(물적 또는 디지털 기반), 교육과 학습에 관련된 가장 적절한 위치에 있는 사람 등을 제시함
- 발표자: 브라질 The Educommunication Nucleus 코디네이터(Carlos Lima, Maria Rehder)
- 주요내용(교육 공공정책에서 MIL의 관점, 상파울루시의 18년간 MIL 교육 경험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 상파울루시 교육사무국은 UNESCO 브라질 위원회와 함께 MIL 교육을 교과과정에 반영하여 2001년 교사들에 대한 라디오 및 멀티미디어 교육훈련을 시작함
 -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부수적으로 폭력이 감소하고 문화와 평화에 대한 관심도 또한 제고됨
- 발표자: 태국 University of the Thai Chamber of Commerce 도서관장(Jomkwan Polparasi)
- 주요내용(MIL 프로그램 강화방안, 태국의 디지털 교육 생태계)
 - 학생들이 정보에 접근, 선택, 활용, 창출, 공유를 얼마나 익숙하게 하는지에 따라 역량이 더욱 성장하게 됨
 - 한편, 아동들은 8초 이상 한 가지 상황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응한 교육방법을 고민하였으며, 미디어 기기(랩탑, iPad 등) 도입을 추진함. 또한, 교사들에 대한 교육훈련, 연구, 창의적 방안 강구 및 공유 등을 모색함
 - 이를 위해 iBridge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A단계(탐색, iPad를 활용한 교육), B단계(생산적 교육방안), C단계(커뮤니티 세미나) 등으로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음. 향후 고령인구와 학령전 아동에 대한 평생교육으로 확장을 계획하고 있음
- 발표자: 스웨덴 University of Skovde 교수(Jonas Linderoth) 외
- 주요내용
 - 영향력이 큰 문화(교육)의 한 가지 형태인 게임에 대한 리터러시를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Candy Crush는 스웨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즐기는 게임이며, 제작사인 볼보자동차는 투자액 대비 5배의 수익을 올렸음
 - 이에 따라 정책수립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게임에 대한 이해(게임 리터러시)와 함께 게임화(Gamification)와 게임 장애(Gaming Disorder) 등 게임의 영향력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게임 리터러시 또한 문화(게임의 종류, 산업 등에 대한 이해), 건강(관련 사회관계망, 건강 등), 과학(관련 연구,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 등), 시스템(디지털 게임과 다른 미디어와 구분보다 전체 체계에서 접근)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음
- 발표자: 벨기에 Media Animation 연구원(Yves Collard)
- 주요내용(음모론, 동기 및 메커니즘- 비판적 사고의 유도)

-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 일종의 도덕적 공황(Panic)/비상상황으로 정부의 법 제 및 대응수단을 위한 자금지원 등의 필요성을 제기함
 - 한편, 개인의 관점과 가치와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어 대응이 복잡하며, 접근방법으로 경험론, 해체론, 이데올로기, 인식론, 공동의 대응 및 접근방법 등을 제안함

세션 4A: 청년들의 MIL에 참여

발표자: 룩셈부르크 유럽 청년 정보 및 상담기관(Eva Reina) 외

주요내용

- EU의 자금지원으로 이루어진 2년 프로그램 DesYign(Innovative Youth Information Service Design and Outreach) 프로젝트를 소개함
- 4개국 37명의 청년들에 대한 중점집단 인터뷰를 통해 정보수집 방법에 대한 선호도, 사용 기기 및 경로, 형식에 대한 선호도, 정보의 신뢰도 판단방법, 관심정보 분야, 인식 등을 조사함
 - 예를 들면, 정보수집 경로로는 부모나 선생님, 사용기기로는 모바일 기기, 형태로는 동영상 비디오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발표자: 스웨덴 Seek You Seek You 위원장(Maria Ericson) 외

주요내용

- Seek You Seek You는 학계가 아닌 실행단계의 젊은 예술가들(7~20세)간의 비정부기구로 예술적 표현을 통하여 사회의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미디어를 선도적인 방법으로 활용하며, 인권 및 아동의 권리 현장과 환경보호를 지지하고, 특히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추구함

발표자: 아르메니아 Media Education Center 공동설립자(Narine Khachatryan)

주요내용(차세대 디지털 시민의 성장)

- 청소년들의 차세대 디지털 시민의 성장과 관련하여 시민으로서의 참여, 학교 웹사이트 활용, 창의적 미디어 콘텐츠 생산 역량 및 관련 윤리 등의 중요성을 강조함

발표자: 호주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조교수(Michael Dezuanni) 외

주요내용(청소년의 뉴미디어 리터러시 개발)

- 청소년들은 뉴스를 대부분 가족으로부터 얻고 있으며, 가짜뉴스의 확산에 취약함
 -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MIL 관련 역량배양이 필요하나, 호주의 교과과정은 개방적이고 포괄적이며 MIL 연구(특히 성과)와 관련한 정부지원은 없는 실정임

토론

- 청소년들이 MIL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유인은 스스로 창의적인 웹사이트를 만들어 참여하도록 하는 것임. MIL 역량배양을 시작하기에 적절한 연령은 스웨덴의 경우 유치원 단계 또는 미디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며, 관련 자료 특히 어린이 교육을 위한 부모용 자료가 중요함
- 학교의 주도적 역할과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획득하는지가 중요하며, 다양한 교육환경에 대한 고려, 특히 비정규교육의 경우 학습뿐 아니라 놀이를 통한 접근이 중요함

총회 V: GAPML/MLID 총회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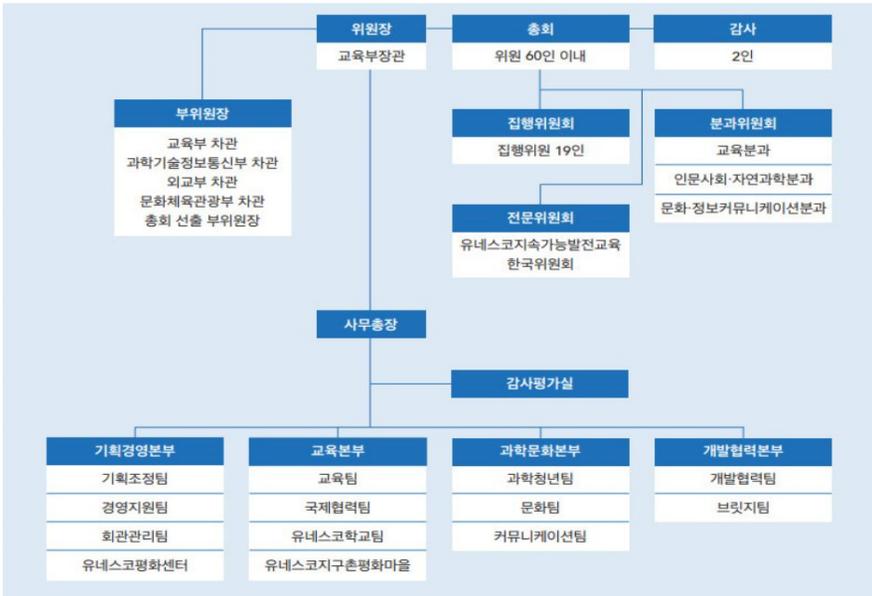
- GAPML은 2013년 UNESCO 주도로 시작되었으며, 재원이나 국제적으로 일관된 조정기능이 없어서 상호협력이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중복노력 우려가 있음. 또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정책입안자들에게 일관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어려움
- 브라질(남미 지회), 일본(아시아 지회), 미국(북미 지회), 자메이카 콜롬비아(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회) 등에서 최근 동향을 공유함
 - 아프리카 지회: 2008년 제1차 및 2015년 제2차 아프리카 대륙 워크숍 및 역량배약 행사 개최
 -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연안 국가 지회: 지역 32개 국가를 포괄하고 있으며, 인권과 언론자유를 주제로 전문가 및 UNESCO와 생활의 필수기반으로서 MIL을 위한 국가정책에 대해 논의함. MIL 추진과 관련하여 주요 이해관계자인 정부, 대학, 시민사회간 상호연계가 미약했으며, 교육자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한 추진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됨
 - 아시아 지회: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등 아태지역으로 포괄범위가 광범위함. 2019년 5월 일본에서 미디어 자유 기념일(Media Freedom Day) 워크숍 개최 외에 2018년 팩트 체크 행사, 2019년 국경없는 기자회 초청 지역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음. 가짜뉴스와 역정보를 주제로 MIL 교육 저널을 발간하였으며, 2018년 11월 한국에서 UNESCO 한국위원회 주최 MIL 교육 컨퍼런스 및 2019년 모두를 위한 MIL 교육 컨퍼런스, 카자흐스탄 나자바르 대학교 주최로 가짜뉴스 및 정보접근방법을 주제로 워크숍이 개최되었음
 - 북미 지회: 미국 MIL 교육 국가협회 및 캐나다 협회가 통합적으로 협력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 10월 21~23일 미디어 리터러시 주간 행사를 계획하고 있음
- GAPML 활동
 - 지난 6년 동안 2번의 국제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어 활동 강화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GAPML에 대한 참여가 112개국 500여 회원기관으로 확대되었음
- 청년대표
 - 가장 활발한 참여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로 글로벌 실행계획의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 MILID 대학 네트워크
 - 자메이카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미디어리터러시 과정, 기후변화 대응 등을 MIL의 논의범위에 포함시키고 대학간 연구 네트워크 강화 및 MIL 준비지수(MIL Preparedness Index) 작성을 위한 연구자들간 협력 및 평화 구축을 위한 MIL(MIL for Peace Building) 관련 교사 연수 등을 추진하고 있음

라. 국내 대응체계

UNESCO는 유엔 기구 중 유일하게 회원국 내 관련 활동을 촉진시키는 목적으로, UNESCO 현장에 따라 회원국 별 각 국가별 위원회 설립이 필수이며, 이에 우리나라도 1950년 UNESCO 회원국으로 가입 후, 1954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유네스

코 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³³⁾에 따라 위원장(교육부 장관) 1인, 부위원장 5인(4개 부처(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및 총회선출 1인), 사무총장 1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세부 조직도는 [그림 2-3]과 같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반관반민 성격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관·단체와 개인의 유네스코 활동 참여 진작, △유네스코 활동 관련 정책 수립, 협약 체결 등에 필요한 조사·심의와 건의, △유네스코 총회 의안의 작성, 대표의 선정 등에 관한 건의, △유네스코 활동의 국내 이행에 관한 심의와 건의,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기관·단체와 협력 및 사업 수행, 조정 등과 같은 기능을 수행 중에 있다.³⁴⁾

[그림 2-3]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조직도



자료: 2019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브로셔

33) 「유네스코 현장」 제7조(국가위원회 설립 요청)

34) 유네스코 국가위원회는 국가별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외교부 산하기관으로서 유네스코 일본위원회가 존재함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정보커뮤니케이션 부서에서는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고려하여, 언어 다양성의 중요성 인식 제고 뿐 만 아니라, 정보소외계층의 미디어정보리터러시(MIL) 역량강화, 공개교육자원 확대 등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노력 중에 있다. 이 중 특히 MIL 대응은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8년부터 당시 유은혜 의원(현 교육부 장관이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장)이 『미디어교육활성화 법률』 발의 준비 중에 관련 부처 및 기관들로 TF가 구성되었으며,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UNESCO MIL Week과 연계하여 2018년에 이어 2019년도 ‘미디어정보리터러시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한 바 있다. ‘미디어정보리터러시 국제 심포지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언론재단·유네스코한국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방송공사 등 총 7개 기관이 공동주최하고,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가 후원하는 행사로, 미디어교육 전문가 및 교사 등이 참여하여 MIL 관련 국내외 동향을 논의하고 교육 현장사례를 공유하는 장으로 MIL 증진을 위한 방안 논의가 진행되었다. 나아가 2020년도에는 한국이 MIL 대표회의까지 유치하게 되어(2020년 10월 서울 예정) 동 부문에서의 더욱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한편 한국은 대유네스코 신탁기금(교육부)을 통해 2015~2018기간 “ICT Transforming Education in Africa(예산규모: 600만불)” 사업을 진행하여 남아공과 짐바브웨에서 2회의 IFAP 정책 대담 회의(Policy Dialogue)를 진행한 바 있으며, 상기 기금을 통해 르완다에서는 교사 훈련가(Teacher Trainer)를 대상으로 하는 MIL 관련 연구가 시행된 바 있다. 2019년 11월 개최된 UNESCO 총회에서 한국이 2019-2023회기 ‘모든 이를 위한 정보사업(IFAP) 정부간 위원회’에 진출함에 따라, 기존 UNESCO CI국에서 기록유산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한 바 있는 한국이 정보 접근성·디지털 리터러시 등 정보화 관련 이슈 협력사업 관련, 더욱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 2 절 비정부 국제기구

1. IIC(국제방송통신기구)

가. 개요

국제방송통신기구(IIC, International Institute of Communications)는 1969년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동향 분석 및 의견 교환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독립기구이다. 본부는 영국 런던에 위치하며, 사무총장은 크리스 채프만(Mr. Chris Chapman)(호주), 사무국장은 안드레아 밀우드 하그레이브(Ms. Andrea Millwood Hargrave)(영국) 맡고 있다. 현재 48개국에서 총 51개의 규제기관이 가입 중이고,³⁵⁾ 그 외 공영/민간 방송사, 산업계, 학계 등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회원은 크게 규제기관 회원(Regulator Membership), 산업계회원(Industry Membership), 준회원(Associate Membership), 전략 파트너십회원(Strategic Partnership)으로 구분된다. 현재 IIC는 독립적, 학제적, 비영리적 단체를 표방하고 기부 및 프로젝트 등으로 예산을 마련하고 있다. IIC는 정책 결정자, 규제기관, 학자, 산업 주체들이 인터넷, 전자통신, 방송, 뉴미디어를 포함한 통신 분야의 현재 추세와 그 영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비영리 포럼이라 할 수 있다.³⁶⁾

나. 조직

IIC 조직은 이사회(Board of Directors) 및 위원단(Trustee),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의장(President)을 포함하여 15명이며, IIC 10개 지부(Chapter) 지부장을 포함하여, 대학교수, 법조인, 기업 임원 등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된다. 위원단(Trustee)은 종신위원 2명을 포함하여 총 10명이며,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대학 교수 등 학계인사, 방송 및 통신 사업체 경영진들로 구성된다.³⁷⁾

35) 한국의 경우 2007년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기관으로 처음 가입했으나 지금은 탈퇴한 상황이며,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규제기관회원으로 가입 중

36) 이강규(2009)

37) 종신위원 2명은 Fabio Colasanti(前 IIC사무총장, 이탈리아), Dr. Thomas P Hardiman(법률가, 미국)이며 나머지 위원 8명은 Peter Alexiadis, David Gross, Zhong Liu, Michael R. Nelson, Robert Pepper, Jean Paul Simon, Ewan Sutherland, Andrew Taussig 임

사무국은 사무총국, 프로그램부(Programmes), 운영 및 마케팅부(Operations and Marketing), 출판부(InterMedia)로 구성되며 총 직원은 약 8명으로 본부 규모는 크지 않으나 전 세계 10개 지부(Chapter)를 통해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지원 중에 있다.

다. 주요 회의

1) 연차총회(AC, Annual Conference)

연차총회(AC)는 연 1회 통상 2일간 개최되며, 총회 주제에 따른 발제 및 주제별 그룹논의가 이루어진다. 연차총회에는 각 국가 규제기관 뿐만 아니라 공영/민영 방송사 및 관련 협회, 산업계, 학계,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글로벌 주요 방송통신 현안에 대해 자유로운 논의를 진행한다. 최근 연차총회에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융합통신과 디지털 생태계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표 2-9〉 최근 5개년(2015~2019) IIC 연차총회 개최 현황

회차	개최일자	장소	대주제	세부 논의주제
50차	2019. 10. 9.~10	영국, 런던	기하급수적인 변화시점에서의 융합통신의 동향과 티핑포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버넌스 - 콘텐츠의 미래 - 허위정보와 가짜뉴스 - 경쟁정책 - 스펙트럼 - 프라이버시, 보호, 보안
49차	2018. 10. 10.~11	멕시코, 멕시코시티	디지털 생태계로의 진전: 혁명 및 진화 또는 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성 제공 - 접근 및 포용 보장 - 경쟁역학과 시장 집중력 - 경쟁이 치열한 OTT 세계에서 의 디지털 콘텐츠: - 견고한 데이터 경제 설립
48차	2017. 10. 11.~12	벨기에, 브뤼셀	융합, 국경간, 부문간 디지털 생태계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선진국에서의 규제자의 목표와 우선순위 - 5G: 사물인터넷과 스펙트럼 효율성 - 사이버보안 및 프라이버시 - 미래를 위한 연결기술

회차	개최일자	장소	대주제	세부 논의주제
47차	2016. 10. 12.~13	태국, 방콕	융합 통신 동향: 새로운 티핑 포인트와 새로운 디지털 정책 및 전략	- 규제 및 정책 전환 - 디지털 경제 - 디지털 콘텐츠 및 서비스
46차	2015. 10. 7.~8	미국, 워싱턴	융합 통신 동향: 혁신 및 성장, 사회적 혜택의 촉진	- 접속 및 비접속 - 사물인터넷 - OTT 융합 모델 - 융합통신 경쟁정책을 위한 길

자료: IIC 홈페이지(저자 재정리)

2019년은 IIC 설립 제 50주년으로, ‘기하급수적인 변화시점에서의 융합통신의 동향과 티핑포인트(Trends and Tipping Points in Converged Communications at a Time of Exponential Change)’이라는 대주제 아래 IIC 본부가 위치한 영국 런던에서 제50차 연차총회가 개최되었으며, 규제본질 변화와 거버넌스, 디지털 전환 전략(선진국/개도국), 디지털인프라·혁신·투자, 주파수 관리, 규제환경의 제도적 개혁, 콘텐츠 권리와 국경간 e커머스,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으로의 정책 및 규제 접근방안, 글로벌 시장에서의 콘텐츠와 비콘텐츠, 경쟁정책, 허위정보와 가짜뉴스, 사이버보안과 데이터경제 등과 같은 다양한 세션에서 35개국 정부 규제기관 뿐 아니라 페이스북·넷플릭스 등 산업계 및 학계 등 220여명의 참석하여 적극적인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2) 국제규제기관포럼(IRF, International Regulators Forum)

국제규제기관포럼(IRF)는 IIC의 가장 대표적인 논의체로, 전 세계 규제기관 위원장 등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규제기관 간 비공개 회의이다. 연 1회 개최되는 연차총회(AC)와 연계개최되는 IRF는,³⁸⁾ 통상 이틀간 진행되며 전 세계 각 국의 규제정책을 수립하는 정책결정자들이 모여 규제이슈를 논의한다. IRF에서는 단순 논의뿐만 아니라 Networking Dinner 등 규제기관간 자유롭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IRF의 논의 동향은

38) 연차총회(AC)와 국제규제기관포럼(IRF) 개최 주간을 ‘통신정책규제주간(CPR Week, Communications Policy & Regulation Week)’로 칭함

하기 '마. 방송미디어 관련 주요 현안'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표 2-10〉 최근 5개년(2015~2019) IIC IRF 개최 현황

개최일자	장소	대 주제	세부 논의주제
2019. 10. 7~8	영국, 런던	글로벌 통신 생태계에서의 규제 재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디지털 생태계 규제 재정비 - 온라인세계에서의 경쟁정책: 디지털화에 따른 도전과제 - 민주적인 과정을 위한 주요 이슈 - 글로벌 통신 생태계에서의 조화 및 보안
2018. 10. 8~9	멕시코, 멕시코시티	디지털 생태계로의 진전: 혁명 및 진화 또는 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T와 앱 규제 - 이용자 보호 - 연결성과 지속가능성: 디지털 배제 격차 해소 - 정보 소유권과 교환
2017. 10. 9~10	벨기에, 브뤼셀	규제에 대한 공공정책 타당성의 재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문별 규제의 재고 - 모바일로의 이동: 규제자에 갖는 의미 - 연결성: 디지털 배제 격차 해소
2016. 10. 10~11	태국, 방콕	융합 생태계에서 필요한 규제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합의 요구 - 부문 간 규제의 교차사항
2015. 10. 5. ~6	미국, 워싱턴	규제방해요소 대응을 위한 모델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과 시장실패 - 융합세계에서의 이용자와 시민보호 - 디지털격차를 줄이며 접근을 증진 - 규제 혁신: 변화의 반영

자료: IIC 홈페이지(저자 재정리)

3) 지역 규제기관 포럼(RRF, Regional Regulators Forum)

지역 규제기관포럼(RRF)는 지역차원의 규제기관 논의장이며, 각 지역별 텔레콤미디어포럼(TMF)과 연계개최된다. 미주 지역 RRF가 가장 활발히 개최되고 있으며, 아태지역 RRF는 2018년 처음 개최되어 2019년 올해 2차 회의를 맞이하였다.

〈표 2-11〉 IIC 아시아 RRF 개최 현황

차수	개최 일자	장소	주제
2차	2019. 2. 12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부문을 넘나들고, 세계 사법권을 넘나드는 현실적인 규제 의 이행
1차	2018. 2. 5	싱가포르	- 디지털 생태계에서의 제도 역량 및 인적자원 구축 - 디지털 플랫폼과의 협력(경쟁 및 상호운용성) - 차기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인프라 - 경제성장을 위한 데이터의 흐름

자료: IIC 홈페이지(저자 재정리)

2019 아시아 RRF 의 경우, ‘부문을 넘나들고, 세계 사법권을 넘나드는 현실적인 규제 의 이행’ 이라는 주제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 대만, 뉴질랜드에서 위원장급이 참석하였으며, 아시아 외 영국, 남아공, 포르투갈, 자메이카 등 다른 지역에서도 다수의 고위급이 연사로 참석하였다. 2019 RRF에서는 연결성과 접근성, 데이터, 프라이버시, 경쟁, 사이버보안, 이용자 보호 등이 세부 주제로 논의되었으며 특히, RRF 마지막 세션은 라운드테이블로 주요 규제현안에 대한 각국의 정보공유와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가 심도 깊게 이루어졌다.

〈표 2-12〉 2019 아시아 RRF 프로그램

시간	내용
09:15-09:30	환영식 및 개회식
09:30-10:00	세션1: 배경-고려해야 할 주요 문제
10:00-11:15	세션2: 글로벌 문제-디지털 성장의 핵심 요소로서의 연결성 및 접근성 a. 인프라 구축 장려 b. 지리 및 인구통계로 인한 연결성 문제 c. 정보 격차 최소화/SDGs
11:30-12:15	세션3: 글로벌 문제-데이터 이동, 프라이버시, 경쟁 및 사이버 보안 a. 데이터 이동 및 데이터 지역화 b. 개인 사생활에 대한 우려 해결 c. 통신 생태계의 경쟁: 새로운 모델 d. 사이버 보안-유연하면서 지속 가능한 것은?

시간	내용
13:15~14:30	<p>세션4: 글로벌 문제-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이니셔티브: 이용자 보호, 측정 및 역량 구축</p> <p>a. 이용자 보호: 이용자를 돕기 위해 어떤 정보를 배치할 것인가? b.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측정 시스템이 고려될 수 있는가? c. 역량 구축: 조직 내에서 그리고 산업과 사회에서 역량을 구축하는 방법- '계획적(by design)'이 해결책인가?</p>
14:30~16:00	<p>라운드 테이블: 문제 해결을 위해 관할 구역에서 어떻게 대응 중에 있는가? 더욱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가? 무엇이 좋은 규제 관행을 만드는가?</p>
16:30	<p>폐회</p>

4) 텔레콤 미디어 포럼(TMF, Telecommunications and Media Forum)

텔레콤 미디어 포럼(TMF)은 1년에 약 4~6차례 개최되며 미주지역과 아시아지역의 경우 RRF와 연계 개최된다. 매년 장소 및 시기는 상이하나, 브뤼셀, 마이애미, 워싱턴은 매년 개최될 만큼 정기적인 포럼으로 자리잡고 있다. TMF는 실무그룹의 형식으로 발표자와 참가자간의 상호 논의를 증진하고 참가자는 약 50여명의 정부 규제기관, 산업계, 학계 등으로 다양하며, 2019년의 경우 총 5건의 TMF가 개최되었다(2월/쿠알라룸푸르, 3월/브뤼셀, 5월/마이애미, 6월/리가, 12월/워싱턴). 매년 정례 개최되는 워싱턴 TMF 2018년 회의를 통해 살펴본 TMF에서의 주요 논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³⁹⁾

세션 1: 프라이버시, 국경간 데이터 흐름 및 사이버보안 - 국내 및 국제적 관점

발표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주요내용

- 부시 대통령 국장(12.5)과 관련하여 부시 대통령의 키워드였던 프루던스(Prudence)의 중요성을 강조함. 즉, 규제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현실적인 변화 대응과 경제적 실익 양측면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함. 2019년 규제 우선과제로서 5G 모바일 서비스, 주파수 할당, 글로벌 위성기술(2040년까지 수 조 달러 규모의 산업으로 성장 전망) 및 위성기반 인터넷 접속기술(저고도 궤도, 격오지 서비스/연결성 제고에 비용 효율적), AI, 기계학습 등을 제

3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8 IIC 워싱턴 TMF 출장결과보고서』 참고

*IIC의 'Chatham house rule(외부에 회의 논의내용은 공유가능하나 발언자의 익명성 보장)'에 따라 발표자는 소속기관만 명시함

시하고, 미국의 이익에 기반을 둔 국제기구 등에서의 협력추진 및 디지털 격차 대응 입장을 밝힘

발표자: 캐나다 라디오텔레비전 전기통신위원회(CRTC)

주요내용

- 모든 사물과 사람이 연결된 환경에서 사이버 보안 생태계의 중요성을 강조(스팸 대응, 프라이버시 보호 등 최근 노력을 언급)하고,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주도의 혁신 양자간의 이익과 긴장관계를 언급함

주요 토론내용

- 산업계와 시민사회는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주도 혁신 양자간의 긴장관계와 이익을 저울질하고 있음. 주요 정책 이니셔티브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산업부문과 기술부문(실리콘밸리)간의 갈등/협력관계를 검토함. 데이터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대응을 위한 교육, 투명성, 신뢰, 규제 및 이용자들의 주도적 참여(입법과정) 등의 필요성이 강조됨

세션2: 최근 주요 국제회의의 논의동향: ITU 전권회의, IGF, G20, OECD의 Going Digital 등

발표자: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주요내용

- 인터넷은 생활의 일부로서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정부도 영향력을 가진 이해관계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이 있음을 강조함(예. GAG)

주요 토론내용

- 토론자들은 ITU-PP와 관련하여 점점 더 많은 정부/참석자들이 ITU가 인터넷 분야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출하였으며, 단순히 인터넷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디지털 경제 전반의 다양한 이슈에 대응해야 함을 강조함
- IGF에서는 인터넷이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프랑스 대통령은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프랑스의 비전을 제시한 바 있음. OECD는 특히 AI, 전자상거래, 프라이버시 보호 등에 관한 정책 대화/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음. 한편, 포럼에 따라 각국 정부의 입장이 반드시 일관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세션3: 5G 동향점검 -미국의 5G 실태, 국제적인 영향력은?

주요 토론내용

- 5G와 관련하여 한중일 삼국이 매우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은 보안과 경제적 이익면에서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음. 5G 서비스를 위해서는 다수의 스몰셀 설치 등 국지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주파수 등 자원의 공유가 중요함

세션4: 신뢰, 사실 및 민주주의

주요 토론내용

- 신뢰는 관계이며, 사실은 견해 및 가치에 의존함이 언급됨. 또한, 사이버 보안과 신뢰는 기술(소셜 미디어)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부각된 문제로 관련 법체계 정비 및 새로운 대응기술(Screening Algorithm) 활용의 필요성이 언급됨
- ISOC은 사이버 보안이 네트워크, 이용자 및 프라이버시 보호, 물리적 인프라 등 다양한 측면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용자들은 서비스 뒤의 기술기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고, 신뢰의 구축을 위해 이용자 교육(Information Literacy), 기기, 네트워크

보호 등 세 측면이 중요함을 언급함

- 단순히 규제, 비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과 정보에 관한 지배력의 균형이 중요함이 제시됨

세션5: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 인터넷중계사업자의 책임과 규제

주요 토론내용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관계자는 네트워크 중립성 관련 규제 및 반경쟁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로 관심의 전환(Pen and Free)을 언급함
- Ofcom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동일하게 보이는 내용에 대해 서로 다른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 방송분야와 관련하여 보호 및 보장, 언론의 자유 옹호, 시간에 따른 적용, 투명성, (법)집행, 독립성 등의 참고할 원칙들을 제시함. 또한, 정부규제는 직접 규제 외에 대상, 내용 등을 분명하게 하는 시그널링도 중요함이 언급됨
- 한편, 유해한 콘텐츠의 의미가, 예를 들면, 아동 음란물과 같이 어느 국가에서나 공통적으로 구분이 명확한 것과 국가별 규범, 문화, 가치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글로벌 차원의 명확한 정의를 내릴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이 언급됨. 즉, 맥락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플랫폼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이용자들의 건제적인 역할도 중요함이 언급됨
- 기본적으로는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보호 양자간의 균형이 중요하며, 문제의 복잡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 되고 다중이해관계자간 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디지털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 강조됨

세션 6: 디지털 시대에 대응한 산업구조

주요 토론내용

- 정보의 가치 및 시장과 관련한 미래 전망을 통하여 경쟁정책의 측면에서 보면 생산 요소에 대해 생산성 증가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제기함(AT&T 분할, MS에 대한 반덤핑 규제, 데이터 공유 강제화, 프라이버시 보호 규제 등 관련 독과점 문제가 야기됨)
- 이용자들의 자율적 통제권 강화와 서비스 제공사업자들의 관리면에서도 정부 규제기관들의 현실적인 역할 필요성이 제기됨
- 산업구조를 키워드로 정리하면, 효율성, 공공재, 시장의 실패보다 심각한 규제 실패로부터 탈피, 역동성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공공의 이익 제고 추구, 옳은 답을 찾기 위한 실천적 행위 등임

5) 지부별 행사(Chapter Events)

IIC는 아시아, 미주, 유럽, 중동&아프리카 4개 지역에서 총 10개 지부(Chapter)를 운영 중에 있다. <표 2-13>에서 볼 수 있듯이 총 10개 지부 중 4개 지부가 아시아 지역에 위치한다. 이들 지부는 별도의 사무소는 없으나 각 챕터의 장들이 자발적(Voluntary)으로 운영하며, 영국 본부 사무국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지역 행사를 개최 중에 있다. 각 지부별 행사는 보통 만나절~하루 연중 수시로 개최되며, 2019년의 경우 아태지역 5건, 미주지역 1

건, 유럽지역 7건으로 총 13건의 지부별 행사가 개최되어 다양한 이슈를 논하였다.

〈표 2-13〉 IIC 지부(Chapter) 현황

지역(지부 수)	지부 국가
아시아(4)	태국, 싱가포르, 호주, 홍콩 ⁴⁰⁾
미주(2)	캐나다, 미국
유럽(3)	영국, 이탈리아, 벨기에
중동 & 아프리카(1)	남아프리카공화국

자료: IIC 사무국 제공

라. 발간물

IIC 자체 저널인 《인터미디어(Intermedia)》가 분기별로 발간되며, 다양한 범위의 커뮤니케이션 이슈 및 최근 미디어 정책 및 규제이슈를 다루고 있다.

마. 방송미디어 관련 주요 현안

IIC는 영국, 호주, 일본의 공영방송사가 설립멤버였던 만큼, 설립 초반에는 방송에 초점을 둔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으나, 방송미디어 환경의 융합 등으로 인해 현재는 아래와 같이 △규제 모델과 거버넌스, △디지털변환과 혁신, △콘텐츠의 미래, △경쟁정책, △스펙트럼과 접근, △프라이버시·보안·보호 등 총 6개 분야에서 광범위한 논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표 2-14〉 IIC 주요 논의 주제

주제	세부 논의주제
규제 모델과 거버넌스	협력적이고 조화로운 규제, 부문 간 교차 접근법, 규제 모델
디지털변환과 혁신	인공지능, 머신러닝, 스마트카, 사물인터넷, 디지털 경제

40) 현 아태지역 지부장: 태국(Sudharma Yoonaidharma, 태국 에너지 규제위원회 위원), 싱가포르(Peter Lovelock, Technology Research Project Corporate(TRPC) 대표), 호주(Derek Wilding, Centre for Media Transition 공동대표), 홍콩(Joe Welch, 폭스 아태지역 대외부서 상무)

주제	세부 논의주제
콘텐츠의 미래	비즈니스모델, 플랫폼의 파워, 취약하고 규제적 측면 도전과제의 보호
경쟁정책	건강한 경쟁 환경, 혁신과 투자, 망 중립성
스펙트럼과 접근	경매, 상호운용성, 5G의 미래와 연결기술, 디지털 배제
프라이버시, 보안, 보호	안전한 데이터 흐름 보장, 데이터 보호,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시민의 권리 보호, 불쾌한 커뮤니케이션

자료: IIC 홈페이지

하지만 이 가운데 방송미디어 관련 이슈는 항상 IIC 주요 회의체 세부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아래 <표 2-15> 와 같이 최근 5개년 IRF에서도 디지털 리터러시에서의 규제자의 역할, 공영방송, OTT시대에서의 규제, 이용자 보호, 가짜뉴스 등 현재 규제기관이 직면하고 있는 방송미디어 부문의 현안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표 2-15> IIC 방송미디어 관련 이슈

구분	방송미디어 관련 이슈
2019 IRF	- 민주화 과정에서의 중요이슈: 디지털 리터러시에서의 규제자의 역할
2018 IRF	- OTT 및 애플리케이션의 규제: 글로벌 솔루션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규제: 규제기관이 활용가능한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 공영방송에도 여전히 역할이 있는가? - 이용자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와 정보: 가짜뉴스와 오보 • 투명성의 중요성 • 프라이버시와 보안
2017 IRF	- OTT 및 애플리케이션의 규제: 글로벌 솔루션의 필요성? - 디지털 생태계에서의 신뢰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와 정보: 가짜뉴스 VS 오보 - '풍요의 시대'에서의 미디어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과 저작권 침해행위
2016 IRF	- 융합의 압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와 자유화 사이의 균형 • 이용자와 시민보호 • 공익에서의 시장실패에 대한 규제 - 경쟁의 장을 공정하게 하는가? 혹은 공평한 경쟁의 장인가?: 도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T vs 방송 vs 케이블 및 위성

구분	방송미디어 관련 이슈
2015 IR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과 시장실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 시사 또는 현지언어 콘텐츠와 같은 공중과 방송콘텐츠 부문은 보호되어야 하는가?-누가? 어떻게? - 규제받지 않는 분야를 규제하는 것: OTT, 소셜미디어, 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기관은 콘텐츠와 독립적인 서비스와 플랫폼의 규제를 어떻게 균형 잡는가? • OTT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해야 하는가? • 콘텐츠 접근과 불법복제 해결

자료: IIC 홈페이지(저자 재정리)

IIC의 가장 대표적인 논의의 장은 IRF로, 2019년 IRF를 통해 IIC내 논의되고 있는 주요 현안 및 논의 동향을 살펴보겠다. 2019 IRF는 2019년 10월 7일(월)-8일(화), 양일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었으며 2019 제50차 AC와 연계개최되었다. ‘글로벌 통신 생태계에서의 규제 재고안(Redesigning Regulation For a Global Communications Ecosystem)’이라는 대주제 아래 △글로벌 디지털 생태계 규제 재정비, △온라인세계에서의 경쟁정책: 디지털화에 따른 도전과제, △민주적인 과정을 위한 주요 이슈, △글로벌 통신 생태계에서의 조화 및 보안 등이 세부주제로 다루어졌으며, 미국 FCC 위원장 등 46개국 정부규제기관에서 130여 명이 참석하였다. 각 세션별 주요 논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⁴¹⁾

개회 세션: 규제 스냅샷- 뒤를 돌아보고, 앞을 향해 나아가라

(개회사)발표자: 영국 방송통신규제기관(Ofcom)

주요 내용

- 이번 회의 주제는 ‘글로벌 통신 생태계에서의 규제 재고안’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통신 생태계에서의 기회 및 도전과제에 관해 논의예정임
 - 온라인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도전과제와 주요 이슈, 5G시대의 도래로 인한 글로벌 통신시장에서의 공급구조의 변화, 혁신과 경쟁간의 조정, 전통적인 미디어시장의 소비사의 보호, 네트워크 보안 및 회복력(Resilience) 등이 주요 이슈임
- 영국 Ofcom은 이러한 변화하는 생태계 속 3가지 주요 요소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온라인 세계에서의 콘텐츠, 경쟁, 데이터이슈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용자 피해(Co-consumer Harm) 파악과 이에 대한 대응

4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9 IIC IRF&AC 출장결과보고서』 및 IIC(2019) 참고

IIC의 ‘Chatham house rule(외부에 회의 논의내용은 공유가능하나 발언자의 익명성 보장)’에 따라 발표자는 소속기관만 명시함

- 영국 국민 모두가 빠르고 저렴한 가격의 브로드밴드를 누리도록 촉진(5G 투자 등)
- 이용자로의 공정성(Fairness) 보장
- 영국은 브렉시트를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EU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노력 중에 있음
- 최근 글로벌 통신 생태계에서의 규제 수립은 복잡적이고 어려운 이슈이며, IIC는 이러한 도전과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플랫폼 제공 중이며, 이러한 플랫폼이 강화되어야 함

발표자: 칠레 텔레비전위원회(CNTV)

주요 내용

- 칠레 텔레비전위원회(CNTV)는 1970년에 설립되었으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8년간의 이사회 임기를 가짐
- CNTV의 주요 업무는 TV 서비스 감독이며(인터넷 콘텐츠 감독권한은 없음), TV 콘텐츠에서의 존엄성과 비차별성의 보장을 목표로 감독업무 수행
- 최근 CNTV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로는 디지털 티비로의 전환과 이로 인한 제도적 재정비, 가짜뉴스의 확산에 대한 대응과 표현의 자유 보장간 조정, 기술 융합에 대한 대응 등이 있음

발표자: 포르투갈 국가통신청(ANACOM)

주요 내용

- 포르투갈 국가통신청(ANACOM)은 규제 수립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중요하게 고려
 - 이용자에게 저렴한 가격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장에서의 역동적인 경쟁 촉진(이를 위한 테스트포스 설립한 바 있음)
 - 사회비용, 오래된 규칙, 보편적 서비스 등을 고려한 주요 저해요소 감독 및 대응
 - 공공협의 과정 등 국가 내부적 접근방안 촉진

세션 1: 글로벌 디지털 생태계에서의 규제 재고안: 부문을 넘나드는 규제 정책

발표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주요 내용

- FCC는 미국의 우수한 5G기술 촉진을 위한 포괄적 전략인 “5G FAST PLAN”을 채택하였으며, 동 전략은 1) 시장으로의 더욱 많은 주파수 부여, 2) 인프라 정책의 개편, 3) 구식 규제의 현대화라는 세 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됨
 - 이에 3.5 GHz 중대역을 포함한 추가 주파수 대역이 내년도 입찰 시작 예정이며, 주/지방정부가 사업자들에게 부과할 수 있는 스몰셀(Small Cell) 구축 신청·관리 비용의 상한선을 지정하고, 비용 범위를 명확하게 산정하여 규제의 불확실성을 제거 노력 중에 있음. 또한, 5G 백홀 구축 가속화를 위한 One-Touch Make-Ready, 국가 안보를 위한 공급망 무결성(Supply Chain Integrity), 인터넷 자유 회복 등을 통해 규제의 현대화를 추구하고 있음
- 또한, FCC는 구글과 페이스북에 집중되어 있는 거의 반독점 수준의 온라인 광고시장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응에 경쟁촉진과 이용자보호 이슈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음

발표자: 호주 통신미디어청(ACMA)

주요 내용

-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은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호주 농업부문에서 기후를

예측하고, 혁신적인 스마트 농업을 촉진하는 등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는 면도 있으나, 규제기관에겐 새롭게 고려해야 하는 분야로 떠오르는 등 복합적인 상황에 놓여 있음

- 5G는 새로운 산업혁명을 이끌 원동력이며, 호주는 2017년 규제기관과 사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5G 전문가 그룹을 설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5G 구축 환경 조성 중. 2018년 1차 5G 라이선스 발급 절차를 완료했으며, 추후 발표될 주파수 대역 선정을 검토 중에 있음
- 페이스북과 같은 급격한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과 그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은 규제기관에 있어서 도전과제임

발표자: 대만 국가통신위원회(NCC)

주요 내용

- 대만은 2019년 말까지 5G 라이선스 발급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며, 라이선스 기간을 20년까지 연장 혹은 주파수 사용료 할인 등 산업발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예정임
- 다양한 신기술 융합으로 인해, 새로운 거버넌스 접근법을 채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일례로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있어 공공의 이익과 언어의 자유 및 산업 혁신 보장간 적절한 조정이 필요함

발표자: 아일랜드 통신규제위원회(ComReg)

주요 내용

- 부문을 넘나드는 규제란, 대표적인 예로, 에너지 부문에서 전기통신 규제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사례를 들 수 있음
- 유럽지역에서의 디지털 규제는 콘텐츠, 경쟁 등의 '온라인 Harm' 분야가 있으며, 윤리 및 투명성, 상호호환성과 같은 주요 이슈를 기반으로 향후에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가상현실(AR) 등이 가능한 규제분야가 될 수 있음(현재 EC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새로운 윤리지침을 마련함)
- 디지털 규제를 위한 제도적 고안은, 국제적 차원의 접근방안, 정보와 노하우, 규제문화, 산업계의 연관성, 협동 혹은 결합과 같은 주요 요소들을 고려하여, 새로운 규제를 설립하거나 혹은 기존 규제에서 다른 접근방안을 채택해야 함

세션2: 글로벌 디지털 생태계에서의 규제 재고안: 부문간, 경계를 초월하는 규제 정책

발표자: 폴란드 전기통신국(Offic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주요 내용

- EU는 완벽하게 오픈된 인프라 환경과 정책을 추구하고, 가장 중요한 도전과제는 최고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유럽국가간 협력임
- EU는 2020년에 국가별 최소 1개 도시에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5년까지는 모든 대도시와 교통 요지를 5G로 연결한다는 목표가 있음. 하지만 5G 주파수 할당에 있어 각 국가가 채택하는 주파수가 다르다는 도전과제가 있음
 - 700MHZ 사용 국가: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 스웨덴,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 등
 - 3.4-3.8 GHz 사용 국가: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독일, 영국, 스페인, 아일랜드 등
- 또한, 디지털 세계에서의 시민들의 역량구축도 매우 중요함. 폴란드는 이를 위해 자국내 올바른 인터넷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 중에 있음
- 온라인 콘텐츠 규제에 있어, 콘텐츠에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지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화하기 힘든 어려움이 존재함

발표자: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

주요 내용

- 오늘날의 경제사회문화에서의 기회 및 도전과제 모두는 디지털기술 발전에서 비롯되고 있음
- 디지털 경제에서의 데이터, 사이버보안, 디지털 ID와 같은 주요 이슈들은 관련된 모든 부문이 협력해야 하며, 규제기관은 이에 따라 총괄적인 접근안을 채택해야 함
- 규제기관의 역할은 기존 통신미디어뿐만이 아닌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혁신을 촉진하고 이용자보호를 강화해야 함(예.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ASEAN 프레임워크)
- 또한 디지털 경제에서의 도전과제 해결 및 혜택 최대화를 위해, 글로벌 규제협력도 매우 중요하며, 각기 다른 국가 우선순위와 규제 다양성을 고려하고, 이러한 논의를 위한 국제 플랫폼과 디지털 경제에서의 새로운 무역규정 구축 등을 강조

발표자: 콜롬비아 통신규제위원회(CRC)

주요 내용

- 콜롬비아 디지털 생태계에서 현재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온라인 연결이 전 국민의 50% 수준으로 자국내에서도 디지털 격차가 크게 나타나며, 특히 비연결 그룹은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라는 것임
- 콜롬비아 정부는 2017년 '콜롬비아 디지털경제 발전을 위한 규제 로드맵(Regulatory Roadmap to Develop Colombia's Digital Economy)'를 발표하여,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에 있음

세션3: 글로벌 통신생태계에서의 조화와 보안

발표자: 일본 총무성(MIC)

주요 내용

- 일본은 사이버보안에 대한 대응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 중에 있으며, 특히 2014년부터 시작된 정부 및 주요 인프라와 연관된 민간부문 사업자들의 사이버 공격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CYBER(Cyber Defence Exercise with Recurrence)' 훈련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음을 공유
 - 동 훈련은 사이버공격에 대한 이론과 실질적인 훈련 경험 및 사고처리에 대한 보고서 작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또한, 총무성(MIC) 산하 일본정보통신연구기구(NICT)에서는 최근 2년 새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사물인터넷 해킹 공격 대응책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 중에 있으며, 작년 NICT 법 개정을 통해 사물인터넷 취약점 점검을 목적으로 기기접근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를 마련, 이에 2억여 개로 추정되는 일본내 사물인터넷 기기에 대한 장비조사가 가능해짐

발표자: 독일 연방네트워크국(BNetzA)

주요 내용

- 독일은 2019.6월 5G 주파수 경매입찰을 완료하여 2025년까지 독일 전역의 5G 연결 달성을 위해 노력 중에 있음. 5G는 경제사회 발전뿐 아니라, 모든 산업분야를 지탱하는 백본이자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도 매우 중요. 하지만 이에 따른 사이버보안 이슈

도 심각히 고려해야 함

- 또한 2017년 독일사이버보안법(BSI Act) 개정을 통해 독일 내 주요 인프라시설 사업자와 디지털 서비스제공자는 자신들이 사용하는 네트워크/정보시스템 보호를 위한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 아울러 보안사고가 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독일 연방정보기술안정청(BSI)에 보고가 이루어져야 함

세션4: 온라인세계에서의 경쟁정책: 디지털화의 도전과제 대응을 위해 채택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가?

발표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주요 내용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미국 법무부 독점금지국과 함께 미국 내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역할을 수행 중에 있음
- 온라인 세계에서의 독과점금지는 중요한 사안이며, 해당 부문에서의 인수합병은 예측이 어렵다는 이슈가 존재하기도 함
- FTC는 금년도 '기술분야 테스크포스(Technical Task Force)'를 설립하여, 특히 미국내 거대 IT기업을 타겟으로 이들의 반독점행위 조사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 중에 있음

발표자: 뉴질랜드 상거래위원회(Commerce Commission of New Zealand)

주요 내용

- 뉴질랜드에서는 국민 320만명이 매일 2시간 22분을 온라인 소셜라이징에 소비 중에 있을 정도로 디지털 플랫폼은 생활에 깊게 자리잡고 있음
- 2019년 3월, 백인 우월주의 용의자가 이슬람사원 두 곳에서의 총기난사를 17분간이나 생중계하는 크라이스트처치 테러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제재가 이루어지기 전 이미 4천회 조회수 달성하는 등 큰 문제를 초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유해콘텐츠 방지를 포함한 페이스북·구글·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세션5: 민주화 과정에서의 주요 이슈: 디지털 리더십에서의 통신규제자의 역할

발표자: 아일랜드 경쟁 및 이용자보호 위원회(CCPC)

주요 내용

- 온라인 세계에서의 이용자는 더욱 많은 선택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확장된 선택사항에 있어 문제도 발생(무분별한 온라인광고, 검색엔진 순위, 소셜 인플루언서의 개별증정가격 등)
- 각 부문별 규제기관이 미리 구분해놓은(Pre-sliced) 범위에서의 각자의 규제활동을 수행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협력하여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모범 모델을 구축해야 할 것임

발표자: 독일 미디어청(DLM)

주요 내용

- 현재의 융합환경은 융합 규제를 필요로 하며, 수용자중심의 AV 미디어 서비스· 기타 미디어 콘텐츠에 있어 소수집단의 보호 및 인간존엄성 측면의 규제는 매우 강하게, 다원주의(Pluralism) 측면 규제는 지원하는 방향으로(Supportive), 이용자보호 측면은 약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함
- 또한,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기업이 스스로의 공동표준을 설정하고, 문제 발생 시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구축, 글로벌적으로 조화된 프레임워크 준수

등 스스로가 자신감 있는 규제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미디어분야의 역동적인 진화와 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의 지속적인 변화가 이용자에게 불확실함과 궁금증을 불러오고 있으나 미디어 리터러시 분야에서의 서비스와 지원은 때로 너무 복잡한 현실에서 더욱 솔루션 지향적으로 나아가갈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이 공급 측 및 수요 측간 불일치가 발생하므로, 더욱 총괄적인 규제 고안이 필요

발표자: 자메이카 방송위원회(Broadcasting Commission Jamaica)

주요 내용

- ICT에 익숙한 Z세대(Generalization Z)를 면밀히 들여다본다면, 4차 산업혁명에 아직 준비가 안되었음. 일례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메이카 95%가 가정에서 컴퓨터 접근이 가능한 환경에 있으나 그 중 65%가 온라인뉴스에 한 번도 코멘트를 남긴 적이 없는 등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사회에서의 시민 참여는 부족함을 지적. 디지털 기기로의 접근과 온라인 시민 참여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정책이 필요
- 자메이카 방송위원회는, UNESCO와 협력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사기 및 신원도용, 바이러스 등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로부터 보호책을 조언하는 'Get Safe Online' 운영, 온라인 세계에서 무분별한 가짜뉴스 작성 및 유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홍보비디오 상영 등을 통해 특히 청소년 및 청년층들에 대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및 인식 제고 노력 중에 있음

발표자: 남아공 통신규제청(ICASA)

주요 내용

- 남아공 통신규제청(ICASA)은 2000년 ICASA Act에 의해 설립된 전기통신·방송부문 규제 독립기관임
- 온라인 세계에서 특히 유해한 콘텐츠에 대한 안전조치는 매우 중요하며, 특히 어린이와 같은 취약 커뮤니티에 대한 보호가 매우 중요. 남아공 관련 법령에 따라 방송사는 유해한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고, 공정성 있는 콘텐츠를 유지하며, 현지 언어 콘텐츠를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음
- 또한, 넷플릭스와 같은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도 기타 유효 TV 서비스(예. DSTV)와 동일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

세션6: 투자를 위한 올바른 시장 환경 구축

발표자: 캐나다 라디오텔레비전 전기통신위원회(CRTC)

주요 내용

- 캐나다 도시지역에서 96%가 브로드밴드에 연결되어 있으나, 세계적으로 높은 통신료가 지속되고 있음
- 최근 캐나다 라디오텔레비전 전기통신위원회(CRTC)가 도입한 새로운 정책은 이용자가 저렴한 가격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형태의 경쟁을 장려하는 것이며, 이에 기존 대기업 이통사 중심이 아닌, 새로운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도 시장에 진입 할 수 있게 함
 - 궁극적으로 MVNO가 자체 인프라 시설을 갖추지 않고도 네트워크에 대한 도매 접속에 지불함으로써 모든 캐나다 국민들이 저렴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경쟁

력 있는 모바일 무선시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임

발표자: 프랑스 통신우정규제청(ARCEP)

주요 내용

- 프랑스는 2018년 7월 프랑스 5G로드맵을 발표했고, 현재 프랑스 대도시에서의 3.4-3.8 GHz 대역 라이선스에 대한 공공협의 과정에 있으며, 2020년 상용화 계획임
- 투자 친화적 규제(Pro-investment Regulation)는, 투자(운영자로 하여금 서비스의 질을 높 이도록 독려하며, 혁신을 장려), 경쟁(실행 가능한 경쟁보장 및 성장 동력 창출), 혁신 및 서비스의 질(혁신을 수용하며, 고속의 서비스 제공), 자금화(사용자 경험의 향상 및 자금 화 허용)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발표자: 홍콩 방송통신규제청(OFCA)

주요 내용

- 홍콩 방송통신규제청(OFCA)은 무선주파수와 전화번호와 같은 희소 공공자원의 효율적 할당과 관리역할 뿐 아니라, 전기통신부문 법령 검토 등의 역할도 수행 중
- 홍콩의 모바일 시장은 현재 4개의 MNO와 25개의 MVNO가 존재하며, 276%의 모바일 보 급률이 이루어진 상태. 또한 유선시장은 93%의 가정에 브로드밴드 보급이 완료되었으며, 80%가 FTTH/B에 기반하고 있음. 2019년 10월, 5G 중간주파수대 경매 예정
- 사이버보안, 프라이버시, 스마트시티 등과 같은 주요 이슈 대응을 위해 기타 부문 부처 및 당국과의 협력 혹은 공동규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규제기관의 역할이 향후 더욱 확장 되고 향상되어야 함을 강조

발표자: 멕시코 연방통신청(IFT)

주요 내용

- 멕시코 연방통신청(IFT)은 통신 및 방송서비스 규제를 담당하는 멕시코의 독립 정부기관 으로, 2013년 이루어진 전기통신규제에 대한 대규모 개혁의 일환으로 설립됨(구 연방 전 기통신위원회(Cofetel) 대체)
- 이용자들에게 더욱 낮은 가격의 서비스와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위해 더욱 많은 경쟁이 필요하며, 멕시코에서는 유선시장보다 모바일 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음
- 또한, 멕시코내 도시-벽촌지역간 디지털 격차가 극명히 나타나고 있으며, 디지털 포용을 위해 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대통령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영 인터넷 기업 CFE Telecom을 설립(2019. 8),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Underserved Area)에 대한 브로드밴드 구 축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음(CFE Telecommunications and Internet for All)

바. 국내 대응체계

우리나라는 2007년 IIC 규제기관 회원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나, 2013년 정부조직개편 이후에는 탈퇴하여 현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만 규제기관 회원으 로 가입되어 있다. IIC의 경우 규제기관 회원으로 가입 시⁴²⁾ 규제기관만 참석 가능한 IRF와

RRF 및 TMF와 각 지부별 회의에 무료 참석이 가능하며, 연차총회를 포함한 모든 IIC 회의의 결과보고서와 발간물을 수신할 수 있다. IIC는 정부간 국제기구는 아니지만 세계 각국의 규제기관(장)들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는 규제기관 회의체를 오랜 기간 연례 개최 중에 있고, 전 세계 10개의 지부를 보유하여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구이다. 최근에는 정부 규제기관 뿐 아니라 시스코, 에릭슨, 구글, MS, 넷플릭스와 같은 관련 민간기업이 IIC 전략파트너십 회원으로 가입하여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비정부간 국제기구 이지만 정부,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견해를 공유받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점에서 그 영향력과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미국 FCC도 IIC의 규제기관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년 FCC위원장이 IRF에서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 중에 있다. 지난 5년을 살펴보면 한국은 방송통신위원회 이기주 전 상임위원이 2015년 벨기에 TMF와 2016년 총회에 참석하여 관련 주제에 대한 발제를 진행하고 토론에 참여한 바 있다.

지역 규제기관 포럼인 RRF의 경우 기존 미주지역에서만 개최되었으나, 2018년부터 아태지역 RRF가 지역 TMF와 연계하여 'IIC ASIA'라는 행사로 연례 개최되고 있는 바, 아태지역의 ICT 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규제 적용 사례를 적극 공유하고 주요 규제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 및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지역 내 관련 협력을 주도적으로 촉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아시아 지역의 4개 IIC 지부가 모두 동남아(태국, 싱가포르, 호주, 홍콩)에 위치하고 실제 동남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 회의가 운영되고 있는 바, 한국도 동북아 지역 내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국가로서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신중하게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국제/지역방송연맹

가. WBU(세계방송연맹)

세계방송연맹(WBU, World Broadcasting Union)은 1992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한다. WBU는 전 세계 대륙별 지역방송기구들의 연합체로, 회원 기구들에게 주요 이슈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 중에 있다.

42) 가입회비는 규제기관 회원의 경우 연간 5천 파운드(한화 750만원)

현재 사무총장은 마이클 맥퀸(Michael McEwen)(캐나다)이며, 북미방송협회(NABA)가 WBU 사무국을 수행하고 있다. WBU의 회원은 총 7개로 대륙별 지역방송연합체로 구성되어 있으며,⁴³⁾ 2달에 1번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각 회원별 대표가 모여 각자의 현안을 공유 및 논의한다.

WBU는 현재 총 4개의 작업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위원회별 주요 활동은 아래와 같다.⁴⁴⁾

- 국제 미디어 연결 그룹(WBU-IMCG, International Media Connectivity Group): 1985년 설립된 국제위성운영그룹(ISOG)이 2015년 WBU 국제미디어연결그룹(IMCG)위원회로 변경되었으며, BBC 운영 국장(Morwen Williams)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크로아티아 라디오방송 HRT 사무총장(Kazimir Bačić) 및 일본 NHK 글로벌 IT 혁신부 국장(Joe Shimizu)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음. IMCG는 WBU회원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필요사항을 제시하며, 일반적 운영문제를 해결하는 글로벌 포럼을 제공 중에 있음. 동 위원회에서는 IP 및 모든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한 음성/영상 데이터 전송/전달 관련된 운영문제를 다루며, 연 2회의 WBU-IMCG 포럼을 개최하여 주요 커뮤니케이션 문제에 대한 국제 대담 기회를 제공함. 주요 참가자는 방송사, 위성 및 광케이블 사업자, 중계 서비스 제공자, 기타 산업계 초청연사 등으로 이루어짐
- 기술위원회(WBU-TC, Technical Committee): NABA 엔지니어링 컨설턴트(John Lee)가 위원장, ASBU 기술부 국장(Bassil Zoubi) 및 EBU 기술&혁신부 국장(Antonio Arcidiacono)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음. 기술위원회는 각 방송연맹들이 지식을 공유하고, 공동분야의 기술이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 및 촉진함. 온라인을 통해 1~2달 주기로 회의를 진행하며, 대면회의의 경우 최소 연 1회 개최 중에 있음
- 세계방송연맹-세계지식재산권기구간 방송사 조약 그룹(WBU-WIPO, WBU-WIPO Broadcaster Treaty Group): EBU 법무부 저작권부 부장(Heijo Ruijsenaars)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동 위원회는 국제적 차원에서 방송사의 권리와 보호를 제공하는 방송사

43) 아태지역방송연맹(ABU), 아프리카방송연맹(AUB), 아랍방송연맹(ASBU), 캐리비안방송연맹(CBU), 유럽방송연맹(EBU), 국제방송연합(AIR/IAB), 북미방송협회(NABA)

44) WBU 웹사이트

- 스포츠 위원회(WBU-SC, Sports Committee): WBU에서의 모든 스포츠 관련 업무를 관장하며, ABU 스포츠부 국장(Yanjiang Cai)이 위원장을 맡고 있음

나. ABU(아태지역방송연맹)

아태지역방송연맹(ABU, Asia-Pacific Broadcasting Union)은 비영리 및 비정부 방송기관 전문 협회로, 1964년 ABU 회원의 이익 보호, 정보 교환, 업무 조정, 국가 발전과 교육 분야에 방송 이용 촉진, 방송에 관한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019년 기준, 71개국에서 274개 방송사 등이 가입되어 있다.⁴⁵⁾ 회원은 정회원(Full Membership), 추가 정회원(Additional Full membership), 준회원(Associate Membership), 참관회원(Affiliate Membership),

[그림 2-4] ABU 회원 구성



자료: ABU 홈페이지

45) 한국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가 창립회원이자 정회원이며, 문화방송(MBC)도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추가 정회원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서울방송(SBS)이 활동 중에 있음

기관회원(Institutional Membership)으로 구분되며 [그림 2-4]에서와 같이 아태지역뿐 아니라 중동, 아프리카, 유럽, 미주지역 등 세계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회원을 보유 중에 있다. 본부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해 있으며, 사무총장은 료이치 우에다(Ryoichi Ueda)(일본)이다. ‘아태지역 방송 발전에 기여, 역동적 미디어 환경에서 회원사의 방송과 서비스 향상’을 비전으로 하며, 주된 사업은 회원사 간 콘텐츠 공동제작과 뉴스의 상호교환, 선진방송기술의 확산과 공유, 스포츠 중계권 공동협상과 공유, ABU상 시상, 저작권 관리, 타기관과의 교섭 등이다.

ABU 주요 부서별 각 활동은 아래와 같다.⁴⁶⁾

- 기술부(Technical Department): 제작(Production), 전송(Transmission), 역량배양(Capacity Building), 스펙트럼(Spectrum) 등 4가지 핵심 영역의 기술국(Technical Bureau)에서 각각 연구 및 활동을 추진한다. 아울러 ABU 기술상(ABU Engineering Awards) 시상 등도 맡고 있다.
- 프로그램부(Programme Department): TV(ABU Doc, ABU Kids 등), 라디오(국제 라디오 포럼, Radio Asia 등), 뉴 미디어(ABU Digital, 가상현실 워크숍 등), ABU 페스티벌(ABU 라디오 송 페스티벌, ABU TV 송 페스티벌, ABU 송 페스티벌, ABU 댄스 페스티벌 등), 산업계 컨퍼런스(미디어 컨퍼런스 등) 등 ABU 모든 프로그램을 총괄 중에 있으며 ABU 상(Prize)의 선정과 시상을 담당한다.
- 스포츠부(Sports Department): 스포츠 행사 중계권을 협상하고 경기를 보도하며, 방송사들이 경기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방송 부스 등을 마련하는 업무를 한다. 또한, 일년에 두 차례 모임을 갖고 위와 같은 업무를 협의하는 스포츠 그룹을 운영 중에 있다. 스포츠 경기와 관련된 정보도 각 방송사에 제공하며, 방송사와 여러 국제 스포츠 협회들과의 연락처로서의 기능도 한다.
- 아시아비전(Asia Vision): 아시아비전은 아태지역 내 주요 방송사간 데일리 뉴스 교환 프로그램으로 1984년부터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ABU 본부(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운영 센터(Operations Centre)가 위치하며, 정치, 경제, 스포츠, 연예, 기상정보 등 광범위한 부문에서 연간 약 17,600건의 뉴스가 교환되고 있다.

46) 이강규(2009) 및 ABU웹사이트

다. EBU(유럽방송연맹)

유럽방송연맹(EBU, European Broadcasting Union)은 1925년 유럽지역 방송사 연맹으로 설립된 국제방송연맹(International Broadcasting Union)의 후속기구로, 1950년 2월 유럽 및 지중해 지역의 23개 방송기관에 의해 영국 토키에서 설립되었으며 1993년에 유사성격의 중앙·동부 유럽 단체인 OIRT(International Radio and Television Organization)와 통합되었다.⁴⁷⁾ 사무총장은 노엘 쿠란(Noel Curran)(아일랜드)으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총 7개 지부(베이징, 브뤼셀, 로마, 모스크바, 뉴욕, 싱가포르, 워싱턴)를 운영 중에 있다. 아시아, 미주, 유럽 등 총 56개국에서 116개 정회원과 21개국에서의 34개 준회원이 활동 중에 있다.⁴⁸⁾ EBU는 공공 미디어서비스를 지원 및 강화하고, 최고 수준의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회원들에게 학습 및 공유를 위한 센터를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스포츠 위원회, △뉴스 위원회, △법률 및 정책 위원회, △TV위원회, △라디오 위원회, △기술 위원회를 두고 있다. EBU는 유럽 지역 내의 국내외의 프로그램을 각 가정에 보급하는데, 주로 뉴스·스포츠·음악 등의 교환을 지원하며, 유로비전(Eurovision)과 유로라디오(Euroradio) 서비스 또한 운영하고 있다.⁴⁹⁾

라. AUB(아프리카방송연맹)

아프리카방송연맹(AUB, African Union of Broadcasting)은 1962년 설립된 아프리카 국가들의 라디오 및 방송기구로 구성된 전문기관으로, 아프리카 지역의 모든 방송 부문 개발에 기여 중에 있으며, 아프리카 지역 방송부문에서의 뉴스 교환, 기술·법률 및 트레이닝 분야 협력을 촉진한다.

1962년 문화·과학기관 설립 관련 UN헌장 및 아프리카연합(AU) 헌장의 관련 조항에 따라, 아프리카라디오방송연맹(UNTNA)이 설립되었으며, 2006년 제13차 UNTNA 총회(나이지리아 아부자)에서 AUB로 기관명이 변경되었다. 본부는 세네갈 다카르에 위치하며, 사무총장은 그레고와 응자카(Gregoire Ndjaka)(카메룬)로 2018년 12월 기준, 51개국 45개 정회원

47) 이강규(2009)

48) 정회원은 ITU가 규정하는 유럽방송구역(European Broadcasting Area) 내에 있는 국가 또는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 회원국들의 방송 단체에게 주어지며 준회원은 유럽방송구역 이외 ITU 회원국의 방송 단체에게 자격이 주어짐

49) EBU 웹사이트

의 총 55개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회원은 정회원, 참여회원, 준회원으로 구분된다.⁵⁰⁾

사무국은 사무총장실 외 프로그램부, 교육 및 기술부, 마케팅·영업·커뮤니케이션부, 행정·법률·재무부로 구성된다. AUB의 의사결정 구조는 총회, 집행이사회, 특별위원회로 이루어져 있다. 총회(General Assembly)는 연합의 최고기구로, 연합 목표 달성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지며 자체 절차규칙을 채택하고 매년 1회 개최된다. 집행이사회(Executive Council)는 의장 및 부의장(3인), 5개 지역구 대표, 본부 주재국 대표, CEO로 구성되며, 총회 결정사항의 정상적인 이행여부 확인 및 예산심의 등 연합의 전반적인 운영 관련 권한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특별위원회(The Specialized Commissions)는 △프로그램위원회, △교육 및 기술 위원회, △마케팅·영업·커뮤니케이션 위원회, △행정·법률·재무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위원회의 권한은 총회/집행이사회에서 결정된다.

AUB의 주요 활동은 아래와 같다.⁵¹⁾

- 회원국 간 정보교환 네트워크 제공
 - 아프리카 대륙 내 정치·경제 부문, 스포츠 부문, 사회·문화 부문의 모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네트워크 플랫폼 제공(AUB VISION)
- 아프리카지역 협력프로젝트 및 훈련프로그램 지원
 - 시청각자료의 디지털화 프로젝트 등 아프리카 지역 주요 현안관련 협력 프로젝트 및 회원국내 교육센터 구축 등을 통한 훈련프로그램 지원
- 국제행사 개최 및 참여
 - AUB 연례총회(GA) 개최, UNESCO의 '세계 라디오의 날(World Radio Day)' 기념행사 개최, '세계 언론자유 의 날(World Press Freedom Day)' 기념행사 연설 발표 등 관련 국제기구 행사 개최 및 참여
-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 UNESCO의 '글로벌 미디어&젠더 연합체(GAMAG)' 프로젝트 아프리카 지역 포컬포

50) 정회원(Active Member): 아프리카연합 회원국 중, 공영방송사
참여회원(Participating Member): 아프리카연합 회원국 중, 민영방송사
준회원(Associate Member): 아프리카 지역 외의 공공/민간 방송사

51) AUB 웹사이트

인트 수행, 아프리카전기통신연합(ATU)과의 협력 프로젝트, 아태방송연맹(ABU)과의 업무협약 등

마. PBI(세계공영방송총회)

세계공영방송총회(PBI, Public Broadcasters International)는 1990년 캐나다 온타리오주 공영방송사인 TV Ontario와 일본 공영방송사 NHK가 주축이 되어 설립되었으며, 이후 PBS, CBC, BBC, KBS, SVT, DR, NRK, SABC, RTÉ, France Télévisions 등 전 세계 많은 공영방송사가 가입하여 현재 80여개의 공영방송사가 회원으로 활동 중에 있다.

사무총장은 도시유키 사토(Toshiyuki Sato)(일본)이며, PBI는 매년 연례 회의를 통해 세계 각국의 공영방송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나 이슈들을 논의하는 장을 제공 중에 있으며, 주요 공영미디어 그룹의 고위 임원들과 연맹 대표들(ABU, EBU, PMA, SABA)이 3일간 회의를 가진다. PBI 연례회의의 경우, 미주/아프리카/아시아/유럽 각 대륙을 대표하는 회원 방송사들이 돌아가며 개최하며, 한국도 KBS가 2007년 및 2018년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가장 최근의 PBI 연례 회의는 2019년 11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핀란드 공영방송사인 Yle의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사회를 위한 가치 창출’이라는 대주제 아래 민주주의 위협요소와 미디어의 역할과 신뢰, 디지털 시대의 유산과 리더십, 공공서비스 보고, 사회를 위한 가치 창출, 미디어에서의 새로운 물결 등이 세부주제로 논의되었다.⁵²⁾

〈표 2-16〉 PBI 연례 회의 개최현황

연도	개최국(주최 방송국)	연도	개최국(주최 방송국)
2019	핀란드(Yle)	2009	일본(NHK)
2018	한국(KBS)	2008	프랑스(France Télévisions)
2017	루마니아(Radio Romania)	2007	한국(KBS)
2016	캐나다(CBC/Radio-Canada)	2006	모잠비크(RM, TVM)
2015	독일(ARD/BR)	2005	노르웨이(NRK)
2014	브라질(EBC)	2004	중국(TDM)

52) PBI 2019 웹사이트

연도	개최국(주최 방송국)	연도	개최국(주최 방송국)
2013	미국(PBS)	2003	폴란드(Polish TV)
2012	영국(BBC)	2002	홍콩(RTHK)
2011	싱가포르(Singapore MediaCorp)	2001	캐나다(TV Ontario, CBC)
2010	포르투갈(RTP)	2000	남아공(SABC)

자료: PBI 2019 웹사이트(저자 재정리)

제 3 절 지역 규제기관 논의체

1. ERGA(유럽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규제 그룹)

2010년, 유럽 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국경 없는 텔레비전 지침’의 규제 범위 및 세부 내용을 개정한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지침(AVMSD,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을 발표했다. AVMSD는 새로운 형태의 시청각미디어 서비스를 포함한 전체 콘텐츠 산업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새롭게 재정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되었으며, 통신과 방송의 융합 환경 하에서 EU의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제적 측면의 규제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EU 회원국별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규제기관의 자체적 규제 체계 수립을 권장하고, 사회, 문화, 언어적 다양성의 차원에서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산업의 공익성을 담보하는 규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⁵³⁾

EC는 AVMSD의 적용 성과 보고 및 이에 대한 EP의 평가과정을 거치며 각국 관련 정책과 AVMSD 간 조율을 위한 소통 창구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2014년 2월 ‘유럽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규제 그룹(ERGA, European Regulators Group for Audiovisual Media Services)’을 설립하였다.⁵⁴⁾ ERGA는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분야에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규제당국 또는 규제기관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AVMSD에 규정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관련 분야 규제와 관련된 회원국 간 정책 조율과 효율적인 AVMSD 적용을 도모하며, 아래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⁵⁵⁾

- 모든 회원국에서 AVMSD를 일관성 있게 시행하기 위한 업무 및, 집행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관련 사안에 대한 전문적 견해를 집행위원회에 제공
- 접근성과 미디어 활용능력을 포함하여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규제체계의 적용에 관한 경험과 모범사례 교환
- AVMSD 적용에 대한 필요정보를 제공하고 ERGA 회원들간의 협력 도모

53)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4)

54) EU 비회원국인 리히텐슈타인과 노르웨이 및 유럽 규제기구 플랫폼(EPRA, European Platform of Regulatory Authorities)도 존재

55)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8)

ERGA는 2014년 3월 벨기에에서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2019년 현재까지 총 11차례 개최되었다.

2. ATRC(아세안 통신 규제기관 이사회)

ASEAN의 ICT 부문 협력은 2000년 이전에는 경제장관회의(AEM)와 경제 고위급 관련회의(SEOM)에서 다루어지던 의제였으나, 2000년 5월 정보통신고위급관료회의(TELSOM)와 2001년 7월의 정보통신장관회의(TELMIN)의 설립에 따라 독립 분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⁵⁶⁾ ASEAN TELMIN과 TELSOM은 'ASEAN Vision 2020'⁵⁷⁾과 '하노이 행동계획'⁵⁸⁾을 실현하기 위한 정보통신 부문의 협력 플랫폼으로써 2020년까지 ASEAN 회원국의 국가정보 인프라의 상호접속 및 운용을 달성하고, 역내 브로드밴드 상호접속을 통한 ASEAN 행동계획 실행 및 개발, 역내 정보통신 및 서비스 교역촉진뿐 아니라 역내 정보통신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ASEAN 통합의 정보통신 부문 등 ASEAN 정보통신 협력의 총괄기능을 맡고 있다. ASEAN TELSOM의 목적은 ICT분야를 ASEAN 역내 경제통합의 촉매제로 발전시키고, 활발한 ICT 협력을 통해 ASEAN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역내 지식 기반 경제의 정보사회를 개발하는데 있으며, TELSOM에서 논의되고 조정된 사안들은 연 1 회 개최되는 ASEAN TELMIN에서 승인되고 보고되면서 그 효력을 갖게 된다. ASEAN TELSOM은 △ASEAN 역내 ICT 부문 활동 및 프로그램 감독 및 조정, 실행, △회원국의 공동이익을 위한 정보통신 개발 및 정보통신 부문의 주요 국제논의에 있어 ASEAN 역내 의견 수렴 및 의견 개선, △ASEAN 역내 민간부문, 비정부기구 및 국제기구들 간의 정보통신 관련 협력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필요시 워킹그룹 및 전문가 그룹을 통해 역내 협력 프로그램 및 활동 체계 구축, △ASEAN 정보통신 부문의 협력 활동 결과를 ASEAN TELMIN에 보고, △ASEAN의 타 부문 협력기구 혹은 ASEAN TELMIN에 의해 제안된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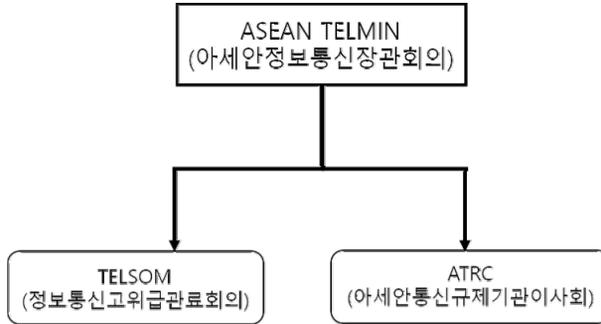
56) 강인수 외(2008)

57) 1997년 제2차 비공식 ASEAN 정상회의에서 신규회원 가입을 통한 ASEAN의 확대, ASEAN 공동체 출범을 통한 역내 통합 의지 등을 표명한 ASEAN Vision 2020 채택. 외교부 (2018)

58) ASEAN Vision 2020 실천을 위한 1999~2004년간 경제협력, 무역·투자 자유화 및 지역 안보 등에 관한 이행방안을 명시한 중기 계획으로 1998년 제6차 정상회의에서 채택

수행, △ASEAN 통신규제기관이사회(ATRC) 및 e-ASEAN 비즈니스 회의 및 ASEAN 대화상대국(Dialogue Partners)들과의 활동 조정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2-5] ASEAN TELMIN 구조



자료: 저자 작성

ASEAN TELMIN의 TELSOM의 다른 산하기구인 ‘ASEAN 통신규제기관 이사회(ATRC, ASEAN Telecommunication Regulators’ Council)’는, 1995년 7월 설립된 독립적인 지역 그룹으로, 설립초반 기술위원회의 업무만을 가졌지만 점차 모든 규제사안을 다루게 되었다. 1년에 한번 정기적인 회의를 가지며, 의장은 매년 국가별 교대로 수행한다. ATRC는 규제 이슈 관련 정보와 경험 공유, 지역/국제 이슈에 대한 견해 조정, 역량구축 활동 수행, 규제 모범 사례 가이드라인 개발, 상호인정협정(MRA) 촉진(ASEAN 통신기기 무역 촉진 포함)의 업무 범위를 갖는다. 또한, 연 1회 TELSOM 과의 합동회의를 통해 ASEAN TEL을 효율적으로 지원 중에 있다.

제 3 장 방송미디어부문 국제기구/다자협력 분야 및 전략의 방향성

제 1 절 방송미디어부문 국제협력 프레임워크

일반적으로 국제기구는 조약에 입각하여 복수의 주권국가로 구성되며, 일정한 목적 하에 국제법상 독자적인 지위와 함께 자체기관에 의하여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정부 간 조직체(Governmental Organization)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제기구는 글로벌 규범을 만들고, 글로벌 아젠다를 논의하며,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회원국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회원국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UN의 MDGs와 SDGs의 추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빈곤, 환경, 인권, 자원 등과 같이 ‘지구’라는 공동체 전체가 협력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가 있으며, 국가간의 상호의존도가 높아지고 국경을 초월하는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하여 국가간에도 갈등과 협력의 대상이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방송미디어 환경 역시 모바일과 인터넷의 확산으로 미디어 소비의 국경이 무의미해지고 방송통신 산업의 교류 확대와 글로벌 미디어의 확장이 각국 방송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증하고 있다. 미디어산업은 글로벌화 추세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지만 규제정책은 개별 국가의 이익을 중시하는 로컬에 기반하여 설계되어야 하는 것이 특징으로 시장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위해 미디어 산업을 지원하는 등 개별국가의 이익을 중시하는 각국 정부간의 정책의 충돌이 나타날 가능성도 크다. 이렇듯 급변하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방송미디어 외교 및 협력강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방송통신 분야의 효과적 규제정책 개발에 있어서 글로벌 규범과의 합치성, 국제적 공조 및 협력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제 2 절 전략 방향성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 부문의 정부간 기구에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방송미디어 주관청으로 가입하고 활동하는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빠른 발전 및 방송미디어와의 융합화가 진전됨에 따라 관련 정부부처간 업무영역이 중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영역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목적에 부응하는 지속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이는 방송미디어 정책환경의 글로벌화에 따라 국내뿐 아니라 국제협력활동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방송미디어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UN의 전문기구는 ITU와 UNESCO 정도이다. ITU의 경우는 방송미디어의 기술적인 측면이나 기술발전 및 융합의 진전으로 새로운 서비스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정책 및 규제 이슈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영역에 해당될 것이다. UNESCO의 경우는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등 매우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분야는 언론, 방송, 미디어리터러시, 콘텐츠 등이 해당된다. 이들 두 개 국제기구의 경우 주관청은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2012년까지는 ITU의 주관청이기도 했고, 그 이후에도 규제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규제기관으로서 글로벌 규제심포지엄(GSR)에 참여하고 아태지역규제자라운드테이블(ITU ASP-RR)을 개최한 적도 있다. UNESCO의 경우 미디어리터러시 관련 논의 및 회의에 참여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러한 국제기구에의 참여는 국내적인 논의를 통해 역할분담과 조정 및 이에 근거할 필요가 있다. ITU의 경우 규제관련 이슈나 방송유관 논의 및 활동 뿐 아니라 기타 통계를 포함한 일반적인 이슈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 요구되므로 주관청과의 업무협의 및 조정을 통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ITU의 관련 의제 논의 동향 등을 파악하여 미디어 소관 사항인 경우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주무 기관과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 UNESCO의 경우도 미디어 리터러시 분야 등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참여하고 있으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의 당연직 등으로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와 UNESCO의 업무범위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위원회에서의 역할과 지위를 재정립하고 이에 기반하여 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정부간 국제기구이지만 규제기관간 논의의 장을 연례 제공 중에 있는 IIC 논의 및 IRF & RRF에 대한 적극 참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이슈별 협력을 들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 기관으로서, 통신미디어 주관청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으로서 국제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별 정책 및 규제 이슈와 관련한 글로벌 어젠다 논의에의 참여 및 정책 공조 등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미디어분야의 국제협력 논의가 정부 규제기관간의 협력에 한정되지 않고, 오히려 민간방송사 연맹이나 시청자 및 시청자단체 등 민간부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괄하여 논의되고 있는 현황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제협력의 기반을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주요 비정부간 국제협의체까지 유연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글로벌 협력은 방송미디어 강국으로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국제적 공조 등을 통해 국익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국 방송미디어 부문의 선도적인 정책이나 성공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기구 등에서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이슈별 논의는 국내 정책 수립의 책임성이나 전문성에 기반하여 참여하며, 국내 관련 정책연구와 연계하여 글로벌 정책 논의 네트워크의 일원으로서 국제기구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발언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는 방송미디어 국제기구 뿐 아니라 포괄적인 어젠다를 다루는 국제

〈표 3-1〉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소관 업무별 관련 국제기구 논의체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업무	관련 국제기구 논의체
- 방송 기본계획 및 통신규제 기본계획 수립	- ITU GSR, ASP-RR
- 시청자미디어재단 관리 및 미디어교육	- UNESCO MIL 대표회의
- 방송·통신 규제 관련 연구 조사 및 지원	- AIBD AMS - ITU WSIS FORUM - IGF - IIC IRF & RRF, TMF, AC
- 방송·통신 규제 관련 국제협력	- AIBD AMS - ITU GSR, ASP-RR - IIC IRF & RRF - 지역차원의 규제이슈 논의체

자료: 저자 작성

기구나 다른 전문기구에서도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정책이슈별로 국내 전문가 회의 및 국제논의 동향 파악을 통해 참여 전략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지원 및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지역차원에서의 방송미디어 협력 추진 및 강화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 기술과 방송미디어의 융합화와의 진전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관심의 주요 대상지역이나 지역 내 협력을 위한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는 동북아시아의 협력논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주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이 현재 아시아 지역의 4개 IIC 지부(태국, 싱가포르, 호주, 홍콩)가 대부분 동남아에 위치하고 실제 동남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 회의가 운영되고 있는 바, 동북아시아를 대표하여 논의에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국제협력은 역내 선진국의 범주에 들고 많은 역내 개도국들이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한국의 위상을 고려할 때 발언권 확보나 주도적인 역할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역 내의 공동이익 추구하고 역내 격차해소 등의 직접적 수요를 해결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역내에 우호적인 네트워크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된다. 아태지역의 방송관련 국제기구인 AIBD가 이러한 역내 협력이 기반이 될 수 있으므로, 지역별 방송미디어협력체와의 대대일 협력의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한국과 ASEAN의 협력이 ASEAN+1, ASEAN+Korea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참고로 하여 ATRC(아세안 통신 규제기관 이사회) 등을 이용하여 한-아세안 방송미디어 협력을 추진하거나, ERGA(유럽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규제 그룹)과 같은 EU의 방송미디어 규제기관협의체와의 협력채널을 구축하는 방안 등이 있다. 이들 지역협의체와의 교류를 통해 각국의 규제정책이 갖는 특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며, 직접 교류가 갖는 형식성을 탈피하여 실질적인 협력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회성 협력이 아닌 지역협의체와의 상설협의체 설립과 같은 제도화된 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고위급부터 실무급까지 다양한 계위의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협력 아젠다를 개발하며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강화함으로써 향후 국내 방송통신 규제정책의 개발과 집행에 유익한 자원으로 활용할 뿐 아니라 국제적 정책공조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네 번째는 협력의 매개체로서의 국제기구 참여가 될 것이다. 국제기구를 매개로 하여 개도국 지원, 주요국과의 정책대화(Policy Dialogue)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양자간 네트워크

가 취약하거나 양자간의 신뢰관계가 성숙하지 않은 단계에서 국제기구(중립적인 중계자로서 양자간 협력을 촉진시키거나 협력네트워크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개도국들의 방송 미디어 발전을 위한 교육, 훈련, 자문 등 다양한 사업들이 국제기구와의 협력하에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다. 수원국들의 수요 파악, 동향 파악, 성과의 확산 및 국제적인 신뢰도 제고 등의 측면에서 국제기구는 매우 적합한 장이 될 수 있다. 이는 남북 방송미디어 부문의 협력 추진에 있어서도 매우 유효한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다자이해관계자간 협력에의 참여이다. 방송부문은 공영방송사 및 민영방송사 등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인터넷의 확산, 융합의 진전,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 등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국제논의의 장에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UN에 기반하고 있는 인터넷 거버넌스포럼(IGF, Internet Governance Forum)이나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의 포럼(WSSIS Forum) 등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IIC의 경우에는 민간이 설립한 국제포럼이나 규제기관만을 위한 독립적인 논의의 장(IRF, RRF) 외 다양한 산업계 및 학계 등이 참여하는 포럼(TMF) 및 연차총회 등을 개최 중이고, 논의 이슈의 범위와 참가자들의 스펙트럼도 매우 넓으므로 향후 적극적인 활동이 고려될 수 있다.

〈표 3-2〉 국제기구를 통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제협력 전략 방향성 제언

방송통신분야 국제교류 진흥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제안 전략	주요 내용
방송미디어 주관청으로서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미디어 업무를 관장하는 UN기구인 ITU(GSR, RR) 및 UNESCO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분야)에 각 현 주관청과의 역할 분담 및 조정을 통해 활동 및 대응 - IIC 규제기관 논의장(IRF & RRF)으로서의 적극참여
이슈별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별 정책 및 규제 이슈와 관련한 글로벌 어젠다 논의로의 참여 및 정책 공조 - 주요 비정부간 국제협의체까지 유연하게 확대 필요
지역차원의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EAN의 협력이 ASEAN+1, ASEAN+Korea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참고로 하여 ATRC(아세안 통신 규제기관 이사회) 등을 이용한 한-아세안 방송미디어 협력 강화 등 - AIBD 플랫폼을 활용하여 적극 참여

방송통신분야 국제교류 진흥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제안 전략	주요 내용
협력의 매개체로서의 국제기구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기구를 매개로 하여 개도국 지원, 주요국과의 정책대화 (Policy Dialogue) 등을 추진 - 국제기구를 통해 개도국들의 방송미디어 발전을 위한 교육, 훈련, 자문 등 다양한 사업 추진 가능
다자이해관계자간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에 기반하고 있는 인터넷 거버넌스포럼(IGF)이나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포럼(WSSIS Forum) 등으로의 참여 - IIC TMF, 연차총회 등으로의 참여

자료: 저자 작성

국제기구 참여를 포함한 방송미디어 외교의 강화 및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국제협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방송통신분야 국제교류 진흥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국제방송기구를 기반으로 한 다자외교 및 협력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방송미디어 국제협력의 비전과 목표를 확실히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단기적인 참가와 투자로는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장기적 비전 하에서 추진하여야 할 방송미디어 다자외교를 위해서는 우선 부처내에 관련 업무를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국제기구 대응업무의 기획력 및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여 국제기구 업무를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ICT)과 방송분야의 융합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ICT 부문의 국제기구 활동 및 다자외교를 벤치마킹하고 연계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범위, 정체성 등을 고려하여 국내적으로 국제기구활동에 대한 부처간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4장 결론

새로운 미디어 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미디어환경 하에서, 전 세계의 방송정책 및 규제기관들은 엄청난 변화와 도전 및 기회에 직면하고 있다. 급변하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방송미디어 외교 및 협력강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방송통신 분야의 효과적 규제정책 개발에 있어서 글로벌 규범, 국제적 공조 및 협력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방송미디어 규제 및 정책 분야의 다자간 방송미디어 외교 및 협력의 방향성 및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방송미디어 분야의 글로벌 환경변화와 주요현안을 파악 분석하고 관련 국제기구의 핵심의제 논의를 분석하며, 글로벌 방송미디어 발전 및 국내 방송미디어의 해외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 국제기구와의 실질적 협력방안 검토에 중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총 다섯 가지의 방송미디어 부문 국제협력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는 방송미디어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UN의 전문기구인 ITU(GSR, ITU ASP-RR)와 같은 규제이슈 논의의 장) 및 UNESCO(특히, 미디어리터러시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이다. 하지만 이들 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혹은 교육부가 주관청으로 활동 중인 만큼 이들과의 업무협의 및 조정을 통해 활동영역의 재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비정부간 국제기구이지만 규제기관 간 논의의 장을 연례 제공 중에 있는 IIC 활동에 대한 적극 참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별 정책 및 규제 이슈와 관련한 글로벌 어젠다 논의의 참여 및 정책 공조 등의 협력 추진이다. 이러한 논의는 방송미디어 국제기구 뿐 아니라 포괄적인 아젠다를 다루는 관련 국제기구나, 다른 전문기구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책이슈별로 국내 전문가 회의 및 국제논의 동향 파악을 통해 참여 전략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지원 및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는 지역차원에서의 방송미디어 협력 추진으로, 현재 한국과 ASEAN의 협력이 ASEAN+1, ASEAN+Korea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참고로 하여 ATRC(아세안 통신 규제

기관 이사회) 등과 함께 한-아세안 방송미디어 협력을 추진하거나, ERGA(유럽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규제 그룹)와 같은 EU의 방송미디어 규제기관협의체와의 협력채널을 구축하는 방안 등이 있다. 지역협의체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일회성 협력이 아닌 상설협의체의 설립과 같은 제도화된 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청인만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AIBD를 통한 지역협력 활동 촉진도 조정을 통해 가능한 방안이다.

네 번째로는 협력의 매개체로서의 국제기구 참여로, 특히 수원국들의 수요 및 동향 파악, 성과의 확산 및 국제적인 신뢰도 제고 등의 측면에서 국제기구가 매우 적합한 장이 됨을 고려했을 때, 이를 통해 개도국 지원 및 주요국과의 정책대화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방송부문에서 공영/민영 방송사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며, 인터넷의 확산, 융합의 진전,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 등의 변화와 현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인터넷 거버넌스포럼(IGF) 및 WSIS 포럼과 같은 다자이해관계자간 논의장예의 참여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방송미디어부문은 글로벌 이슈이지만 규제는 각국별로 매우 로컬화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므로, 관련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차원에서 접근하되 개별국가의 특성(사회, 경제, 문화 요소 등)을 고려한 양자적 협력이 균형 있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방송미디어부문의 특성상 규제분야 협력 촉진, 산업 진흥(향후 우리나라 기업 등의 진출 목적), 문화교류(순수 이해목적) 등의 협력을 위한 큰 범주 설정이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자신들의 소관업무를 고려하여, 명확하게 협력을 원하는 분야를 설정하고 협력대상 국제기구를 선정, 세부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 강인수 외(2008), 『한-ASEAN IT 파트너십 강화 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고상원 외(2013), 『아태지역 방송통신규제 현황 및 규제기관간 협력방안 연구: ITU-KCC 제 3차 규제자라운드테이블 논의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고상원 외(2018), 『2018년 국제회의 개최 및 국제기구 활동지원 결과보고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방송통신위원회(2018), 『2018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
- 외교부(2017), 『2017 유네스코 개황』.
- _____ (2018), 『아세안 개황』.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국 아세안협력과.
-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19),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브로셔』.
- 이강규(2009), 『방송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 현황』.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정책 21(16), 26-27쪽.
-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4), 『EU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지침의 성과 및 지침 적용 강화를 위한 정책 동향』.
-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8), 『유럽연합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 개정안』.
- _____ (2018), 『2018 IIC 워싱턴 TMF 출장결과보고서』 (내부자료).
- _____ (2019), 『2019 AIBD AMS 출장결과보고서』 (내부자료).
- _____ (2019), 『2019 IIC IRF&AC 출장결과보고서』 (내부자료).
- _____ (2019), 『2019 UNESCO MIL 대표회의 출장결과보고서』 (내부자료).
- 한국언론학회(2017), 『방송통신 분야 국제협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로드맵 연구』.

[보도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16. 5. 13.), “방통위 이기주 상임위원, ITU 세계 규제자 심

포지엄 2016 참석”.

[해외 문헌]

AIBD(1998). “Strategic Plan for the AIBD”.

_____(2019). “2019 Annual Conference Report”(사무국 자료).

IIC(2018). “IIC 2018 Brochure”.

_____(2019). “2019 IRF Summary”.

ITU(2019). “GSR Chairman’s Report”.

UNESCO(2019). “CI Who’s Who?”.

[웹사이트]

방송통신위원회: <https://kcc.go.kr/user.do>

유네스코한국위원회: <https://www.unesco.or.kr/>

한국ITU연구위원회: <https://www.koreaitu.or.kr/>

ABU: <https://www.abu.org>.

AIBD: <http://www.aibd.org.my/>

AUB: <https://www.uar-aub.org/>

EBU: <https://www.ebu.ch/home>

IIC: <https://www.iicom.org/>

ITU: <https://www.itu.int/>

PBI 2019: <https://yle.fi/aihe/pbi2019>

UNESCO: <https://en.unesco.org/themes/media-and-information-literacy>

[부 록]

방송통신 관련 국제기구/단체 현황

구분	기관명	설립 연도	본부	회원	방송통신 관련 주요 활동
정부간 국제 기구	AIBD (아시아태평양 방송개발기구)	197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 룸푸르	26개 회원국 등	- 아시아미디어서밋(AMS) - 연수프로그램, 자문관 파견 등
	ITU (국제전기 통신연합)	1865년	스위스 제네바	193개 회원국 등	1) 규제이슈 논의체 - GSR(글로벌 규제자 심포 지움) - ASP-RR(아태지역 규제자 라운드테이블) 2) 관련 포럼 - ITU WSIS(정보사회세계정 상회의) 포럼 3) 표준화 활동(연구반) - ITU-T SG16(멀티미디어) - ITU-T SG6(방송)
	UNESCO (국제연합교육 과학문화기구) *CI(커뮤니케이 션정보국) 활동	1945년	프랑스 파리	195개 회원국 등	1) 논의체 - MIL(미디어정보리터러시) 대표회의 2) 관련 협력사업 - IFAP(모든이들위한 정보사 업) - IPDC(국제커뮤니케이션개 발사업)
민간 (기구)	IIC (국제방송통신 기구)	1969년	영국 런던	51개 규제기관 회원 등	1) 규제이슈 논의체(*규제기관 만 참석) - IRF(국제규제기관포럼) - RRF(지역규제기관포럼) 2) 일반 회의/포럼 - AC(연차총회) - TMF(텔레콤미디어포럼) - Chapter(지부별 회의)

구분	기관명	설립 연도	본부	회원	방송통신 관련 주요 활동
민간 (방송 연맹)	WBU (세계방송연맹)	1992년	캐나다 토론토	7개 대륙별 지역방송 연맹	- 2달에 한번 정기회의 개최
	ABU (아태지역 방송연맹)	1964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르	71개국 274개 방송사 등	- 연차총회 및 관련 워크숍 등 개최 - 회원사간 콘텐츠 공동제 작, 뉴스 상호교환(아시아 비전 서비스) 등
	EBU (유럽 방송연맹)	1950년	스위스 제네바	56개국 116개 정회원 등	- 연2회 총회 및 관련 워크 숍 등 개최 - 유로비전 및 유로라디오 서비스 제공
	AUB (아프리카방송 연맹)	1962년	세네갈 다카르	51개국 45개 정회원 등	- 연차총회 개최 - 정보교환 플랫폼(AUB 비 전) 제공
	PBI (세계공영 방송총회)	1990년	비상설	세계 80여개 공영 방송사	- PBI 연례회의 개최(대륙별 대표회원사가 교대로 개최)
기타: ASBU(아랍방송연맹), CBU(캐리비안방송연맹), NABA(북미방송협회), IAB(국제 방송연합)					
지역 규제 기관 논의체	ERGA (유럽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규제그룹)	2014년	-	EU국 규제기관	- 연2회 정기회의의 개최
	ATRC (아세안 통신 규제기관 이사회)	1995년	-	아세안국 규제기관	- 연1회 정기회의의 개최
	IBRAF (이슬람 방송규제 기관포럼)	2011년	-	이슬람권 국가 규제기관	- 연1회 정기회의의 개최

● 저 자 소 개 ●

남 상 열

- 서울대 무역학과 졸업
- 서울대 무역학과 경제학 석사
-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경제학 박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 남 두

- 서울대 신문학 졸업
- 서울대 언론정보학 석사
- 텍사스대학교 오스틴 저널리즘 박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 태 은

- 서울대 국제정치학과 졸업
- 서울대 국제정치학과 석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 성 응

-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국제법 석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 나 연

- 한국외대 국제경영학과 졸업
- 한국외대 인도·아세안학과 석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문원

정 연 희

- 조선대학교 법학과 졸업
- 이화여대 국제통상학 석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문원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19-03

AIBD, IIC 등 국제기구를 통한 방송미디어
규제 및 정책협력 방안 연구

(A Study on Promotion of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Area of Broadcasting/Media
Regulation and Policy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AIBD and IIC)

2019년 12월 일 인쇄

2019년 12월 일 발행

발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발행처 방송통신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Homepage: www.kcc.go.kr

인쇄 인성문화
